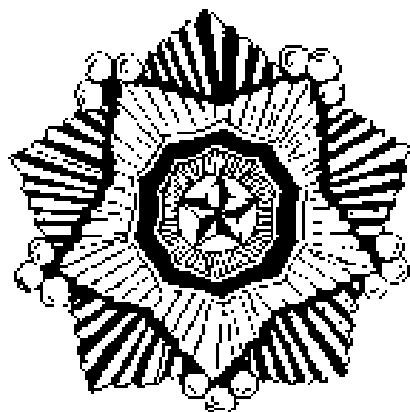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5

주체 93 (2004)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04)년 제5호

(루계 제 679 호)

◆◆◆◆◆◆◆◆◆◆ 차 례 ◆◆◆◆◆◆◆◆◆◆

전선길에서 태여났습니다	4
얼어죽은 《진드기》	5
수령님 추억속에 (1)	7
동강의 아침	7
수령님 추억속에 (2)	8
우리는 탑신을 총대로 세웠다	8
절세의 영웅, 민족의 태양에 대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대결작	9
영원한 동행자	13
철령의 꽃	13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단 위력한 전투적무기	14
내 한생의 소원	15
맑은 아침	16
그리움에 대한 생각 외 1 편	16
알찬 이삭과 쪽정이	17
고향의 기쁨.....	18
명언해설	19

백두삼천리별의 봄.....	20
광산집 머느리감	24
북방의 노래	25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26
대 홍 단 외 1 편.....	41
삼지연 새 마을	41
그이를 언제나 모시고싶네	41
조국의 아들로 산다는것은	42
병사의 순간	47
마지막집에 부치여.....	48
사람의 7 가지 지능	48
들의 매력	49
삶의 뿌리	60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명언	62
과학자와 병사들 외 1 편	62
웃음과 눈물에 대한 시	63
버드나무아래서	63
나는 과학자의 안해	64
종자가 살아야 성격이 산다.....	65
간석지벌에서.....	69
향로를 바꾸라	71

전선길에서 태어났습니다

박웅전

평양으로 원산으로 끝없이 달리는
드넓은 도로의 길손들
산천경개 절경인 우리 신령 지날 땐
희한하게 쳐다봅니다
문암봉기슭의
새로 놓은 남강다리
새로 생긴 멋진 마을

먼 전선길에서 돌아오시던
정월초의 푸름한 새벽
성에불린 차창을 닦아내시며
우리 장군님 유심히 보셨답니다

키작처럼 드리운 산그늘속에
해들지 않는 산골짜마을
읍으로 건너다니는
흔들리는 출렁다리 쇠바줄다리

해빛이 드나드는 집에는
의사가 드나들지 않는다고
저 음달마을을 강건너
양지바른 산기슭에 옮겨주고
다리도 놓아주자 하실 때

아, 머나먼 전선길에서 곁쌍인
그 피로를 푸실 쪽잠도 잊으시고
세심히도 보살펴주신 그 은정에
마을사람들 목메여 울었답니다
메비돌기도 떼지어 날아올라
하늘가득 원무를 펼쳤답니다

그해 가을 경사가 났습니다
해빛따사로운 문암봉기슭에
합창단처럼 준비하게 솟아난
전기화된 문화주택들
무지개처럼 뻗은 남강다리건너
음달마을이 통채로
양지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시랴
우리의 어버이장군님
눈덮인 전선길에서 쌓인 피로도
한꺼번에 풀리시는듯
만족하시어 말씀하셨어라

그 고장 사람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신령은 감살구가 유명한 고장
마을은 《감살구마을》
다리도 《감살구다리》로 이름지어주자 하시니

아, 해빛을 주시고 파원을 주시고
무지개다리를 펼쳐주신
축복받은 내 고향산천의
《감살구마을》
《감살구다리》

위대한 령장의 전선길에서 태어난
새 세기의 무룡도원입니다
후손만대 길이길이 전해갈
선군시대 못잇을 사랑의 전설입니다

얼어죽은 《진드기》

백두산서남쪽의 한 골짜기에는 사시장철 해가 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칠팔월 복지경에도 허연 얼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본래부터 그런것은 아니었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음력 4월부터 9월까지의 그 골짜기에도 별이 잘 들었다고 한다. 오히려 바람이 스쳐지나는 곳이어서 그때엔 무척 따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해가 들지 않게 되었으며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살다가 귀국한 어느 한사람의 말이 연변지방 로인들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졌다고 한다.

일제 관동군사령부산하에 《진드기부대》라는 별명을 가진 《특설부대》가 있었다. 머리수가 스물안팎인 적은 규모의 부대였다.

그러나 군직으로 보면 이 부대를 책임진 야마다 중위는 다른 부대의 소장급이요, 하급졸병들도 거의 좌급에 맞먹었다. 모두가 사무라이 후손들로서 《야마다다마시》 정신이 뼈속까지 들이벤 놈들인데 다 눈도 밝고 귀도 밝고 걸음새도 빠르고 힘도 세고 사격술도 높으며 격검도 잘하였다. 말하자면 무사로서는 나무랄데 없다고 하는 놈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부대를 못게 된 의도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찾아내기 위한데 있었다.

《진드기부대》 대장인 야마다는 이미 어느 한 전투에서 유격대와 맞다들어본적이 있다는 《경험자》였다. 그때 야마다가 속한 《토벌대》는 깊은 산중에서 유격대의 매복에 걸려들어 전멸되었는데 유독 야마다 혼자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놈의 말이 산꼭대기에서 신호총발빛이 평국 하더니 《왜놈들에게 죽음을 주라!》 하고 우뢰소리와도 같은 찌렁찌렁한 구령소리가 나는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대장이 틀림없이 **김일성** 장군님이였을거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찍하면 《나는 **김일성** 장군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나는 **김일성** 부대를 잘안다.》 하고 체면을 세워보려고 흰소리를 치군 했는데 이런 일로 하여 마침내 《경험자》, 《목격자》를 물색하던 상부의 지명을 받게 되고 일약 《특설부대》의 대장으로 승급이 되었던 것이다.

이 《진드기부대》엔 특권이 부여되어있었는데 야마다에게는 관동군사령관이 내준 증명서, 《토벌사령부》에서 써준 증명서, 조선총독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증명서만 하여도 수첩장만큼 두툼하게 가지고있었다.

일단 유격대사령부의 자취를 찾아낸 다음 이웃부

대들에 그런 증명서를 보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병력을 동원시킬수가 있었다.

그러나 제아무리 특권을 가진 난다긴다하는 놈들에게도 항일유격대와의 접전에서는 용빼는수가 없었다.

《진드기부대》 놈들이 처음 정보를 받은것은 유격대의 주력부대가 돈화현 오지에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놈들이 의기양양해서 긴급출동을 하였다. 그런데 돈화땅에 발을 들여놓기도전에 마주오는 한 《토벌대》를 만났는데 그들이 말하길 유격대사령부는 안도쪽에 있다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느쪽이 진짜야?》

야마다는 도중에서 부대를 안도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단 십리도 못가서 이번엔 그곳에 있는 《협화회》 밀정놈들을 만났는데 《**김일성** 부대》는 왕청현쪽으로 행군하고있다는 것이었다.

야마다는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럼 왕청쪽으로!》

어쨌든 새로 받은 정보가 그중 정확하리라고 믿어졌다.

하지만 며칠이 걸려서 그리로 갔을 때엔 이미 행차뒤나발이었다.

야마다는 정보를 제공한 밀정놈들을 나무랐다.

《개자식들, 고망년적 소식을 들고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는가?》

《진드기부대》는 다시 끈질기게 유격대사령부의 행처를 탐문해보았다.

그러다가 몽강쪽에 사령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동차로 가며는 때를 놓칠것 같아 놈들은 비행기를 잡아타고 몽강쪽으로 갔다.

그곳에 있는 여러 《토벌대》와 경찰대들이 이미 출동중에 있었다. 놈들은 《장거리추격전》을 벌릴 목적으로 등에 탄알과 식량을 한짐씩 지었다. 야마다는 체놈의 체면이 깎일세라 급히 《토벌대》를 따라앞섰다.

그런데 알고보니 유격대는 여러갈래로 갈라져서 행군한다는 것이었다.

(어느쪽이 사령부일까?)

야마다는 부하들을 서너놈씩 나누어 혁명군부대들을 따르도록 하였다.

미구에 왼쪽으로 파했던놈들이 달려와 이르기를 《혁명군사령부는 왼쪽으로 행군하고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왼쪽으로?》

야마다의 왼쪽귀가 벌쭉해졌다. 그런데 그놈이

채 결심을 내리기도전에 이번엔 오른쪽으로 파했던
놈들이 헐떡거리며 달려왔다.

《오른쪽으로 행군하는 부대가 사령부라합니
다.》

《오른쪽?》

야마다의 오른쪽귀가 벌쭉해졌다.

《대관절 어느쪽 귀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야마다가 갈피를 잡지 못해하는데 때를 같이 하
여 사방으로 갈라져 갔던놈들이 런던아 달려오며
보고를 했다.

《김일성 사령부는 내가 찾아냈습니다.》

《혁명군사령부는 내가 갔던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이 옳다고 서로 우겨댔다.

야마다는 어느놈의 말을 좇아야 할지 머리가 아
팠다.

《여기서도 김일성, 저기서도 김일성, 그러니
김일성장군은 여럿이란 말인가?》

야마다는 혼자소리인지 묻는 소리인지 어정쩡하게 중
얼거렸다.

《정말 김일성장군은 여럿인가 봅니다.》

줄병놈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며 상관의 말
을 긍정했다.

이렇게 되자 그곳에서의 《추격전》도 실패를 면
치 못했다.

겨우내 봄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왕우왕하며
헛물만 켜 야마다는 오랜 고심끝에 어느날 묘한 수
를 생각해냈다.

(백두산을 혁명군의 집이라고 했겠다. 그러니 아
예 거기에 가서 지키고있자. 언제건 혁명군사령부
가 그곳에 들릴 때가 있을게 아닌가.)

그리하여 《진드기부대》는 백두산으로 갔다.

때는 7월이라 복지경에 접어들었지만 백두산의
기온은 아직도 선선하였다.

놈들은 해빛이 잘 들면서도 숨어있기에도 유리한
백두산 서남쪽의 어느 한 골짜기로 들어갔다. 그리
고는 오목진 곳에 쭈그리고 모여앉아 기회가 오기
만을 기다렸다.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백두산의 기온은 이해따라
낮과 밤의 차이가 매우 심했다. 해가 비칠 때에는
땀이 철철 흐르다가도 그날만 되면 된겨울추위때처
럼 얼어들었다. 그해 놈들은 밤에는 몇십리밖의 마
을에 내려가 자고 새벽이면 다시 올라와 지켜있곤
하였다.

그러기를 몇번, 기다리기에 지쳐서 놈들의 눈이
방아확처럼 들어간 어느날이었다.

이날 원정의 길에서 돌아오신 위대한 김일성장군
님께서 몇몇 대원들과 함께 백두산의 장군봉에 오
르시였다.

《진드기부대》 놈들은 곧 이것을 알아차렸다.

야마다는 이미 봉변을 당한적도 있고 김일성장군
님께서 축지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술법을 쓰신다는

소문을 들어왔던터라 서둘러 접어들었다간 순간에
목없는 귀신이 되고 말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해
가까운 부대를 찾아가 증원병을 요청해오도록 부하
한놈에게 증명서를 쥐여보냈다.

백두산의 날씨도 주인이 왔다는걸 아는지 바람한
점 불지 않았고 하늘엔 구름 한조각 뜨지 않았다.
천종만색의 꽃들이 피어나 향기를 풍겼고 봉접들이
날아와 춤을 추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바위우에 걸터앉으시여 아
름다운 조국산천을 바라보시였다.

이때 뒤에 있는 한 골짜기에 왜놈들이 숨어있다
는걸 눈치챈 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장군님의 휴식
에 방해가 되지 않게 감쪽같이 슬쩍 놈들을 죽쳐버
릴것인가를 귀속말로 의논하고있었다.

그런데 어느새 아시였는지 장군님께서

《걱정할것 없소. 날 찾아다니다못해 감히 백두산
에까지 기여들었구만. 앉을자리, 설자리도 가릴줄
모르는 놈들이니 내가 버릇을 깨우쳐야지.》 하시
더니 한손을 높이 쳐드시여 그 골짜기에 그들이 지
도록 해빛을 가리우시였다.

골짜기에 숨어서 비지땀을 흘리며 움쭉달쭉 못하
고 증원부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있던 《진드기부
대》 놈들은 갑자기 골짜기안에 그들이 지고 추워
나자 의아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다. 순간 모두 눈들
이 뒤집혔다. 엄청나게 큰 손이 위에서 해빛을 가리
우고있었기때문이었다.

골짜기는 삽시에 얼어들었다. 흐르던 물은 허열
게 얼음이 되고 나무도 폴도 얼음버캐를 뒤집어췌
다. 살을 에이는 찬바람이 소용돌이치고 어디서 생
겨났는지 검은 구름이 골안을 뒤덮었다. 다른 곳은
무더운 여름인데 이 골짜기만은 뻘뻘 겨울이었다.

거기서 뛰쳐나갔다가 총에 맞겠지 그냥 앉아있자
니 사지가 얼어들지 놈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꼬부린채 공공 신음소리만 냈다.

증원병을 데리러 갔던놈이 수천명의 《토벌대》
놈들을 끌고 왔을 때엔 아직 해가 지기전이었는데
혁명군사령부는 이미 간곳이 없고 그늘진 골짜기안
에 꼬부리고 얼어죽은 《진드기부대》 놈들의 시체
만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꼴을 내려다보던 놈들
이 기절하여 뒤로 자빠졌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온 백두산에 저리도 노을
빛이 붉은데 어떻게 되어 유독 이 골짜기에만 그늘
이 저서 모두 얼어죽었을까?)

놈들은 사지를 부들부들 떨며 상관놈의 구령이
떨어지기도전에 게걸음을 해서 도망을 쳤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은후부터 《진드기부대》 놈들이 숨어
있던 골짜기에는 그들이 진채 오늘까지도 별이 들
지 않는다고 한다.

김형은

수령님 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삼지연을 떠난 우리는 갑무경비도로로 해서 무산지구를 향해 최대급행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전술을 두고 일행천리라고 했습니다. 일행천리란 한달음에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우리가 일행천리전술을 여러번 썼습니다. 몇번 써보았는데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시퍼런 대낮에 경비도로라는 이름이 달린 신작도로 수백명을 헤아리는 대부대가 일행천리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런즉 갑무경비도로개통식은 우리가 해준셈입니다. 우리는 곧추 뻗은 적들의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그날로 두만강기슭의 무포에 도착하여 숙영하였습니다.

적들은 후날 우리가 자기들이 대놓은 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을 했다는것을 알게 되자 <미증유의 괴사> 라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갑무경비도로에서 강행한 일행천리행군은 몇개 련대나 사단의 적을 소멸한것보다 더 큰 소득을 얻게 하였습니다.》

동강의 아침

한광춘

동녘하늘 불붙이는
새벽노을이 불려온 아침이 아니였다
이끼덮인 바위 푸르른 이깔숲에
또 하루
레사로이 밝아온 그런 아침이 아니였다

아직은 몰랐으나
동트는 조국의 들과 마을길에서
누구나 맞이한 운명의 아침
겨레의 삶에 즐기줄기 해빛을 없으며
김일성 장군님
이 땅 삼천리에 펼치신 동강의 그 아침

그 아침을 위해
우리 수령님
얼마나 길고긴 어둠을 헤치셨던가
총탄이 울부짖는 눈보라광야
혈전의 언덕은 얼마나 넘으셨던가

반드시 찾아야 할 아침이였다
고역에 땀젖은 마치가
일제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철퇴가 되기 위해선
수난많은 낫과 붓대가
원췌의 숨통을 자르는 칼이 되고 창이 되기
위해선

압제의 어둠을 깨치고
온 민족의 힘을 하나로 모으시는
김일성 장군님의 기치아래
숨결을 합치며 겨레가 들어선
동강의 아침

쥘 - 한가슴을 열어
환희의 봄물을 가득가득 넣어준
그 아침은 아름다웠어라
인간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그 시각처럼
해방된 조국의 그 아침처럼

단결로 조국을 찾고
일심으로 그 조국을 떨치자고
빨찌산 김대장 안아오신 동강의 아침이여
날은 저물고 세월이 가도
그 아침의 하늘가엔 해가 지지 않아라
고요한 저녁노을이 비끼지 않아라

아 《조국광복회》 창립으로
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마련하신
겨레의 은인 **김일성** 장군님의 그 업적 전하며
세기와 더불어 가지 않는 아침이다
그 크나큰 품에서 밝아
내 조국 강산에 영원히 불타는 아침이여

수령님 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습니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보천보전투가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시위한 전투였다면 대흥단전투는 적들이 전멸당했다고 선전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해있을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강대한 역량으로 자라나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철추를 내리고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무산지구에서 울린 조선인민혁명군의 총소리는 기가 죽었던 국내인민들에게 우리 혁명이 계속 상승 일로를 걷고있다는 신심을 주고 <해산사건>의 여파로 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위축되었던 국내혁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준 강심제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무산지구에서 이룩한 우리의 군사적 승리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망했다고 떠들어대던 적들의 선전이 완전한 허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이 전투가 있은후부터 우리 인민들은 적들이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절대로 끝이 들지 않았습니다. 무산지구전투가 있은뒤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은 조선인민혁명군이 건재하는 한 조국광복의 새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항일혁명의 흐름속에 앞을 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탑신을 총대로 세웠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서봉재

에서
강도 일제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던
항일대전장의 총소리 울린지도
반세기 세월을 더 넘었건만

민족재생의 숨결을 이어주고
삼천리강토에 다시 또다시
해방의 해불 지펴올리며
무산지구전투승리의 개가 드높던
옛 싸움터 대흥단

멀고도 험준한 고난의 생눈길우에 지켰던
광야의 그 우등불을 다 모아
증오로 장진한 그 화약의 도화선에
멸적의 불을 달아올리신 **김일성** 장군
그 총대의 폭풍 아직도 밀림을 흔든다
그날의 열풍안고 오늘도 이 땅은 뜨겁다

그 불
그 멸적의 총탄은
지리지 밟혀 악몽에 헤매이던
겨레의 가슴에 희망을 안겨준 총소리
일제아성의 등허리 가차없이 꺾어놓은
총대의 불 총대의 폭풍

붉은기날리는 전장마다
순간도 놓을수 없었던 그 총대가 있었기에
빨찌산영웅 김대장따라
신음하는 조국땅에서
원썹격멸의 폭풍을 터친 불멸의 총성이여

총대가 없었더라면
그 총성의 불바람 일지 않았더라면
숨결이 잦아들던 조국의 심장에
그 어이 재생의 더운 피 뛰게 할수 있었으랴

성스러운 그 총대를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 장군님
만능의 보검으로 높이 드시고
내 조국을 선군의 강국으로 세상에 떨치시려
30년대의 식지 않는 그 총대를
백두의 대공우에 높이 세워주신것 아니신가

아, 총대에 조국의 운명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고
천하를 딛고 서신 우리 장군님 총대우에
강성대국의 앞날이 열려있기에
땅도 하늘도 뜨거운 항일의 옛 전장에
우리는 탑신을 총대로 세웠어라!
불을 안은 총대 백두에 세웠어라!

절세의 영웅, 민족의 태양에 대한 시대의 기념비적인 대결작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에 대하여-

우리의 군대와 인민이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3대전선에서 혁명적공세를 벌리고있는 오늘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는 주체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일에 드리는 대결작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를 내놓았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는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며 이 세상 한끝까지 울려 퍼지고있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력사를 격조높이 칭송한 열렬한 태양찬가이며 선군시대문학예술의 기념비적결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하여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작가들은 **김일성**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힘있게 맥박치는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를 높이 부르며 선군조선의 기개와 위력을 과시할 명작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킬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그 숭고한 사상정서와 인식교양적의의,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충성의 노래, 혁명의 노래 높이 부르며 필승의 신념과 락관에 넘쳐 선군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한길로 역세게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장엄한 현실은 음악정치로 선군시대를 이끌고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놓으신것이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에는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의와 흠모심,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있다.

서곡과 종곡, 6악장으로 구성된 합창조곡의 구절구절마다에는 백두산과 더불어 흘러온 우리 혁명의 총대력사가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사를 훌륭한 예술적형상속에 집대성한 이 합창조곡이 온 나

라에 울려 퍼지게 된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경사이고 기쁨이며 주체적인 문학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된다.

지난해에 합창조곡 《선군장정의 길》이 창조되어 사람들을 경탄시킨 이후 올해에 또다시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가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구상과 음악적예지, 세심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음악정치로 선군시대를 령도하시여 혁명앞에 나선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시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혁명의 노래로 천만군민의 심장을 틀어잡고 혁명군가의 위력으로 선군시대와 혁명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특출한 정치실력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로 이끈 주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군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고 영웅적위훈과 기적의 불길을 지펴주시여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물리치시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위대한 승리와 강성대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다. 방사포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혁명군가의 위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여 혁명군가와 함께 자랑스런 승리를 펼쳐놓으신것은 위대한 백두의 령장이시며, 음악정치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중에서 중요한 업적이다.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이번에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를 최상의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훌륭히 형상하여 또다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빛내여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우리식의 독창적인 예술형식에 담아 높이 칭송한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는 위대한 선군령장, 음악정치가의 세련된 령도의 손길아래 자라난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에서 창작한 시대의 대결작이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는 사상적내용의 폭과 심도 높은 예술형상수준으로 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 우리 식의 독창적인 예술형식을 개척한 혁신적인 시대의 명작이다.

합창조곡은 무엇보다도 시적으로 완전무결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가사형상에 의하여 그 위력이 담보되고있다. 명가사에서만 명곡이 나올수 있다.

합창조곡의 가사형상은 매 악장이 하나의 가요로서의 독창성을 가진 가사로 되었을뿐아니라 그것이 작품의 전일적인 형상체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총적주제를 해명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서곡은 마치도 서사시의 머리시와도 같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태양의 역사를 말하라고 호소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화답하여 제1악장에서부터 백두산이 안고있는 혁명전통의 역사를 다양한 가사형상으로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제1악장 《아리랑민족의 살길을 찾자》는 나라 잃고 집도 잃고 고향떠나 몇천리를 방황하던 백의 동포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면서 《압록강 두만강엔 눈물의 아리랑/ 억눌린 가슴속엔 한숨의 아리랑》이라고 민족의 처절한 모습을 토로하며 아리랑민족의 살길을 찾자고 절절히 호소하고있다.

참으로 일제의 사나운 구두발에 짓밟힌 조국땅은 해도 뜨지 않고 달도 뜨지 않으며 별들마저 빛을 잃고있는 암흑의 캄캄한 밤이었으니 해도 없고 몸도 없고 꽃도 없는 이 강산에는 총칼밑에 신음하는 노예살이의 운명만이 들썩워져있는것이다. 하여 감옥과 철창속에서 《원한의 아리랑》만이 비통하게 울리고 독립을 부르짖는 《피절은 아리랑》이 겨레의 가슴을 그리도 아프게 허비였다.

아리랑민족의 수난의 비극사가 가슴치는데 희망의 아리랑이 동포들의 가슴속에 울리게 되었다.

등대없어 풍랑속에 빛을 찾는 민족아
머리들어 바라보라 조종의 산 백두산
장군별 높이 솟아 희망의 아리랑
해맞이 밝은 세상 동트는 아리랑

그렇다. 아리랑민족의 살길을 밝혀주는 백두산의 장군별이 솟았다. 백의동포여 저 백두산을 보라!

제1악장의 가사는 이처럼 아리랑민족의 수난사를 함축된 시형상속에 일반화해주고는 그 살길을 찾는 민족의 가슴에 희망을 안겨주는 밝은 정서로 급격히 이전시키고있다. 이것은 다음절의 가사내용을 맞물려주는 가장 효과적인 작시법의 활용이다.

합창조곡의 제2악장 《백두산총대는 퇴성친다》는 합창조곡 전반형상에서 특별한 형상적묘미를 차지하는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 악장의 가사형상은 총대철학이다.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총대력사의 시원과 전통, 그 의의에 대한 격조높은 레찬이다.

백두의 용암으로 총대버리고
겨레의 피눈물로 칼을 갈았다
압제의 검은 구름 불태워버릴
항일의 총대화산 터져올랐다
(후렴) 김대장 높이 드신 백두산총대
해방의 서광불러 퇴성을 친다

얼마나 상징적이면서도 백두산총대의 의미를 깊

이 새겨보게 하는 가사형상인가. 백두의 용암으로 총대를 버리고 겨레의 피눈물로 칼을 갈았다는 시구는 혁명의 총대가 어떤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것인가 하는데 대한 형상적대답이며 백두산총대가 안고있는 의미를 깊이있게 새겨주는 표현이다. 가사는 백두산총대의 시원과 전통에 대하여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서 높이 드신 백두산총대는 가사에서 노래하고있는바와 같이 《E.C》의 화불에서 해방의 서광이 비쳐오던 역사의 그날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신 두자루의 권총에 그 연원을 두고있다. 그리하여 그 두자루의 권총은 총대숲으로 솟아 《인민의 자유해방 총대에 메고/ 조선은 독립행군 기발 날린다》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하면서 가사의 3절에서는 《무장을 틀어쥐면 운명의 주인/ 무장을 못잡으면 운명의 노예/ 인간의 존엄과 자주의 앞길/ 총대로 열어나가는 새날이 왔다》고 총대철학을 시적으로 격조높이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매우 뜻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여운있는 형상이다.

돌이켜보면 《<토벌>가 의 비통한 울림에도 있는것처럼 돈이 없고 무기없는 우리 민족은 일제의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자중에 네아버지 그 가운데 한사람이라는 호곡을 터치며 피바다에 잠겨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총을 들고 달려드는 원쑤는 총대로 쳐부셔야 한다는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안도에서 높이 울린 항일대전의 총성으로 하여 이 땅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주의 앞길을 총대로 열어나가는 새날이 드디어 왔던것이다.

그렇다. 그 새날은 오늘 선군시대에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따라 역사의 온갖 풍파를 헤가리며 사회주의결사수호전을 벌리고있는 내 조국, 내 나라 강산에 21세기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펼쳐놓으며 더욱 찬란히 빛나고있다.

이것이 제2악장 《백두산총대는 퇴성친다》가 환기시켜주는 총대철학의 여운이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의 가사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백두산랑만을 시적으로 감명깊게 펼쳐놓은것이다.

《빨찌산의 우등불》(제3악장), 《혈전만리 는 보라》(제4악장), 《밀림속의 승전가》(제5악장)는 백두산빨찌산 랑만의 서사시이다.

백두산의 랑만은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성있게 내다보는 신념의 랑만이며 머나먼 적후의 천리길에서 동지를 살리는 길이 자기를 희생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혁명적지조와 동지적의리를 버릴수 없어 자폭의 수류탄을 품고 나서며 톱으로 다리를 절단하여 걷기 어려운 몸이지만 동지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을 꼬리에 달고 유인해가는 뜨거운 동지애, 붉은기의 랑만이다. 우리 혁명

위업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없이는 이러한 락관의 생활이 나올수 없다.

제3악장 《빨찌산의 우등불》은 항일빨찌산대원들의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랑만적인 화폭으로 펼쳐면서 정서깊게 노래하고있다.

달밝은 숙영지에 우등불이 라는 밤
장군님 대원들과 사랑가 부르시네
아 우등불 빨찌산의 우등불
불빛에 떠나온 고향산천 어려왔어라

만경대이야기에 이깔숲은 설레고
겨레의 눈빛처럼 별들도 반짝이네
아 우등불 빨찌산의 우등불
이 밤도 장군님 조국을 그리시네

얼마나 조국애와 향수에 젖은 정서적인 화폭인가. 가사는 우등불에 대한 미학적속성을 시형상에 재치있게 인입하여 실로 강한 여운을 안겨주는 시적화폭을 펼치였다. 참으로 노래의 은은하면서도 감정깊은 선물에 끌려들수록 가사의 구절구절에 맥박치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뿌듯이 안겨와 눈시를 젖어움을 금할수 없다. 우리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사랑가》가 귀에 쟁쟁히 들려오는듯 하다.

가사는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타오르는 우등불가에서 조국을 그리는 빨찌산들의 뜨거운 마음을 시적으로 펼쳐놓고서는 3절에서 그 우등불이 안고있는 사상정서적의미를 시적으로 일반화하여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

대오는 이 밤 다시 우등불가 떠나도
애국의 붉은 낮은 광야를 불태우리
아 우등불 빨찌산의 우등불
조국의 하늘에 노을로 비껴가네

가사가 풍겨주는 그윽한 정서를 새겨안느라면 우등불가를 떠나 애국의 붉은 낮을 광야에 불태우며 출전하는 빨찌산대원들의 기상이 뜨겁게 안겨온다.

제4악장 《혈전만리 눈보라》는 항일대전의 간고성과 시련의 고비들이 련상되어 가슴뜨거워움을 금할수 없다. 가사는 눈보라의 철학을 깊이있게 개방하면서 혈전만리 눈보라를 노래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혈로를 상징하면서도 마치 서정적주인공과도 같은 정서를 안고 노래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많은 작품들에서 노래된 백두의 눈보라와 대비되는 독창성이 있으며 가사의 새로운 발견이 있다. 《밀림에 울부짖는 거세찬 눈보라》는 안도의 밀림떠나 시련의 준령을 넘어 수령님 따라 나선 혈전만리의 눈보라이다. 이처럼 눈보라는 그 자체가 항일대전의 간고한 시련의 체현자로 되

여 백두령장을 따라 나선 눈보라로 형상함으로써 마치도 그 눈보라에 혈전만리의 사연이 다 비껴있는듯이 안겨온다. 하기에 그 눈보라는 고난의 행군길우에서는 한흙의 미시가루에 깃든 이야기를 안고 있으며 동만애로 이어진 눈보라길에서는 동지의 생사에 대하여 확인못하고서도 발길이 떨어지던가고 준절히 질책하시며 결전장에서 희생된 대원을 묻어주시기 위하여 백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서시여 걸으신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에 대한 사람의 이야기도 새겨안았다.

우리는 특히 가사에서 《사령부 안녕지켜 너전사울린 총소리/ 간직한 눈보라》라는 시구절에서 하 많은 충격적인 감동의 이야기에 가슴적신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투쟁의 길에 나서신 순간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지켜싸우는것을 혁명전사의 최대의 사명으로, 첫째가는 본분으로 여기시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드림없는 신조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대사하지기전투와 흥기하전투를 비롯한 모든 전투들에서 자신의 한몸보다도 수령님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며 마음을 쓰시였고 수령님의 신변에 위협이 닥쳐왔을 때에는 순간의 주저도 없이 한목숨 내대고 수령님을 보위하시였다.

혈전만리 눈보라가 간직한 이 가슴치는 사연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을 목숨바쳐 옹호보위하는 총폭탄이 되며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될 굳은 결의를 가다듬게 된다.

혈전만리 눈보라가 간직한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회억하면서 사람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숭엄한 경모의 정에 휩싸이게 된다.

백두산의 랑만은 《혈전만리 눈보라》의 3절에서 더욱 짙은 색조로 물들여지며 사품치고있다.

누리에 백설장검 번개친 눈보라 눈보라
선군의 총대유산 안고온 눈보라 눈보라
암흑의 긴긴 밤을 애국의 피로 불지른
혁명의 눈보라
해방의 봄을 가꾼 혈전만리 눈보라

혈전만리 눈보라는 누리에 백설장검을 번개치며 선군의 총대유산으로 일제에게 짓밟힌 암흑의 긴긴 밤을 애국의 피로 불지르며 해방의 봄을 가꾸었다. 얼마나 뜻이 깊고 랑만적인 시형상인가.

제5악장 《밀림속의 승전가》는 또 얼마나 담차고 호기있고 웅건한 화폭으로 백두산의 랑만을 펼

쳐놓았는가.

따웅—따웅—백두산호랑이가 뿔성을 친다. 하모니카 풍작작 피리소리 물루루 밀림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승리 오락회에 빨찌산의 랑만가들이 나왔다. 유인매복전술에 걸려든놈 얼마나. 천번만화전법에 지옥에 간놈 얼마나. 천리품도 대풍년이다. 어깨으쓱 흥겨운 총대춤도 좋고 땀이 들썩 올리는 발춤도 정말 흥겹다. 얼마나 흥겨운 빨찌산오락회 장면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류다른 감회를 느낀다. 지금까지 유격대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에서 이러한 노래춤판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는가. 그러나 다시한번 《밀림속의 승전가》의 오락회를 음미해보라. 그들은 지금 백두산호랑이의 뿔성치는 따—웅소리에 장단맞춰 승전가를 부른다. 강도일제를 혼비백산케하는 백두산호랑이의 따—웅소리에 맞춰 흥겨운 춤판을 벌리는 투사들의 담력과 투지, 위엄과 기상이 얼마나 담대하고 웅대한가. 바로 이것이 작품이 새롭게 제시한 문제이다.

출판우에 등실 뜬 쟁반같이 둥근달
래일전투 승전고로 높이 올려라
사령관도 즐거워 박수장단 울리니
삼천리에 펼쳐갈 해방춤 좋다

이것이 백두의 랑만이다.

백두산이 랑만을 펼친 세계악장의 구조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로 공간을 펼치면서 서정적주장을 명백히 하는데 그것이 신념과 락관, 확신과 믿음으로 강하게 지향되고있다. 하여 랑만의 정서를 진하게 퍼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가슴 후련하면서도 환희와 희열의 감정을 안겨주고있다. 이것은 백두산에 대한 미학적정서적의미를 더욱 새롭게 해준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는 제6악장과 종곡에서 지금까지 서정적으로 축적하여온 감정을 폭발시켜 시대와 력사 인류앞에 장엄히 선언하는 작품의 총적주장을 격렬하게 터치고있다. 이 마감부분은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신 절세의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에 대한 만민의 칭송이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과 더불어 오늘도 영원히 계속 흐른다는것에 대한 강렬한 주장이다.

백두의 붉은 지맥 세계에 뻗어
동방의 새 조국은 빛난다
인류여 노래하라 만대의 영광
새 세기 태양의 봄 주셨네
조선아 만세부르자 백두의 태양은 빛나
김일성 우리 민족 영원히 번영하여라

그렇다! **김일성** 우리 민족은 영원히 번영한다. 만리창공에 백발을 휘날리며 거연히 솟아 세기를 굽어보는 백두산아 말하라. 주체의 태양을 받들어 올린 그 영광의 백두산마루에 정일봉 높이 솟아 온 겨레가 우리르는 향도의 태양을 맞이하던 력사의 그날 우리 인민이 얼마나 크나큰 환희에 휩싸였던가를. 창창한 대공이 열리고 천지는 채운이 서리였다. 소백수푸른 물은 굽이쳐 흘렀다. 천리수해도 기쁨에 설레이고 소담한 만병초가 활짝 펼치였다.

천줄기만줄기 산발을 쩡쩡 울리며 봄우뢰마냥 메아리친 력사의 맹세. 혁명은 계속된다, 백두산에 오르니 혁명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 … 승엄하게 울린 장군님의 그 맹세는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걸어나갈 확고한 결심의 위대한 선언이었다.

하기에 합창조곡의 종곡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은 오늘도 백두산에 서계시며 주체의 태양은 영원하리라 장엄하게 세계를 향하여 소리높이 웨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의 사상정서적주장이다.

합창조곡 《백두산아 이야기하라》는 가사와 곡이 사상주제적내용과 시대의 감정정서에 맞게 완전 무결하게 밀착된 명곡중의 명곡이다. 명가사에서만이 명곡이 나온다는 진리에 대한 생동한 립증이다.

서곡과 종곡은 시대와 력사, 인류앞에 웨치고 대답하는 그 곡과 심도에 맞게 장중하면서도 웅장한 감정으로 곡형상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매 악장들은 가사의 내용에 맞게 특색있는 개성과 양상을 가지고 곡형상이 이루어져있다. 조국해방의 은인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에 대한 무한한 경모와 존경, 항일대전에 대한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각이한 곡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구현되어있다. 때문에 합창조곡의 곡형상은 총대와 같이 위력하고 돌격의 합성과 같이 거세차기도 하며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처럼 힘있고 박력있기도 하다. 또한 환희와 희열, 전투적이고 락천적인 곡형상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처럼 선군시대의 전투적인 사상감정이 넘치는 걸작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선군시대의 자랑인 수령찬가, 혁명군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신념의 메아리이며 강성대국건설에로 힘차게 부르는 장엄한 승리의 포성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영원한 동행자

주체90(2001)년 5월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께서는 어느 한 부대에서 출연하는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을 보아주시었다.

이날 그이께서는 어느한 토막시극을 보시고 이 작품에는 가정보다 조국과 총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군인가족들의 사상정신세계가 잘 반영되어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작품을 쓴 작가에 대하여 료해하시고 작품을 잘 썼다고 치하하시면서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내놓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사실 그이께서 높이 평가하신 작가로 말하면 지난시기 아버지문제로 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있었다. 그의 희망은 작가가 되는것이였다.

(파연 나의 이 희망이 실현될수 있을가?)

남들보다 몇배의 노력을 기울여 작품을 쓰고 노력을 가하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런 근심이 떠나지 않고있었다.

그런데 몇년전인 제 2 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 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그의 재능을 헤

아려보시고 그를 작가로 키워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렇듯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의 희망을 활짝 꽃피워주시고도 이날 이 작품을 쓴 작가를 군관으로 제발한것은 아주 잘하였다고 우리 당은 작가, 지식인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고, 지식인들은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를 표창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푸시었다.

영원한 동행자! 이것은 한 군인작가만이 아닌 지식인모두에게 돌려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표시이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 길에서 장군님과 뜻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행자가 될 심장의 맹세로 가슴불태우고있다.

박봉운

철령의 꽃

황성하

꽃을 사랑하는 시인이라서
령길의 철죽
내 네앞에 서있는것 아니여라

떨기떨기
숲속의 잔설우에
파스한 봄의 입김 풍기는 꽃이라서
내 네앞에 걸음멈춘것 아니여라
철령의 철죽아

최전연으로 향하시던 그 길에
불붙는듯 환희로이 피여웃으며
철령의 벼랑가 굽이마다에서
우리의 장군님을 맞이했던 꽃

철령의 철죽은 아름답다고
기쁘시여 말씀하신 우리 장군님
그 꽃잎에 한줄기 포연이 스며들세라

그 꽃잎에 원쑤의 창끝이 닿을세라
가시는 그 험한 길에
아름아름 안고가신 우리 장군님

철죽 너는
그날에 전선으로 가시는 장군님
목메여 바래드린 인민의 모습이 아니더냐
거룩한 헌신의 그 자욱우에 새겨진
이 나라 인민의 구김없는 모습이 아니더냐

사랑다해 껴안고
불러보는 철죽아
봄이 좋아 망울터친 꽃만이라 하라
너는 장군님마음속에 사시절 뿌리내렸기에
인민의 마음속에 피여 지지 않는 꽃
그래서 더 사랑하는
철령의 철죽아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가지고 혁명군가를 높이 부르며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서

단평

천만군민의 심장에 불을 단 위력한 전투적무기

— 가요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에 대하여 —

김순림

진군의 나팔소리와도 같이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그들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노래는 그 사상정서적감화력으로 하여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한다.

뜻깊은 역사적사변들로 수놓아질 올해의 진군길 위에 올려퍼진 가요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최준경작사, 조정준작곡)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선군혁명승리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혁명적인 노래는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사람들의 투쟁열의를 북돋아주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진군을 고무하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분위기를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우리의 노래가 선군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기 위하여서는 가사문학에서부터 시대정신을 옹계 구현하여야 한다.

가사는 노래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명가사가 있어야 명곡이 나온다는것은 가요창작의 원칙이다.

가사는 우선 시문학의 한분야로서 시대정신을 민감하고 예리하게 구현하고 자기의 독자적인 사상에 술적풍격을 갖추고있어야 한다. 다시말해서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종자가 있어야 하며 자기의 뚜렷한 주장과 개성적얼굴이 있어야 하며 발견이 깃든 새롭고 풍부한 서정이 있어야 한다.

가요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는 명가사창작의 사상정서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가사는 우선 시대의 의지와 지향과 념원을 옹계

구현하고있다.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력사적인 시대마다에는 그 시기를 추동하고 특징짓는 사상과 의지가 있다. 우리시대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를 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휘날리며 전진하는 선군혁명의 시대이다. 선군은 우리 혁명의 만능의 보검이며 백전백승의 투쟁의 무기이다. 선군만이 우리가 살길이며 민족의 번영과 후손만대의 영원무궁한 행복이 담보되어 있다.

가사는 제목에서 보여주는바와같이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라는 우리 시대의 기본투쟁의 표대를 박력있게 제시하고있다.

가사가 선군시대의 기본지향과 의지를 훌륭하게 구현하고있는것은 3절로 된 가사의 사상정서적흐름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총대로 승리해온 우리 혁명의 로정과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총대로 승리하고있는 우리 선군시대의 현실과 선군의 기치를 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나갈 우리 혁명의 미래를 통일적인 구도속에 시대의 서정을 펼치면서 선군정치의 필승불패성을 격찬하고 있는것이다.

간고한 력사의 먼길도 혁명의 총대로 헤쳤다
희망찬 새 세기 앞길도 총대로 열었다
장군님 높이 모신 조국이며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총대가 앞장서나가니 붉은기 더 높이 날린다
총대가 불구름 가시니 창조의 숲이 솟는다
장군님 이끄시는 조국이며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총대로 진군해가는 길 누구도 막지를 못한다
 총대로 승리해가는 길 강국의 위용떨친다
 장군님 빛내시는 조국이며 앞으로
 선군의 기치를 따라 계속혁명 한길로

보는바와같이 가사 1절에서는 간고한 역사의 먼 길도 혁명의 총대로 헤쳤고 희망찬 새 세기 앞길도 총대로 개척한 선군혁명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적 로정이 일반화되어있으며 2절에서는 총대를 앞세우고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사회주의 붉은기수호전을 벌리고있는 오늘의 선군현실이 반영되어있으며 3절에서는 총대로 혁명의 진군길을 다그쳐가는 우리 나라는 총대로 강성대국의 위용떨치며 영원히 승리할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맥박치고있다. 그리고 선군혁명의 빛나는 승리와 오늘의 현실, 확고한 미래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따라 선군의 기치높이 계속혁명 한길로 전진하였기때문이라는 사상정서적결구으로 형상을 집중해나가고있다.

가사는 총체적으로 정론성이 강한것이 특징적이다. 그만큼 정치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어들을 많이 구사하고있다. 매절의 시행들을 보면 거의 모든 시줄들에 강한 정치성을 띠는 시적표현들로 이루어져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어들이 생경하지 않고 가사의 총적인 사상정서적주장에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적정을 불러일으키는것은 시적일반화의 수준이 매우 높기때문이다. 가사는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군대와 인민의 사상적지향이 무엇

인가, 한마디로 시대의 서정이 무엇이며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문제에 높은 가사형상으로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다. 가요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의 비상한 감화력을 두고 말할 때 선률형상의 성과가 매우 크다

가요의 선률형상은 가사의 사상정서적지향에 맞게 진취적이고 박력있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장엄하게 전진하는 천만군민의 우렁찬 발걸음인양 박력있고 전진적인 선률은 선군시대의 기상을 자랑스럽게 부각하고있다.

가요의 형상에서 특징적인것은 첫단부터 확신에 넘친 선률로 힘있게 울리면서 기본주제를 제시하고 두번째 단에서 그것을 더욱 강조하여 단락을 주고있다. 이렇게 축적하여온 감정정서를 후렴구에서 고조시켜 폭발시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따라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계속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빛난다는 사상주제적과제를 형상으로 꽃피우고있다.

가요 《선군의 기치따라 계속혁명 한길로》는 선군의 기치따라 백승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에 대한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선군혁명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정서적분출이며 선군의 숨결로 맥박치고 활동하는 우리 작가들의 뜨거운 심장과 시대에 대한 정서적체험이 낳은 열매이다.

가사

내 한생의 소원

유영하

사랑의 품속에서 철이 들면서
 간직한 그 소원 오늘도 뜨겁네
 장군님께 기쁨드릴 그 순간 위해
 눈오나 꽃이 피나 내 심장 불타네

새날이 밝아도 밤이 깊어도
 가슴에 그 소원 더욱더 간절해

장군님께 기쁨드릴 그 순간 위해
 흐르는 날과 달에 위훈을 새기네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 기쁨에
 내 한생 바라는 행복이 있어라
 장군님께 기쁨드릴 그 순간 위해
 내 삶의 오늘 있고 래일이 있다네

맑은 아침

문동식

레사로이 밝아온
조국의 맑은 아침
내 바라보는 저 하늘은
무엇으로 처리도 푸른것입니까
내 가슴에 흘러드는 맑은 공기는
무엇으로 이리도 깨끗한것입니까

간밤에도
찬바람에 옷자락 날리시며
초소를 찾아가신 우리 장군님
병사들의 총도 잡아보시고
철갑모의 이슬도 닦아주시며
병사들과 함께 계신 아버지장군님

백두의 선군령장 그이 계시여
또 하루 밝아온 맑은 이 아침
내 조국땅우에는
멸적의 퇴성인양 혁명군가
승리의 환희만을 안겨주며 울리거니

참으로 청신한 이 아침
나는 바라봅니다
천리 방선을 품에 안고 지새우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안광

이 아침 태양으로 빛나고있음을

그렇습니다 맑은 아침은
선군총대에서 밝아움을
선군이 바로 맑은 아침임을
이 가슴에 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다함없는 사랑속에
조선은 오늘도 맑은 아침의 나라로
행성우에 더 높이 솟아 빛을 뿌리거니

그 어떤 광풍과 불구름에도
흐려질줄 모르는 내 조국의 맑은 아침
나는 보고있습니다
이 아침이 바로
선군으로 빛나는 장군님의 조선임을

나는 한생을 바쳐가렵니다
아침의 정기와 기상을 안고
선군태양이신 우리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성스러운 한길에
오, 그러면 조선은
영원히 찬란하게 빛날것입니다
더 맑은 아침의 나라로

그리움에 대한 생각 외 1 편

류동호

그리움!
그것없이 못사는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리움이여 너는
내 인생의 전부

그리움은
내 삶의 숨결
장군님모습으로 가득찬 이 가슴속에
샘처럼 솟구치는 순정의 피줄기더라
용암처럼 굽이치는 녘의 불덩이더라

사랑하고 사랑해도 모자라고

믿고 또 믿어도 끝이 없고
소원하고 소원해도 더 커만 지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내 삶의 행복
그이께 바치는 나의 이 심장

그리워 자나깨나 못내 그리워
품에 안아 키워준 아버지 그 사랑을
운명의 젖줄기로 안고 사는 이내몸
그 뜻 받들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숨쉴수
그 자욱 따르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못가
가슴깊이 새겨넣은 그리움은 인생의 진리

그리움이여 너는

첫 새벽이슬 헤치며 전선길 가시는
장군님 우러러 맞이하는 아침이더냐
그이의 야전차를 함께 타고 달리며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행복한 밤이더냐

신문에서
화면에서
그리운 장군님 그 모습 뵈을 때면
너무도 기쁘고 반갑고 마음즐거워
그 모습밖에 온 세상이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날과 달이더냐

굽이굽이 멀고 험한 전선길에서
장군님 부디 건강하시라!
꿈을 꾀도 환하게 웃으시는 꿈을 꾸고
일을 해도 그이의 기쁨만 생각하는
그리움 그리움은 내 삶의 세계

그리움이여
내가 불타는 심장은
시련의 모진 눈보라에도 얼지 않더라
그리움 안고 가는 길은
고난의 만리길도 멀지 않더라

그리움을 간직한 심장에

눈비오는 날도 태양이 솟고
그 모습을 우러르는 눈동자엔
이 나라의 높고낮은 고지들이 다
백두산을 닮은듯이 보이더라

이 그리움을 땅에 뿌려보라
오곡백과는 계절보다 먼저 익으리라
이 그리움을 총대에 채워보라
결사옹위의 성새는 더 높이 일떠서리라
이 그리움을 시로 더쳐보라
위대한 태양송가로 만고에 우뚝치리라

이 세상이 열백번 변한대도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그리움
하늘땅이 불바다에 잠긴다 해도
더 솟구쳐 타오를 그리움은
선군시대인민의 한마음 한생각
이 땅에만 굽이치는 신념의 거세찬 대하

아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
그것으로 행복을 찾는 우리 생활
총대로 지켜갈 우리 생명
이 세상 끝까지 그 품에 안겨살
장군님식솔의 영원한 가풍이여
태양민족의 아름다운 미래여 !

알찬 이삭과 쪽정이

봄이면 한터전에 뿌린 씨앗
여름에도 한이랑에서 자란 이삭
가을이면 갈라지네
알찬 열매와 쪽정이

한하늘아래서 자양도 같이 받고
한 땅우에서 줍도 같이 빨며 자랄 때는
하나같이 어스비슷했건만
가을날의 판결은 너무도 판이하구나

눈맛에도 흐뭇한 알찬 이삭은
이손저손에 떠받들려 알곡창자로
보기에도 후줄근한 쪽정이는
여기저기서 버림받으며 사료창고로

가을날의 발이랑우에서
알찬 이삭과 쪽정이를 손에 들고
깊어지는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생각

인생도 열매와 같은것이기예
아름다운 삶을 가꾸지 않는다면
때가 된 가을이면 갈라지리
알찬 인생과 쪽정이인생

이 세상 제일좋은 삶의 터전에서
따뜻한 햇빛아래 꽃피는 나의 인생
가꾸지 않아도 때가 되면
저절로 알찬 열매가 되라

아름다운 삶을 꾸준히 가꾸라
피땀으로 생의 열매를 가꾸라
인생의 가을날엔
쪽정이가 아닌
알찬 이삭을
고마운 내 조국에 바치고저...

고향의 기쁨

박창민

토지정리를 한 농장벌은 모내기전투로 들끓고 있었다. 한낮이 되올무렵 논머리에 모여앉아 농장원들이 휴식을 하는데 빨간 수건을 쓴 처녀가 날듯이 달려왔다.

《총대가정 어머니!》

처녀는 한손으로 편지를 흔들었다. 농장원들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다. 아들 4형제를 모두 인민군대에 내보내어 《총대가정 어머니》로 불리우는 인상좋은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편지냐?》

《아들 부대에서 오는 편지예요.》

《총대가정》 어머니가 서둘러 편지를 뜯었다.

봉투안에서 한장의 사진이 나왔다. 총을 안고 군기앞에서 찍은 초병의 사진, 군사칭호는 상급병사, 볼수록 미덥고 림름하였다. 봉투안에는 사진과 함께 편지도 들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일당백의 강군으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병사의 모범에 대하여 알리는 중대정치지도원의 편지였다. 병사의 어머니는 너무 기뻐 사진과 편지를 보고 또 보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꽤나 좋아한다. 아니, 사진인데 어머니목소리를 들겠소, 원.》

그러자 어머니는 한손으로 사진을 높이 쳐들고 기쁨을 터뜨렸다.

《듣지 않구. 여러분! 이 애가 바로 내 아들이요!》

《하하하》, 《호호호》...

빨간 수건 처녀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수집은 눈길로 사진을 보았다. 얼굴 빨개지는 그 사연을 사람들이 왜 모르랴.

《분이, 너 사진을 보면서 얼굴은 왜 빨개지느냐?》

《아 참, 분이가 명철이와 편지를 몇번 주고받더니 마음속으로 명철일 생각하고있는게 아니냐.》

《어마나!》

처녀는 부끄러워 허둥지둥 달아났다. 또다시 웃음판이 터졌다.

문득 나의 눈앞에는 전화의 날 전선에서 날아온 총각의 편지를 받고 오솔길덤불에 치마폭 찢겨도 춤추듯 집으로 달려가는 처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시기에도 전선에서 날아온 한장의 편지가 고향사람들에게, 싸우는 인민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안겨주었던가.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며 조국의 촛토를 피로써 지켜가는 인민군용사들의 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빛나는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라는 전선의 아들딸들을 그려보게 하며...

사람들은 사진과 편지를 돌려가며 보았다. 그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다. 그는 고향의 아들이었다.

그의 모습에서 고향사람들은 초소에 서있는 사랑하는 아들딸들과 동생, 누나의 모습을,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 군인품성을 보고있었다.

초소에서 보내온 사진은 고향사람들에게 그렇듯 기쁨과 힘을 안겨주었다. 성새와 방패인양 담벽같은 가슴을 짝 펴고 서리발총검을 비껴든 림름한 병사의 모습을 바라볼수록 고향사람들은 마음이 든든하였다.

《자, 우리도 군대나간 자식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올해농사를 잘 지어봅시다.》

분조장이 자리를 털며 일어나자 모두들 한목소리로 화답하였다.

《예,- 한바탕 해제깁시다.》

논머리 휴식터에 기쁨의 파도가 일렁이였다.

...병사들의 고향소식을 취재하기 위해 서해벌방의 어느 한 농장을 찾아갔던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벅차올랐다.

초소에서 보내온 한장의 사진이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는가. 지금 이 시각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소에서 보내온 아들딸들의 사진을 받아 들고 저렇게 기뻐하고있을것인가.

공장마을 살림집들에서, 파도소리 정다운 포구의 일터에서, 푸른 숲 설레는 림산마을에서, 배움의 글소리높은 학교들에서 병사의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부모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군대답게 툼툼하게 자란 아들딸들의 모습을 보며 대견해하고 교원들은 제자의 성장에서 교육자의 긍지를 느끼고 처녀들은 가슴에 품은 정 누가 알가봐 얼굴을 살짝 붉히고...

나는 군대나간 아들자랑, 딸자랑을 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을 무심히 볼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그 사진이 어떻게 고향으로 날아오게 되었는지, 그 사진 한장한장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아마도 다는 모르리라.

위인이 있어 사랑의 전설도 있는것이다.

전선에서 전선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위해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에 실려 저 사진도 여기로 날아온것이 아닌가.

부대의 영예게시판에 나붙은 한 병사의 사진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도 대견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울려왔다.

병사들의 독사진을 여러장 찍어주어 고향의 부모와 학교선생님들, 동무들에게도 보내주라고, 한장은 이다음 약혼한 처녀에게 주면 군복입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는가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의 해빛이 이 나라의 집집에 뜨겁게 흘러넘치고있다.

초소의 병사들을 언제나 나의 병사라고 정깊이

불러주시며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다 헤아릴수 있으랴.

한 병사의 사진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이 일당백의 강군으로 자라나는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장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병사들이 고향의 부모들과 선생님들, 다정한 친구들의 기쁨에서 초소를 부탁하는 조국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병사의 고향에 기쁨가득 안겨준 한장의 사진, 성장한 병사의 사진에서 기쁨을 찾고 더 큰 힘과 용기를 내어 래일을 앞당겨가는 고향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몽클 뜨거운 생각에 젖어든다.

조국을 지켜선 미더운 병사들을 언제나 아껴주고 시대앞에, 나서자란 고향땅에 내세워주고 싶어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웅심깊은 사랑, 고향과 조국의 아들딸로 성장해가는 아들딸들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인민들에 대한 자애깊은 사랑이 이 가슴에 뜨거이 흘러든다.

나는 사진을 보며 기뻐하는 농장원들의 모습, 고향의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진기를 들었다.

불어오는 싱그런 바람에 머리수건을 날리며 논판에 남먼저 들어서는 처녀의 모습이 확 안겨왔다.

초소에서 보내온 한장의 사진이 농장벌에 넘치는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된 병사의 고향.

위대한 선군령장의 병사사랑이 들가득 넘치는 병사의 고향풍경을 소개하고싶은 충동에 나는 샤타를 눌렀다.

명언해설

《예술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훌륭한 예술은 창작가의 높은 사상의식과 창조적열정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깊은 사색과 불타는 열정, 긴장하고 완강한 창조적노력은 창작에서 상상할수 없이 높은 속도를 낳게 하며 작품의 사상예술적질을 높이는 결정적요인으로 된다. 높은 정치적자각과 불타는 창작적열정을 지닌 작가, 예술인은 창작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지만 정치적자각이 부족하고 창작적열정이 없는 작가, 예술인들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결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결국 창작에서의 성과여부는 시간에 있는것이 아니라 창작가의 높은 사상과 창조적열정에 달려있다.

백두삼천리벌의 봄

박정애

1

봄바람 불어불어 봄이라더냐
 봄빛이 흘러흘러 봄이라더냐
 흥단수 물소리에도 생각 깊어지는
 백두삼천리벌의 봄

포실포실 기름진 땅이 숨쉬는 소리
 푸르러지는 감자잎의 속삭임을 안고
 끝없이 펼쳐진 이깎나무 방풍림
 못잊어 전하는 설레임소리

구름우에 펼쳐진 하늘의 별인가
 눈뿌리 아득한 대지
 이 땅의 후더운 바람결조차
 내 가슴에 뜨거운 설레임소리

아지랑이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흥암땅의 첫 이랑 마음에 안으니
 장군님 날리시던 야전복자락소리
 금시 산들바람에 실리어올듯
 목메여 눈시울 젖어오누나

마음은 하냥 진정할수 없어라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겨울이 오고
 이 땅에서 제일 늦게 겨울이 가는
 백두삼천리벌의 이 봄
 봄은 봄이여도
 계절이 가져다준 그런 봄이런가

이제는 겨울이 다 가고
 제비들도 처마밑에 보금자리 다 지었는데
 눈보라치는 정월에 오셨던 그이
 아직도 대흥단을 떠나지 못하시고
 땅의 온도 재여보시며
 이랑길 걸으시고계시는건 아닌지

물어보자 이랑이여
 우리 장군님 이 봄을 찾아
 그 언제나 마음은 대흥단에 계시었구나
 눈보라 몰아치는 엄혹한 겨울에 사시었구나

말해다오 이랑이여
 차창에 허열게 얼어붙은 성에
 손으로 닦고닦으시며
 솟눈길 헤쳐오신 그 어느해의 2월 16일
 생신날마저 이 땅에 바치신
 세월가도 못잊을 그 날의 그 자욱

자욱
 자욱
 승엄히 그날의 자욱 따라서는
 내 마음에 조용히 들려오는
 장군님의 그 음성
 우리 오늘 대흥단을 현실체험하자고

무릎치는 솟눈길
 한이랑 넘으시고
 또 한이랑 넘으시고 걸으시며
 한순간이라도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전선길 이어오신 하루건만
 추운데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겠는가 하시며
 걸고걸으시는 눈덮인 이랑길

어이하라
 걸으시는 그 눈길 행군도 모자라시는듯
 이랑에 걸음멈추시고
 몸소 허리를 굽히신 그이
 땅의 온도 재여보신것은
 그것은 정녕 흠이런가

그날!
 그 순간!
 우리 어버이께서는
 차디찬 대지의 강철 그 손에 다 걸어안으시고
 자신의 온기를 대지에 다 부어주시었나니

아 산천도 감격에 젖어드는가
 백설의 대지는 해빛에 번들거리고
 눈꽃을 피운 방풍림의 아지마다

이랑이랑 눈덩이들 폭폭 떨어졌어라

우리 장군님은 이런 길
꼭 이런 길 걸으셔야 했던가
진정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봉쇄로
조국은 엄혹한 시련 겹쳐들어
그이 가시는 길
누구도 대신할수 없었기에

이 길만이
인민의 생활을 풍성하게 할수 있었기에
이 길만이
조국번영의 활로를 열수 있기에
그이께서는 누구보다 먼저
백두의 눈보라를 헤쳐야 했다
눈속에서 봄을 찾으셔야 했다

뜨거움에 두불을 적시며
그날의 그 자옥 마음에 안아보노라
우리 장군님은
그 백두의 겨울 다 안으시고
인민에게는 따뜻한 봄만을 주시였구나

이 벌에 새겨진 그날의 그 자옥
흐르는 세월에 묻힌다 해도
잊지 못할 생신날의 이 자옥
인민의 마음에 깊이 찍혀져
영원히 지울수 없는 그날 그 자옥이여

백두의 눈보라는 그 얼마나 사납더냐
허나 장군님 야전복자락에서 날리시는
사랑의 열풍만이 이 땅에 불어불어
인민의 마음속에는 찬바람 모르노라
이 땅에는 그 엄혹한 겨울이 없어라

벌이여
대지여
태양과 가장 가까워져
그 길디긴 겨울 물러가고
봄을 먼저 불러왔구나
예전이면 발갈이 시작이던
5월의 이랑이랑 감자잎 파릇 돌아

불어부는 바람결도
그이의 숨결로 후덥게 느껴지고
땅가득 넘치는 봄빛도

그이의 정겨운 미소로 안겨오는
백두삼천리벌의 봄
우리 장군님의 봄이여

2

봄바람 불어불어 봄이라더냐
봄빛이 흘러흘러 봄이라더냐
백두의 첫 기슭에서 시작된
사연도 많은 이랑이여
뻗어가 삼천리 시작은 어디
뻗어와 삼천리 그 끝은 어디

어디를 가도
그 어디를 보아도
새 봄맞이로 흥치는 백두삼천리벌
끝없이 걸어보는 내 마음에
추억의 설레임소리

제비들 쌍쌍이 날아감도는
사랑의 이랑이여
내 노래의 나래를 퍼다오
너는 그이의 손길에서 뻗었구나
너는 그이의 따스한 체온 다 안고 이어졌구나

내 불에 내 온몸에 그 온기 후더워
목매여 걸음멈추고
검붉은 흙 한웅큼 진것은
끝없이 전선길 달리던
야전승용차 문득 멈춰섰던 그 자리
신홍분장 발머리

전후의 봄날
내리는 찬비속에 첫 삼을 뜨시던
수령님의 유화앞에 서시여
장군님 깊은 사색속에 잠기셨던것은
감자농사혁명의 새 결심 다지신 그날의 새벽은
어느해 봄날이었더냐

그 봄날 이른새벽
우리 장군님
해돋이 불타는 백두의 하늘에
대홍단의 봄
온 나라에 펼쳐가실
굳은 결심 다지셨기에
그 노을 이 땅에 불타고있다

이 땅이 아니었던가
백두용암의 화산재로 덮여
태고적부터 버림받던 땅
수령님

너의 대지에 첫 소생의 숨결주신것은
총포성 올리던 항일대전의
그날이었거니

바라보면
저기 저 항일전장의 밀림속 그 어디
활활 타오르던 우등불자리 보여올듯
속영지의 별많은 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들려주시던
수령님의 그 말씀 새겨오누나

간도의 그 어느 산전막에 들렀을 때
한 로인이 삶은 감자를 권했다고
그때 나는 그 감자를 들며
조국이 해방되면 백두산기슭에도
감자꽃 만발한 무릉도원 꾸리고
인민들을 잘 살게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하늘을 지붕삼아
락엽을 이불삼아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20 성상 우리 수령님
빼앗긴 나라를 찾으시던 그 나날에
너는 그때 풍요한 대지의 고고성을 더쳤다

그날에 벌써 너는
버림받은 황무지가 아니였다
보배롭고 기름진 대지였다
너의 이랑이랑은
잊을수 없는 그 언덕에서 뻗어왔구나

그래서 김정숙어머님
조국땅 밟으시며
승리의 총성을 울린 그날
가난에 쪼들리고 설움에 얼어든
가슴가슴 녹이시며
군량미를 다 털어내어
수령님님원어린 대지에
해방의 봄씨앗 행복의 봄씨앗을 남기셨거니

바로 이 땅을 일으키시려
우리 수령님
종파놈들과 싸우셨고

백두삼천리벌을 가꾸시려
찬눈비는 그 얼마나 맞으셨던가

그때문에
땅이라도 다른 땅이 아닌
우리 장군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뿌리내린
이 땅 백두대지
고르고 고른 종자를 손수 묻으시고
오시고 또 오시여 가꾸어주시었나니

새 품종의 종자를 찾으셨다고
전선길에서 다시 오시고
새 기계들의 가동을 보아주시려
비바람 맞으시며 또 오시였고
새집들이에는 어버이되시여 오시였으니

떠나신 시간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다시 오신 날은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춘하추동 백두벌의 사계절
일년삼백에순다섯날 이 봄을 가꾸시려
벌써 그 몇해째 계시었구나

그 은정에 뿌리내린 감자잎을 안으니
장군님의 무한한 애국의 그 세계
천근만근으로 헤아려져
무겁구나 너무도 무겁구나

누구시나 감자를
혁명이란 말과 나란히 하신분이
감자를 두고
나라의 큰 대회까지 마련하여주시는분

이 시대
이 준엄한 력사앞에서
인민과 함께 교락을 나누시고
조국을 책임지고 인민을 책임지고
빨찌산의 행군길을 이으시는분
시련의 폭풍을 한몸으로 헤쳐나가는분

이 나라의 가장 살기 좋은 교장으로 꾸리시려
준엄한 이 세월에
자신의 뉘를 바쳐가시는
어버이장군님

별이며

너의 시작은 그 어디
 너의 끝은 그 어디
 끝간데 없는 이 대지를 안아주시는
 위인들의 그 손길에 받들려
 풍요한 대지로 펼쳐진 백두벌

불멸의 력사가 새겨진 대지여
 백두산 3대장군의 숭고한 자욱으로 꽃피난 땅
 그 뜻 그 념원을 길이길이 빛내이시려는
 장군님의 그 자욱따라 깃드는 봄
 어려웠던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 불러오신
 아 강성대국봄이어

3

봄바람 불어불어 봄이라더나
 봄빛이 흘러흘러 봄이라더나
 그이 사려깊은 눈빛에 담아보신 이랑이랑
 숨엄히 바라보는
 내 마음에 산천도 봄 사람도 봄

해빛 눈부신 여기저기 선경마을
 우리 장군님 찾아오셨던
 복받은 《제대군인마을》
 벌써 그 프락에서 귀여운 홍단이
 대지를 향해 걸어오고있구나

안아보자
 위인의 축복받은 딸아
 선군세월의 사랑전설을 수놓은
 너를 안으니
 제비들 흰가슴 스치며 날으는
 천이랑 만이랑 머리를 쳐들고 일어서며
 하늘가에 둥실 받들어올릴듯 싶은
 대지의 기쁨이어

기쁨의 이랑길 환희의 이랑길을 걷노라
 하늘을 치받고 웅장히 솟은
 신덕대지의 농마공장으로
 분홍수건 사뿐히 날리며
 처녀들 분주히 나드는 목장으로
 이끌어 나를 이끌어

나의 노래여
 잠간 멈춰서다오
 장군님 대홍단에서 맞은 흰눈송이

야전복자락에 내려앉던 그 눈송이
 아직도 녹지 않은 그 눈송이앞에

초소의 병사들을 만나시고
 먼길에서 돌아오시다가도
 한밤 야전차창에 언뜻 스치는
 대홍단의 불빛은 풍경
 그윽한 미소짓고 오래도록
 장군님 굽어보신
 봄이 웃는 고개길에 세워다오

벌들이 봉봉이며 날아드는
 하얗게 핀 감자꽃을 보실 때면
 자강땅 그 어느 발머리에서도
 새로 정리한 황해도의 그 어느 들길을
 걸으시다가도
 대홍단의 이랑이랑을 마음속에
 먼저 걸어보신 장군님

그 어느 사적지의 이름없는 강사가
 감자를 먹으니
 얼굴이 달덩이처럼 되였더라는
 자랑겨운 소박한 이야기도
 기쁘게 들어주신 어버이장군님

병사들을 찾아가도
 어느 공장길 농장길을 걸으셔도
 장군님마음속에
 한순간도 대홍단은 떠나지 않았다
 방풍림설레임소리는
 그이의 옷자락을 소리없이 날려주었다

진정 조국의 길이란 길
 그이 넘으신 령이란 령은
 백두의 이랑이랑에 다 잇닿아있고
 백두의 넓은 들에 찍으신
 그이의 자욱자욱에 다 어려있어라

행복넘친 대지여
 축복받은 봄이어
 봄이면 가장 따뜻한 봄이 깃들라
 세세년년 풍작을 불러오는 봄이 깃들라
 천지전변의 위대한 봄이 깃들라

그 옛날 겨울이 길고 가난하여
 한숨속에 살아야 했던 이곳

백암령넘어 시집을 보내는것이
그리도 소원이던 이 고장사람들

홍단수물결을 따라
서두수물결을 따라
동음소리 높이 솟아난 발전소들
집집마다 전기화의 웃음 피워주거니
세상에 이보다 더 살기 좋은 고장
또 어디 있으랴

이제는 대홍단에 사는것이
사람들의 소원이 되어
처녀들 찾아 끝끝한 제대군인들이 오고
총각들 찾아 도시처녀들 오고있거니

이 땅에 뿌리내린 제대군인 부부들
그 사랑이 피여놓은 새봄의 꽃들
장군님사랑으로 더웁혀진 땅을
억세게 지켜선 그대들
대를 이어 그 믿음 노래할
정찬 봄의 주인들이여라

사회주의선경이여
이 봄으로 하여 더 풍성해지라
동해천리 서해천리

2 모작 3 모작 감자산 높이 쌓고
이 땅을 들썩케하는 농악소리에
어디가나 웃음도 풍작 노래도 풍작

백두산이 뻗어내려
백두대산줄기가 이루었듯
백두삼천리벌 이랑이랑
이 나라 삼천리로 뚫려 뻗어내려
집집마다 사람들 가슴마다에
사랑의 해살 행복의 해살이 되라

이 봄으로 하여 향기로우라
이랑이랑 감자꽃 무지개는
이 봄으로 하여 더욱 부강하여라
존엄높은 **김일성**민족이여
해빛찬란한 한지붕아래 굳게 뭉친
사회주의 대가정
인민의 세상이여

김정일장군님의 나라
백두삼천리벌에
백두령장의 의지로 펼쳐진 봄
온 나라 한끝까지
번영할 강성대국의 래일을 먼저 꽃피운
아 내 조국의 봄이여

가사

광산집 며느리감

최문식

막장에선 혁신자로 소문났어도
장가를 가라면 찢찢 매더니
앞집처녀 옆집처녀 다 밀어놓고
오늘은 광부총각 선보려 가네
며느리도 손자도 늦어진다고
걱정 많던 어머니도 성수가 났네

일 잘하고 인물 잘난 제대병사라
보아든 색시감도 제격일테지
하지만 아들녀석 귀땀하는 말

아이가 돌씩 달린 처녀이라네
어머니는 그만 펄쩍 주저앉았네
광산마을 머리들고 어이 다니랴

장군님 한식술로 화목한 나라
두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처녀
어머니는 사연듣고 무릎을 쳤네
며느리감치고는 상으뜸이라
복받은 선군시대 한낱한시에
며느리도 손자들도 함께 맞았네

북방의 노래

김철후

추 억

자강땅의 추억은 깊어
락원의 행군을 한다고
어찌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을 잊으랴
장군님 식탁에도
빈번히 강냉이죽이 오르던 나날

다 말해 무엇하랴
하나 하나만은
만약 6천리 대한의 눈보라길이
이 북방에서 생기지 않았다면
조국의 오늘이 얼마나 저 멀리 있었을가

량 해

그리도 마음에 걸리시는가
너무 바빠 못 만나본 사람들
이 밤도 텅 빈 사무실에서
창밖의 눈송이만 헤이고있겠지
그 모습이 어려와
끝내 잠 못 이루시다가

-어찌겠소, 우리가 가야지 ...
일군들에게 량해를 구하시고
하루만에 다시 되돌아온 수천리 눈보라길
오, 손 한번 잡아주고싶으시여
뜨겁게, 뜨겁게...

10 월의 희천

봉쇄와 압살을 고집스레 외우던 제국주의자들
이번에는 세계에 요란스레 떠들었다
사회주의 마지막보루가 어떻게 허물어지는가를
그리고 자기들의 《전략》에 감탄도 했다

그러나 이 땅은 전혀 달랐거니
흐뭇한 마음으로 북방의 공장 찾으신 장군님
놈들이 봉쇄와 압살을 아무리 공론해도
조선의 수령겐 이렇게 기쁜 일만 있으니...

랑림의 사모곡

하도 멀어
무우오가리 몇점 박힌 쥬기밥을
비내리는 가릉령에서 드시고
다시 이으신 길의 끝은
이 나라 오지 랑림
이런 고생 하시면서도
오시면 떠나고싶지 않다시네

이런 험한 길 걸으시면서도
가시면 또 오시고싶다시니
정녕 이 북방은 그이께 고생만을 드렸는데
장군님은 도리어 힘을 얻으셨다니
우리 자신이 장군님의 힘인줄
그때는 정말이지 몰랐네

래 일

장자강기슭엔 창조의 열매로 불수록 장관
곳곳에 발전소마을 희한한 공장지구
무릉도원 락원길을 거니시다
쏟아지는 닭알폭포앞에서
가금도 예술이라 그렇듯 기뻐하실 때
장군님 우러러 생각도 깊어라

오시기만 하면 달라지는 락원
아, 사랑의 그 손길 또다시 미치면
이 땅은 또 얼마나 높이 솟아 빛날것인가
그때 사가들은 새 사전에
선군이란 말과 함께 어떤 단어들을
새롭게 넣을것인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리희남

1

그것은 벌써 10년전 일이었다.

그때 박수남이라는 제대군인이 우리 8호굴착기에 처음으로 배치받아 왔었다.

《절 많이 도와주십시오.》

간단한 인사말끝에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반죽종게 병글병글 웃었다. 그의 호남아형의 얼굴과 매우 조화롭게 어울리는 웃음이었다.

나는 그때 굴착기무한궤도를 점검하다가 그를 마주보았다.

하늘끝까지 겹겹이 늘어선 산줄기들이 우리의 발 밑으로 아득히 펼쳐졌는데 광활한 산악의 도처에선 아지랑이가 가물가물 피어오르고있었다. 채굴장의 거무튀튀한 쇠돌바위들도 봄벌을 받아 기지개를 쭉쭉 커는것만 같았다.

《제대군인이라... 참 반갑소. 어디서 복무했소?》

《안변에서 복무했습니다.》

《안변!... 참 수고가 많았겠소.》

나는 일종의 좋은 기대를 품고 그의 호남아형의 둥글둥글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러한 경우에 제대군인들은 대체로 자기의 군사복무경력에 대해 몇몇이 말하거나 혹은 은근한 자랑을 표시하곤 한다. 젊은 시절에 벼를 잡지 못했다는 사람이 없는것처럼 군사복무시절에 멋지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제대군인도 없는 법이다.

그런데 박수남은 몇몇한 대답을 하거나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을 대신에 《저야 뭘...》 하면서 여전히 병글병글 웃고만 있었다.

나는 펍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박수남은 무너진 갯속에서도 착암작업을 계속한 바로 그 영웅적인 중대의 한 성원이었다는것이다. 그리고 갯입구가 막혀버린 그 위급한 순간에 압축공기배관에 입을 대고 박을 향해 《압축공기를 보내달라. 착암작업을 계속하겠다.》고 웨쳐댄 사람도 바로 그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와 만난 자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래서 내 눈에 좋게 보였는지도 모른다.

첫상봉에서부터 좋은 인상을 안겨주던 이러한 사람이 한 2년 지나자 뜻밖에도 우리 굴착기초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경험으로 보나 년한으로 보나 기능으로 보나 또 학력으로 보나 내가 응당 초소장이 될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가 되고보니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을지 알수가 없었다. 어쩐지 무시를 당한것만 같은 무거운 심정에서 좀처럼 벗어날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시비하거나 헐뜯을 생각은 없었다. 나로서는 그를 성실하게 대하며 적극적으로 뒤받침해주는 길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나의 인간적인 수양을 보여주는 참다운 처사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박수남은 벌써 8년째나 우리 굴착기초소장으로 일하고있다.

우리 굴착기초소원들은 열세명이나 된다. 그중엔 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익살을 잘 부리는 사람 등 버려벌 사람들도 다 있건만 로력조동이 있을 때마다 그를 선참 초소장으로 지명하곤 했다. 초소원들속에서는 그를 두고 《종신초소장》이라는 말까지 떠돌고있다.

그는 정말 《종신초소장》으로 될만도 했다. 우리 굴착기가 광구적으로 관리도 그중 잘됐고 언제나 만가동하면서 계획을 선참으로 넘쳐수행하곤 했기때문이다.

《우리 굴착기일이 이렇게 잘돼나가는 까닭은 진수동무랑 여럿이 날 진심으로 도와줬기때문이요. 정말 고맙소.》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광산적인 사회주의경쟁에서 우리 8호굴착기가 1등을 하던 날 박수남은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나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해지는것을 보며 그의 인간됨에 대해 속으로 깊이 생각해보았다. 굴착기의 만가동을 위해 누구보다도 애써온 사람은 바로 그였건만 얼마나 허심하게 처신하고있는가.

그의 인간됨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것은 안해를 끔

찍이 사랑한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덜된 녀석들처럼 자기 안해한테 반말질을 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 언제나 경어를 쓰면서 처를 무척 아끼곤 한다. 안해의 부담을 덜어주자고 때로는 제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그의 안해는 남편의 이러한 간참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쪼쪼해지기 시작했나요? 집안일은 이 <내무대신>의 주관하에 진행되는 거야요. 당신은 그저 굴착기에만 정신을 쏟으라요.》

이럴 때면 박수남은 허허 웃고만다.

부부간에 서로 돕고 이해해주는 까닭에 집안에 언제나 웃음이 찰찰 넘쳐나며 동네에서는 《웃음많은 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안해를 그렇게 금싸래기처럼 아껴선 뭘하겠소. 안해행실은 다홍치마적부터 그루를 앓힌다는 말이 있잖소.》

한번은 내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한적이 있었다. 그가 안해의 치마폭에 너무 얹어지는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는 머쓱해하거나 쭈뼛거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안해를 도와주는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것이였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되오. 병약하니까...》

그 말속에서 나는 안해에 대한 그의 진지한 애정을 느꼈다.

어느날 무슨 일때문인가 박수남이네 집을 찾아간 일이 있었다.

늦은 저녁때였다.

내가 마당에 들어서자 안에서 부부간에 오고가는 말이 새어나왔다.

《이번 명절날엔 당신이 그 첫날옷을 펼쳐입고 우리 강바람이나 좀 쏘이자구...》

《아이참, 그걸 그렇게 막 입으면 돼요. 당신이 약혼기념으로 준건데 될수록 아껴야지요. 두고두고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난 당신이 그 옷을 입었을 때가 제일 좋더구만. 그 옷은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날개갈단 말이요. 그 옷을 꼭 입소. 아끼지 말구...》

대답대신 안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처럼 안해의 치장에 대해서까지도 언제나 원심

을 쓰는 사람이였다.

나는 박수남이때문에 우리 처한테서 종종 싫은소리를 듣곤 한다.

내가 집안일에 등한히 하거나 혹은 본의 아니게 처한테 반말을 쓰는 경우엔 영낙없이 입이 다사스러운 처의 반격을 받게 된다.

《정희 아버지(초소장)를 보라요. 자기 처를 얼마나 꼼찍이 생각하는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배심종게 코웃음을 치곤 한다.

《흥, 알기도 잘 아는구만. 남편이 그렇게 된건 안해때문이요. 그의 안해가 남편을 얼마나 곱살긋게 대하는지 아오? 그런 녀성이야 사랑을 받을만도 하지. 당신처럼 그렇게 뻗뻗해서야 어느 남편인들 고와하겠소. 당신이 초소장의 안해를 절반만치라도 닮았대도 내 당신을 업고다니며 쓸어주겠단 말이요.》

이쯤되면 처는 더는 말 못하고 입을 삐죽거리기만 한다.

박수남의 안해가 사람들을 노상 곱살긋게 대한다는것은 공인된 사실이기때문이다.

박수남의 안해는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이 동그스름하게 생긴 녀성이다. 어딘가 모르게 병약해보이는 체질이이지만 그러한 체질때문에 인상이 흐려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스러운 동정을 자아낸다. 그의 쌍겹진 눈은 웃음을 위해 만들어진것처럼 언제나 생글거리고있다. 그 눈때문인지 혹은 부드럽고 싹싹한 성미때문인지 그를 대하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금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명 《재미있는 녀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있다.

그의 안해가 가지고있는 또 하나의 미덕은 남편 공대가 지극한것이다.

박수남의 점심밥판을 열어보면 어느때든 안해가 정성들여 싸준 갖가지 반찬을 보게 된다. 그 반찬들중에서 이채를 띠는것은 까나리볶음과 고추장이다. 박수남이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안해는 까나리볶음과 고추장을 단 한번도 떨군적이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박수남이 개에 류다른 취미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 그의 안해는 잔등이 늘씬하고 꼬리가 탐스러운 누렁이를 기르고있다.

나는 지금도 토실토실한 알록강아지를 안고 우리 집을 찾아왔던 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토실토실한 강아지와 《재미있는 녀성》이 얼마나

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화를 이루고있었던지 나는 무어라 형용할수가 없다.

《울봄에 우리 누렁이가 낳은거예요. 여섯마리나 되는 강아지를 초소원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정희 아버지가 어찌나 못살게 구는지...》

그의 쌍겹진 눈은 여전히 생글생글 웃고있었다. 남편의 강요에 못이겨 강아지를 가지고 온것처럼 말은 했지만 실은 그렇게 마음쏠줄 아는 그러한 남편을 은근히 자랑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아유! 요 귀여운 강아지. 지난해에도 강아지를 받고 신세를 갚지 못했는데 또 이렇게 받으면 어쩌나? 정말 마음들이 비단결같다니까...》

임이 다사스러운 나의 처가 좀 뚱뚱해진 몸을 보기 좋게 흔들며대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우엔 상대방을 끔찍이도 올리쫄고 내리쫄며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달변을 늘어놓는 기질을 가지고있다.

우리 초소원들은 자주 박수남이네 집에 모여들곤 하는데 실은 그의 안해때문이다.

그의 안해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언제나 즐겁게 대하며 성의껏 음식을 차려주기도 한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박수남의 안해가 차려주는 음식이 별맛이라고 하면서 이 집과 연결된 사람이라면 누구든 발길을 끊지 못한다. 명절날 같은때에도 의례히 초소장네 집에 모여앉아 밤늦도록 놀이판을 벌리다가는 박수남의 안해를 일으켜세워 손뼉을 쳐대며 그의 지정곡을 들어보기도 한다.

그의 지정곡은 《그대는 알거예요》 라는 무척 절절한 감정을 담은 노래였다.

2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굴착기가 우리 광산의 채굴장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였다.

그 굴착기는 대형화되고 현대화된 8립방짜리 굴착기였다.

그전까지는 4.5립방짜리 굴착기를 쓰고있었다.

장군님께서 8립방짜리 대형굴착기를 일식으로 갖추어주심으로써 쇄돌생산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될뿐만아니라 전투장의 면모도 굴착기운전공들의 처지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어제날처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병어리장갑을 끼고 일하던 때는 영영 지나갔다. 인제는 정말 와이샤쓰에 넥타이를 매고 신사적으로 일할수있는 멋진 시대가 다가왔다.

8립방짜리 굴착기를 맞이하던 날 온 광산은 명절 기분으로 들썩거렸다.

광산의 경제선동대원들이 굴착기현장으로 달려올라와 나팔을 불어대며 초소원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초소원가족들까지 갖가지 음식들과 지원물자를 준비해가지고 굴착기에 나타나 남편들과 함께 이날의 기쁨과 영광을 나누었다.

지어는 초소장네 집에서 기르는 누렁이까지 박수남의 안해를 따라와 사람들을 웃기였다.

사람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박수남이와 그의 안해는 물론 초소원들까지도 기특하게 여기고있는 개였다.

누렁이는 벌쭉거리는 박수남에게 광광 매달리며 탐스러운 꼬리를 설레설레 젓기도 했고 그의 다리에 칭칭 감겨들며 킁킁거리기도 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며 현장의 여기저기를 쫓쫓쫓쫓 뛰여다니기도 했다.

《새 굴착기를 보니 누렁이도 기쁜 모양이구만.》

《아니, 우릴 축하해주러 왔어. 누렁이... 누렁이...》

저마다 웃고 떠들며 누렁이를 반기는데 초소원가족들이 가지고 온 지원물자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박수남의 안해는 남들처럼 돼지나 염소와 같은 지원물자를 마련할 대신에 굴착기운전결상에 깔 꽃방석과 매개 초소원들에게 나누어줄 하얀 가락장갑을 사람들앞에 펼쳐놓는것이였다.

꽃방석은 밤색바탕에 빨간 꽃송이들이 다문다문 피여난것이였고 가락장갑은 결혼식때에 신랑들이 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으로 만들어진것이였다.

《전 이런것밖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초소장의 안해는 부끄러운듯 머리를 숙이였다.

나는 그의 얼굴이 가을날의 감처럼 발가우리하게 물든것을 보았다. 아마도 자기가 제일 변변치 못한걸 준비해가지고 왔다고 몹시도 저어하는것 같았다.

그가 너무도 송구해하기에 나는 그를 두둔해주고 싶은 생각이 버쩍 들었다.

《뭘 그러오. 꽃방석과 가락장갑이 우리에게겐 제격이요. 그 어떤 지원물자보다 더 반가운거란 말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초소원들이 목청을 돋구며 호응해나섰다.

《옹소! 우리 굴착기운전공들을 꽃방석에 앉혀주고 싶은 그 심정 왜 모르겠소. 기름투성이었던 우리들을 새신랑처럼 내세워주고싶다는거지요?》

《정희 어머니의 우리의 달라진 처지를 제일 선참으로 축복해주었소.》

우리는 이렇게 떠들어대는 과정에 꽃방석이 가지고있는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 거기에는 굴착기운전공들을 위해 하나의 꽃방석이 되려는 그의 가룩한 심정이 깃들었던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심금을 크게 뒤흔들어놓을수밖에 없었다.

그는 삼시에 박수갈채를 받는 무대우의 명배우처럼 대인기를 끌었다.

익살꾼 라문진은 자기가 받았던 꽃목걸이를 박수남의 안해에게 걸어주며 이렇게 너스레를 떨었다.

《고맙습니다, 정희 어머니.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있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한쪽팔을 척 내리드리우고 허리를 깊숙이 구부렸다.

늘어지는듯 한 그 억양, 그 동작도 우습거니와 꽃목걸이를 건 박수남의 안해의 모습도 또한 꼴볼견이었다. 어찌나 키가 작았던지 꽃목걸이 아래테두리가 그의 무릎정강이에서 데롱거리고있었던것이다.

너인들은 배를 끌어쥐고 깔깔거렸고 남정네들은 턱을 떨며 너털웃음을 쳤다.

박수남의 안해는 무안을 당한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얼굴을 싸진채 일어날줄 몰랐다.

이때 누군가 꽃목걸이를 걸었던김에 굴착기운전공들을 축하해서 노래 한마디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옹소-》

《부르기전엔 놔주지 않겠소.》

사방에서 걸걸한 목소리들이 물방으로 터져나왔다.

소나기를 피하자 된우박을 만난격이었다.

박수남의 안해는 더는 빠질 구멍이 없게 되었다.

그는 흥조가 담뱃 어린 얼굴을 숙이며 일어섰다.

《반주는 우리가 맡겠소.》

코가 빨간 경제선동대원이 희뻘게 말하며 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간신히 일어섰던 박수남의 안해가 두손을 내저으며 숨넘어가는듯 한 소리를 질렀다.

《아이, 싫어요. 싫어요. 전... 반주를 받으면 노래 못해요.》

《오-라, 제 식으로 부르겠다는게지... 더욱 좋

소!》

누군가 환성을 질렀다.

박수남의 안해가 목청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굴착기가 던져주는 그늘밑에 앉아있었다. 거대한 다락발같은 채굴장에 석양이 깃들고있었다. 여름날의 노을은 기막히게 아름다웠다.

그의 안해는 아름답게 단장된 자연의 조명을 받으며 지정곡이 아니라 시를 읊기 시작했다.

...

그대는 알거예요

내 왜 그대를 웃으며 따르는지

...

그의 시가 멀리서 들려오는 정다운 방울소리처럼 시작되다가 점차 질고 절절한 감정을 드러냈다.

하늘에서는 꽃구름들이 둥실둥실 떠가고 거무튀튀한 쇠돌바위들이 명상에 잠겼다.

평상시에 늘 들어오던 그 시가, 그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이날엔 왜 이다지도 류다르게 느껴지는것일까.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것은 그 시의 마디마디에서 흐르는 그 무엇에 대한 헌신의 감정과 넋이었다.

여기 산정의 한점에서 그의 안해는 꾸밈없는 절절한 서정을 펼치며 그 넋을 불러오고있었다.

거무튀튀한 쇠돌바위들이 드러난 이 땅, 이 하늘 그리고 하늘끝까지 아득히 펼쳐진 광활한 산악,이 모든것이 시가 전하는 그 헌신의 감정에 맞추어 살아움직이며 태동하는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안해를 바라보는 박수남의 눈이 축축히 젖어든것을 보았다. 무상의 행복감에 잠긴 눈물인가, 아니면 변함없이 꽃피는 안해의 그 아름다운 정에 겨운 눈물인가.

그의 곁에는 누렁이가 친근한 동무처럼 나란히 앉아있었다.

과연 잊지 못할 여름날의 한순간이었다.

이날 박수남은 초소원들앞에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8립방짜리 굴착기를 영원히 원상대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전망목표를 제기했다.

장군님의 대해같은 은덕에 꼭 충성으로 보답하자는것이 바로 그의 심정이였고 의지였다.

이런 면에선 그 누구보다도 진실했고 량심적인 사람이었다.

다음날엔 광구분초급당비서 한철웅이 8호굴착기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키가 크고 코날이 두드러져 매우 예리한 인상을 주는 50대의 사람이었다. 단호하고 날카로운 성미였으나 좋은 일앞에서는 어린애처럼 자기의 흥분을 다잡지 못하곤 했다.

《어제 8호굴착기에서 선물설비를 원상대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전망목표> 를 제기한건 아주 잘된 일ियो. 우린 그걸 온 광구에 일반화하자고 하요. 초소장동무, 드팀없이 내미요. 우리가 힘껏 밀어 주겠소.》

그의 말은 고무적이였다.

우리는 흥이 나서 굴착기를 만가동시키며 쇠돌을 팡팡 캐냈다.

3

사람은 어려운 때에 알아보게 된다.

나는 《고난의 행군》을 하던 그 어려운 나날에 이들이 어떤 자욱을 찍었는가를 더듬어보지 않을수가 없다.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와 압살책동으로 하여 엄혹한 시련이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휩쓸었다.

굴착기운전공들은 식량사정이 곤란했다. 주변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식량을 얻으러 나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까운 친척들의 도움을 받자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익살과 즐거움으로 수놓아지던 어제날이 정녕 다시 돌아올수 없단 말인가?

《인젠 어쨌으면 좋겠소. 초소장동무?》

나는 굴착기운전칸에 앉아있는 그의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어쩐지 이젠 죽으나사나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수남이 나를 돌아다보았다. 이상하게도 무뚝뚝하게 굳어진 표정이였다.

《난 굴착기를 살려내자는거요. 부속품을 우리 자체로 마련해서...》

그의 말은 나를 무척 놀라게 했다. 나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기때문이었다.

(그렇게는 안된다.)

나는 머리를 흔들수밖에 없었다.

그 까닭은 부속품을 자체로 마련하여 굴착기를 가동시킨다는것이 도저히 실현될상실지 않은 일이기때문이었다. 그전처럼 공무동력기대들이 썩썩 돌아가면 몰라도 나사못 하나를 가공하자고 해도 술

한 품이 먹어야 하는것이다.

《잘 생각해보요. 사정이 얼마나 어려워졌소. 이런 환경에선 굴착기를 무사히 지켜내기만 해도 큰 성과라고 나는 생각하요.》

《나도 물론 사정이 어렵다는걸 모르는게 아니요.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앉아있을수야 없잖소. 지난 밤 보도에서도 장군님께서 최전연부대들을 시찰하시였다는 소식이 나오더구만.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던지...》

박수남은 두눈을 쪼프리며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고있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았다.

아마 거기서 이 고난의 시기에 엄혹한 시련의 최첨단을 걷고계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을 그려보는것만 같았다.

그 표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절절한 여운을 안겨주고있었던가.

이렇게 되어 우리 남은 초소원들은 박수남의 발기를 따라 극히 어려운 때에 굴착기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투에 펼쳐나섰다.

광구장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던 한철웅비서가 8호굴착기의 실태를 알아보고 머리를 크게 끄덕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벌써 자기를 다잡지 못하는 흥분이 어리기 시작했다.

《좋은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변함없이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그는 우리를 둘러보고나서 격한 어조로 말했다.

《만일 8호굴착기가 제일 선참 살아나게 된다면 거기에 힘을 얻어 다른 굴착기들도 죄다 돌아가게 될거란 말이요. 8호굴착기에서 한번 기발을 들어보요. 이 어려운 때에... 우린 동무를 믿겠소.》

비서는 진정한 믿음의 표식으로 박수남의 어깨를 툭 쳤다.

《알겠습니다.》

박수남은 나직이 대답하고는 송구스러운듯 얼굴을 붉혔다.

나는 박수남의 발기를 따라나선것이 얼마나 잘된 일인가를 다시한번 깊이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만일 박수남이를 막아나섰더라면 내 어찌될뻔했는가?)

일손이 모자랐던지라 우리는 낮과 밤을 이어대며 부속품을 하나씩 얻어다가는 굴착기에 맞추어 놓곤 했다.

일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하나하나의 부속품을 얻는 과정이란 결국 피타는

노력을 깡그리 바쳐가는 과정이었다.

제일 딱한것은 전동기베아링들과 전기부속품들이었다. 다른 부속품들은 자체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었으나 그것들만은 전문공장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어쩔수가 없었다.

그런데 익살꾼 라문진이 복중에 가서 그 부속품들을 얻어오겠다고 자칭해나섰다. 복중에 자기의 처가가 있으니 그 줄을 타면 요구되는 부속품들을 얻어낼수 있다고 장담하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라문진은 이미전에 벌써 식량때문에 초소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제기하려다가 초소의 형편을 보고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부속품문제가 제기되자 이렇게 선뜻 나서는것이였다. 필경 처가에 가서 식량을 얻어오리라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 행위로밖에 볼수가 없었다.

그런데 박수남은 매우 좋은 제기라고 하면서 선선히 응해나섰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소. 가보오. 난 라문진을 믿겠소.》

《넘려마오. 아무리 어렵더라도 꼭 얻어오겠소. 무슨 수를 써서든시간에...》

하늘은 희벗해지고 채굴장의 거무튀튀한 쇠돌바위들이 침울한 얼굴을 드러냈다.

라문진은 성수가 난듯이 들썩거리며 걸어갔다. 그의 커다란 머리가 우습강스럽게 흔들거렸다.

채굴계단의 저쪽 굽인돌이로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박수남은 굳어져있었다.

4

이 나날에 비상한 각오를 가진건 초소원들뿐이 아니였다.

박수남의 안해 역시 식량난을 겪으면서도 그전처럼 남편의 뒤바라지를 하는데 이를 악물고 달라붙었다.

《굴착기를 다시 살려내기로 했는지요?》

어느날 마을길에서 정희 어머니를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다. 그의 쌍꺼진 눈에서는 웃음이 남실거렸다.

《정희 아버지가 발기했소.》

《8호굴착기가 위축당하지 않았다는게 얼마나 기쁜지... 저희들도 보고만 있지 않겠어요.》

그는 결코 빈말을 하지 않았다.

남들은 주변에 있는 농장들을 찾아다니며 량곡을 바꾸어오곤 하는데 그의 안해만은 어디서 젓짜는 염소 두마리를 구해가지고는 산과 들을 끌고 다니며 풀을 뜯게 하는것이였다. 우유를 짜서 모자라는 식량도 보태고 남편의 영양도 보충하겠다는것이였다.

그러다나니 풀단도 많이 이고 다녔고 험한 산길도 많이 걸어야 했다. 그 과정에 한적한 산기슭에 맥없이 쓰러졌다가 간신히 일어난 일인들 왜 없었겠는가.

해발간 살결은 거칠어지고 두볼은 할썩해지고 허리는 한손아귀에 거머쥔 정도로 가늘어졌다.

하지만 웃음을 위해 만들어진것 같은 눈만은 여전히 생글거리고있다.

천성이 빗어낸듯 한 그런 웃음으로 차마 말할수 없는 자신의 온갖 고생을 소리없이 새기는것이였다.

그는 이따금씩 밥팍을 싸들고 굴착기를 뜨지 않고있는 남편을 찾아오곤 했다.

밥팍에는 물론 이전처럼 까나리볶음과 고추장이 보이지 않았다. 또 이전처럼 쌀밥이 아니라 남새투성이 잡곡밥이였다.

《미안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까나리볶음과 고추장만은 떨구지 말자구 했는데 어쩔수 없구만요. 아마 저의 성의가 모자라는가봐요.》

어느날 굴착기현장을 찾아왔을 때 그의 안해는 남편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가느다란 한숨을 내그었다.

할썩해진 얼굴에 쓸쓸한 그늘이 드러났다.

《별걱정을 다 하누만. 난 이런 정도라도 만족하오. 당신이 하도 이악한 덕에...》

박수남의 말투에는 안해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는듯 한 색채가 비껴있었다.

안해는 남편의 말이 고마와 두눈이 축축히 젖어들며 부드러운것다.

《그간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거의나 없어졌어요. 염소를 구하느라고... 이제 텔레비존만이 덩그렇게 남았는데 제 그것만은...》

머리를 약간 숙인탓에 안해의 입가에 그늘이 졌다. 알팍한 입술이 알뜰듯말듯 어렴풋이 실룩거렸다.

박수남이 그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허허 ... 그게 무슨 걱정거리라구... 가산이 다 날아난대도 괜찮소. 굴착기를 살릴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중한것두 바칠라니... 장군님만 계시면 우

린 잘살수 있소.》

박수남은 통구공처럼 크고 둥글둥글한 호남아형의 얼굴을 건듯 쳐들며 손을 내흔들었다.

그 얼굴에는 자신만만하고 확신적인 표정이 어리었다.

《그래 정희와 남철인 어떻게 지내오?》

《애들과 집걱정은 말라요. 당신은 그저 굴착기를 살리는 일에만 마음을 써주세요.》

안해는 남편의 둥글둥글한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며 생긋 웃었다. 그 안해의 말이 내 가슴을 뜨겁게 지지였다.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굴착기에만 전념해달라는 안해의 당부는 여전하지 않는가.

《아무쪼록 몸을 주의하오. 약한 몸에 무리하지 말구...》

박수남은 눈을 습벅거렸다.

안해는 말없이 머리를 끄덕거렸다.

두사람은 절절하고 간절한 그 무엇을 약속하고다 짐하듯이 신중히 마주보다가 헤어졌다.

박수남은 전보다 더 병약해진 안해가 마음놓이지 않는듯 그가 사라진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가나리볶음과 고추장을 원래부터 좋아했소? 그것때문에 안해가 몹시도 원심을 쓰는구만.》

《난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소. 그래서 안해는 결혼해서 여태껏 그걸 단 한번도 떨군적이 없었는데 오늘에 와서... 안해도 안타까운지... 너자들이란 참...》

나는 남편에게 바쳐진 안해의 가룩한 심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단비를 머금은 흑토처럼 가슴이 차분히 젖어들었다.

5

며칠후에 내가 퇴근하여 집안에 들어섰을 때였다.

안해는 저녁을 지을 생각도 없이 방 한복판에 물자루처럼 척 늘어져있었다.

어찌된 일인가고 물었더니 오늘은 왕복 80리나 걸었다는 것이었다.

《정희 어머니가 글썽 초소원가족들이 힘을 합쳐 염소를 기르자는게 아니겠어요. 자기네 염소 두마리까지 다 내놓겠다구 하면서... 말하자면 가내축산반 같은걸 못자는거지요. 이걸 분초급당비서동지의 의견이라는거예요. 비서동진 며칠전에 정희 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말했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풀먹는 짐승들을 많이 기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는데 정희 어머니가 한번 해보지 않겠소. 혼자서만 염소를 기르지 말고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기른다면 참 멋들어질거요. 8호굴착기 초소원들이 지금 수고를 많이 하오. 만일 가족들이 우유를 한동이씩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타나보오. 얼마나 좋아들 하겠는가...>

비서동지의 이러한 말을 듣고 정희 어머니는 가내축산반을 무어보겠다구 대답해나셨대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희 어머니의 생각이 옳았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보태서 겨우 젓짜는 염소 한마리를 구해왔어요. 80리나 걸어서... 얼마나 맥을 뺐는지 알아요?》

《도제 80리를 걸은걸 가지구?》

《걸기만 했다면야 맥을 뺐것도 없었지요. 염소란 놈이 따라오지 않겠다구 어찌나 골질을 하며 애를 멕이던지... 어떤 때는 길바닥에 댕 버티고 서서 매매 울기만 하겠지요. 갈길은 먼데 해는 저가지... 안타까와 회초리로 때려도 소용없었어요. 우린 더는 못끌구 가겠다구 길복판에 주저앉았어요. 염소가 패썹해서 눈을 흘기며 욕지거리를 퍼부었어요. <너정 이러기냐?> 그런데 정희 어머니가 <염소야, 날 따라와.> 하고는 <방목공의 노래>를 부르며 앞장에 나서더군요. 그러자 버둥질하던 염소가 뒤를 졸졸 따라가질 않겠어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난 너무도 좋아 춤을 추고 아낙네들은 깔깔거리며 따라서고... 호호호...》

나는 안해의 다사스러운이 이 순간처럼 좋게 생각되어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안해의 그 다사스러운 입이 염소와 녀인들을 이끌고 온 정희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도 방불히 떠올렸기때문이었다.

록음질은 한적한 산협길로 키가 자그마한 녀인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간다. 노래장단에 맞추어 탈삭탈삭 발굽을 재게 찍으며 따라서는 염소, 사방에 메아리쳐가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이 얼마나 즐겁고 락관적인 화폭인가.

《정희 어머니가 아니였다라면 우리는 오늘밤 월경 로상에서 헤맸을거예요. 이악쟁이같은 정희 어머니 이제 염소 세마리만 구하면 가족들도 살리고 세대주들도 도울수 있다구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수로 세마리나 구하겠는지...》

《정희 어머니 혼자서 두마리나 구했는데 여럿이서 세마리를 구하지 못하겠소? 곁에서 구경만하지 말구 본받아 나서야지...》

나는 이렇게 력설했건만 우리 처는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 자기것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가내축산반은 결국 젓짜는 염소 세마리를 가지고 첫 자옥을 뒀다.

박수남의 안해가 이악하게 방목을 한 덕에 가내 축산반은 매일과 같이 우유를 때 많이 받아냈다.

이렇게 되자 박수남의 안해를 비롯한 초소원가족들은 우유를 넣어 만든 강낭빵과 강낭국수를 해가지고 굴착기현장을 찾아왔다. 남편들을 고무하기 위해 우리의 녀성부대들이 또 한번 지원의 원정을 개시한것이였다.

그들속엔 잔등이 늘씬한 누렁이도 끼여있었다.

그런데 누렁이는 이전처럼 기쁨에 겨워 이리저리 뛰여다닐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박수남이를 보자 두어번 팡팡 매달렸다가는 앞발을 뚝 짚고 앉은채 주인을 멀거니 바라보는것이였다.

주인에게 무언가 하소연하려는듯 한 구슬픈 표정이였다.

《누렁이가 왜 저렇가?》

눈여겨보니 누렁이의 배가 훌쩍해진것이 알렸다.

박수남은 개의 목덜미와 머리를 한참동안이나 쓸어주었다.

누렁이는 깡깡거리며 그의 앞에 척 드러누워 탐스러운 꼬리로 땅바닥을 두어번 툭툭 두드리다가 잠잠해졌다.

식량난을 겪고있던 때라 우리에게는 강낭빵과 강낭국수가 세상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반가운 것이였다.

초소원들은 가내축산반이 은을 내기 시작했다고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댔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남은 가족들앞에서 사의를 표하느라 어쩔줄 몰랐다.

《굴착기를 살리겠다고 수고하는 남정들에게 우리 아낙네들이 마련한거야요. 이걸 마련하느라고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지들 말구요.》

나의 처가 조그마한 주먹을 내흔들며 청높은 목소리로 성급히 말했다.

사방에서 흐아흐아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도 그만 허거프게 웃고 말았다. 처의 말은 결국 자기들의 수고를 인정해달라는 간접적인 요구를 담

은 말이기때문이었다.

집안살림이 긴장해지자 노상 바가지를 긁어대곤 했는데 요즘에 와서 사람이 저렇게 시원스러워진것이였다. 아마도 정희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여보, 고맙소. 《고난의 행군》을 하지만 당신은 전보다 더욱 마음들어보이는구만. 좋은 시절이 오면 내 꼭 당신을 꽃방석에 앉혀놓겠소. 그때엔 날 노복처럼 부려먹어도 좋소.)

만일 그때 입이 다사스러운 안해가 제밑에서 설설기는 남편을 보고 어쩔것인가? 호통질을 할것인가? 입을 싸쥐고 웃을것인가? 아니, 꼴보기 사납다고 탁 차버릴지도 몰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저도 모르게 씩 웃고 말았다.

우리는 저마다 웃고 떠들며 량껏 먹어대기 시작했다.

배가 훌쩍해진 누렁이도 어서 먹으라고 저마다 빵조각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런데 누렁이는 자기 주위에 떨어지는 빵조각을 먹을념을 하지 않고 아까보다 더 구슬프게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어서 먹어, 누렁이.》

박수남이 이렇게 말해서야 누렁이는 자기주위에 떨어져있는 빵조각들을 정신없이 먹어대기 시작했다.

주인이 먹으라는 말을 하기전에는 그 어떤 음식에도 입을 대지 않는 령리한 개였다.

기분들이 어지간히 들뜬게 되자 우리는 또 역시 초소장의 안해에게 노래를 요청했다.

《이런 날에야 웅당 정희 어머니 노래를 들어봐야지. 염소를 방목하느라구 누구보다도 수고가 많은데...》

《거 늘 부르던 <지정곡> 이 있잖소.》

《어서 한국조 뽕소.》

그런데 이때 우리 처가 내곁에 다가서더니 노래를 시키지 말라고 귀땀하는것이였다.

《힘들어하는게 보이지 않아요?》

《힘들어 한다구?...》

처는 의아해하는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귀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정희 어머니가 어제 어뻤는줄 알아요? ... 저와 함께 염소를 방목하다가 글썽... 산기슭에 졸도해넘어졌단 말예요.》

《뭐요?》

《어쩐지 맥을 쓰지 못하구 노상 혈떡거리구… 그러면서도 염소를 방목하겠다고 늘 노래를 부르며 앞장에 나서지… 정말 눈뜨고선 차마…》

안해는 말끝을 흐리었다.

그제야 나는 그 정다운 녀성의 여느때없이 파리해진 얼굴색을 알아보았다. 반듯한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내뿜힌것까지도 눈에 띄었다.

그러자 나는 앉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팔을 휘휘 내저으며 서둘러 말했다.

《아, 아, 좋은 말도 세번 들으면 잔소리가 된다는데… 오늘은 노래를 그만두게 하자구. 아무리 좋은 노래도 드문드문 들어야지… 정희 어머니, 안그렇소?》

《그래요. 제 노래값을 높이자는건 아니예요. 아꼈다가 굴착기가 돌아가는 날에 실컷 부르겠어요. 그때엔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순간 나는 그의 얼굴이 아까보다 더 파리해졌음을 보았다.

초소원들은 서운해하면서도 어찌지 못했다.

《안해가 왜 몸이 그렇게 약해졌소? 대체 어찌된 일이요?》

가족들이 떠나가자 나는 굴착기결에 서있는 박수남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내가 안변에서 복무할 때였소.》

박수남은 이렇게 말꼭지를 뗐다. 옛 사연을 전하는 그의 목소리는 퍼그나 서글프게 들렸다.

《그때 난 갱작업을 하다가 심한 부상을 당한적이 있었됐소.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 소생할 가망이 없었는데 담당한호원이었던 그가 제 피를 뽑으라고 팔을 걷고 나서더군요. 그때엔 참 애되고 건강미가 넘치던 처녀였었는데…》

박수남은 모지름소리와 같은 길다란 한숨을 내쉬었다.

눈확이 움푹 꺼지고 살이 빠져 관골이 두드러져 보이는 그의 둥글둥글한 얼굴은 어제날의 안해를 그려보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감동적인 추억이었지만 오늘에 와선 아픔을 자아내는 추억으로 되었다고 그의 얼굴은 말하고있었다.

나는 그러한 사연을 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충격이 그렇게도 컸는지 모른다.

나는 어찌다가 그런 부상을 당하게 됐는가고 물었지만 박수남은 우연히 일어난 락반사고로 그렇게

됐다고 말했을뿐이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대답을 듣는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 자신의 위훈에 대해서는 입을 봉하고있는 사람이기때문이었다.

다음날 나는 그의 안해를 찾아갔다. 나로서는 더 깊은 내막을 알고싶은 심정을 참시도 미룰수가 없었다.

내가 그의 집마당에 들어서니 초소장의 안해는 맹물과 같은 죽을 먹고있는 누렁이를 쓰다듬으며 서글피 한숨짓고있다가 나를 보자 혼연히 표정을 바꾸는것이 었다.

나는 이런저런 말끝에 피를 준 사연에 대해서 물었다.

그의 안해는 부끄러운듯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나는 그 얼굴에서 놀라운것을 발견했다.

그의 쌍겹진 눈은 여전히 생글거리고있었으나 얼굴은 여느때보다 더 파리해졌다. 얼굴이 핼썽해진 탓인지 이전의 생동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도 연하고 뿌잇한 막같은것이 얼굴전체를 먼사포처럼 가리우고있는것만 같았다.

그것은 분명 건강의 파괴를 의미하는 흔적이였다.

나는 불안한 예감을 피할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구 그래요. 그때 정희 아버지는 굴천정에서 망썩같은 바위돌이 떨어지게 되자 그밑에 있던 대원들을 밀어제끼고 제가 대신 부상당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쓰러져있던 그의 앞에 앉아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지며 머리가 숙어지더군요. 희생을 도맡아안은 그 사람의 심장이 얼마나 커보이던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제 피같은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때부터 전 그의 곁을 지키면서 그를 돌봐주리라 마음먹었었어요. 저는 늘 그의 몸이 약해지면 어찌나 하는 근심과 걱정뿐이었어요. 아마 끝까지 정을 바치며 산대도 어쩐지 그런 근심만은…》

그의 말은 나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랬됐구나, 그랬됐구나!)

속에서는 연방 뜨거운 웨침이 끓어올랐다.

연약한 몸에도 남편을 위해 자기를 그렇게도 성실히 바쳐가고있는 그의 심정이란 얼마나 가룩한것인가.

문득 한쪽의 그림같은 정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록음질은 한척한 산협길로 키가 자그마한 녀인이 노래를 부르며 걸어간다. 노래장단에 맞추어 탈썩

탈삭 밭급을 재게 찍으며 따라서는 염소, 사방에 메아리쳐가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어렵고 힘겨워도 남들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며 살고있는 녀인이다.

나는 박수남의 안해앞에 진정으로 머리가 숙어졌다.

《자기 몸도 좀 돌보오. 건강이 말이 아닌것 같소.》

《팬찮아요.》

그는 쌍겹진 눈에 애써 웃음을 담았다.

그 순간에 또다시 이전보다 더 파리해지고 생동성을 잃은 그 뿌잇한 얼굴이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아, 그 목소리, 그 모습이 내가 그에게서 마지막으로 듣고 마지막으로 보게 된것으로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6

며칠후 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밖에서는 굵은 비가 내리고있는데 어디에 나갔던 나의 처가 집안에 불쑥 들어서며 초소장네 집으로 빨리 가보자는것이 었다.

《초소장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긴것 같아요》

그는 몹시 험뎌하며 말했다.

나는 가슴이 덜컹해졌다. 그의 안해를 볼 때마다 느껴지던 불안한 예감이 끝내 현실로 된것만 같았다.

나는 비옷도 걸치지 않은채 처를 따라 그의 집으로 뛰어갔다.

쭈룩쭈룩 내리는 차거운 비물이 얼굴에 휘뿌러지며 목으로 스며들어왔다.

그의 집 마당에 들어서니 허전하고 썰렁한 기운이 확 풍겼다.

나를 보기만 하면 가슴에 팡팡 매달리며 반가와 어쩔줄 모르던 누렁이가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누렁이가 왜 보이지 않소?》

나는 집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소리쳤다.

정희와 남철인 방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쿵쾅쿵쾅 울고있었고 박수남은 초조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고 재차 물었다.

《정희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염소 세마리를 더 얻겠다고 고심해오지 않았나요.》

나의 처가 대신 말을 뱉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속을 더욱 썩였대요. 식량

사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염소는 부족하지... 이래저래 속을 태우고있는데 정희 아버지가 글썽 농장에 가서 염소를 더 구해올수 없겠는가고 말했다는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해는 눈물을 흘렸는지 않아요.

집안에 남은것이란 텔레비존과 누렁이뿐인데...

정희 어머니는 이를동안이나 속을 앓다가 오늘 새벽에야 큰 마음을 먹고 텔레비존을 이고 누렁이를 끌고 길을 떠났다는데 아직도...

《어느 농장에 갔소?》

《박천농장이래요. 30리라해두 돌아오구두 남았겠는데... 갈 때에도 힘들어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럼 빨리 찾아봐야지. 이려고 앓아선 뭘 하오?》

우리는 급히 집을 나섰다.

나는 처를 박수남의 애들을 보라고 그의 집에 남겨두었다.

밤은 먹물같이 캄캄하고 비는 여전히 쭈룩쭈룩 내리는데 우리는 박천농장으로 가는 큰길을 따라 걸었다.

도중에서 그의 안해를 만날줄 알았는데 농장에 이를 때까지도 그의 종적을 찾지 못했다.

농장에서는 물참봉이 되어 나타난 우리를 보고 펄쩍 놀랐다.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 무슨 소릴 하는지 모르겠구만.》

젊고 쾌기있게 생긴 농장작업반장은 머리를 기웃거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해주었다.

《그 아주머닌 아침 7시경에 여기에 나타났댔소. 텔레비존과 누렁이를 줄테니 젓짜는 염소 두마리만 달라고 하더구만. 굴착기운전공들을 도와주는셈치고... 자세히 보니 텔레비존도 그리 낯지않았고 누렁이도 역시 잔등이 늘씬하고 꼬리가 탐스럽고 길쭉한걸 보니 어찌나 욕심나던지... 솔직히 말해 난 이 주변에선 그런 명물을 본적이 없소. 농장경비용 개로 쓴다면 아주 적합할거라고 생각했댔소. 우린 앉은 자리에서 복을 만난셈이었지요. 그래서 우린 젓짜는 우량종염소 세마리와 얼마간의 량곡까지 주었소. 아주머닌 고맙노라구 몇번이고 사례하더구만. 그리고는 누렁이 잘있거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놈의 머리를 쓰다듬고나서 고삐를 나한테 넘겨주고 돌아서려는데 글썽 누렁이란놈이 킁깁거리며 울질 않았소. 아주머닌 몇걸음때다가 돌아섰소. 누렁이는 팔질을 하며 킁깁거렸소. 목놓아우는것만 같았

소. 그래도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갈 기색을 보이지 않자 나중엔 자기를 길러준 주인을 향해 왕왕 젖어 대더구만. 어쩌면 자기를 버릴수 있는가고 막 실문을 토하더라 말이요. 아주머닌 눈물이 글썽해져 한참동안이나 누령이를 바라보다가 랑곡을 그득 채운 배낭을 한번 추스르고나서 다시 걸음을 땀소. 누령이는 전보다 더 왕왕 젖어대며 발광했소. 아주머닌 가다가는 돌아서고 가다가는 돌아서고… 누령이는 앞발로 땅을 허비며 통곡치고… 아, 참… 나도 그만 목이 메고 말았소. 그때가 바로 오전 10시경이었소. 아주머니가 떠나서 두시간이 지났는데 글썽 그냥 킁킁거리던 누령이가 없어지질 않았겠소. 우린 찾을 궁리를 하지 않았소. 난 그 아주머니를 잘 아요. 누령이를 끌고 다시 나타날줄 알았는데 이런 소식을 들을줄이야…》

작업반장은 말끝을 흐리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저마다 그러한 불안을 느끼고있었으나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우리는 더는 지체할수가 없었다.

농장원들까지 펼쳐나 산판을 뒤지며 그의 안해를 찾기 시작했다.

줄줄 내리는 비는 밤이 깊어가도 그칠줄 몰랐다.

《여보- 여보-》

울음섞인 박수남의 처절한 목소리.

《정희 어머니- 정희 어머니-》

찾고 부르는 소리는 애타게 울려퍼졌으나 공허한 메아리만 되돌아왔다.

우리는 산기슭에 미끄러지기도 했고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기도 했고 나무그루터기에 걸려 어푸러지기도 했다.

날이 흰히 밝아오자 비가 멎었다.

어디선가 개가 짖어대는 소리가 아슴프레 들려왔다.

처음에는 웅웅 하다가 나중엔 우우웅 우우웅하는 서글픈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아마도 누령이가 우리의 부름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모양이었다.

우리는 누령이가 짖어대는 곳으로 찾아갔다.

땃길이나 되는 어느 한 벼랑밑에 그의 안해가 엎소고삐를 꼭 틀어쥔채 반듯이 누워있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의 안해가 지고 오던 배낭이 뿌리워져있었다. 더진 아구리에선 통강냉이가 쏟아져나왔다. 그의 안해가 입고있는 바지 한쪽가랭이가 찢어져 퍼런 속내의가 드러나보였다.

그의 곁에선 누령이가 입으로 정희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채며 킁킁거리고있었다. 어서 일어나라고 안타깝게 보채건만 그는 죽은듯이 까딱하지않았다.

고삐에 매운 염소들은 그의 머리맡에서 한가롭게 나무잎을 뜯고있었다.

누령이는 급히 다가서는 박수남이를 보자 팡 매달리며 가슴에 머리를 틀어박고 킁킁거리는데 엄마를 잃은 애들처럼 슬피 우는것만 같았다.

《여보!》

박수남이 목을 터치며 부르짖었다.

그의 안해는 우악스러운 사내가 자기 몸을 마구 흔들며대며 태질하는데도 기척이 없었다.

피곤에 몰려 고요히 잠자고있는듯 했다.

비에 젖은 머리칼 한모습이 반듯한 이마에 차분히 덮이었고 한쪽 볼과 턱밑엔 나무가지에 긁히운 흔적이 네군데나 벌겍게 드러나있었다.

분명 박수남의 안해가 겪었을 간난신고를 의미하는 그 흔적들이 내 가슴을 마구 파헤치였다.

나는 별안간 꼭 틀어쥔 주먹으로 쭈그리고 앉은 박수남의 등을 팡 내리치며 한껏 소리쳤다.

《에-익, 목석같은 사람, 연약한 안해를 이렇게 혹사시키다니… 일생동안!…》

그것은 정말 무자비하고도 가혹한 말이였다.

그 무서운 말은 힘껏 내려치는 쇠메나 망치처럼 박수남을 후려쳤다.

박수남은 곁에 있는 가느다란 나무줄기를 꼭 틀어잡았다. 나무가지들에서 비방울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졌다.

우리는 의식을 잃은 그의 안해를 들것에 얹혀 그의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기막힌 슬픔에 억이 막혀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도 모르며 걸었다.

그날 밤에 그의 안해는 풀어진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간신히 마지막유언을 했다.

일생동안 사귀어오던 사람을 영원히 기억해두려는듯 안해는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여보, 여보!》

박수남은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안해는 다시 눈을 떴다.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남편의 손을 살그머니 쥐고 놓지 않았다.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정을 주는것이였다.

《굴착기를 꼭… 살려… 주… 세… 요…》

안해는 알팍한 입술을 바들바들 떨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노을이 스러지듯 그의 얼굴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기가 서서히 가시여졌다.

오래동안 남편의 보이지 않는 받침돌로 살아오던 그는 이렇게 서른세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을 마쳤다.

고인의 머리맡에는 랑곡이 짝 차있는 배낭이 아구리가 벌려진채로 놓여있었다.

마당에서는 그가 간난신고를 다하며 끌어온 세마리 염소가 매매 애처롭게 울고있었다.

조상을 오는 초소원들마다 고인의 머리맡에 놓인 배낭을 부둥켜안고 몸부림쳤고 염소들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들을 두드렸다.

《정희 아버지, 어쩔 이럴수 있나요?》

나의 처가 시신앞에 낫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는 박수남이를 향해 설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여러 처를 사랑했다는게 다 거짓이었어요. 빈 껍데기뿐이었던 말예요. 텔레비존을 들어내게 해선... 뭣을 했는지. 왜 처의 몸을 돌볼 생각을 못했는가 말예요. 진작부터 손을 썼더라면 사람이야 죽이지 않을수 있었잖나요. 무정했어요. 너무, 너무 무정했어요.》

나의 처는 손으로 방바닥을 쳤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우리는 정희 어머니 무덤앞에 묘비를 세우고 파란 잔디를 입혔다.

말없는 대지는 소문없이 살아온 한 너인의 넋을 조용히 품어주었다.

우리는 오래도록 무덤가에 서있었다.

갓 입힌 잔디물이 고인의 넋을 속삭여주는듯 소리없이 한들거리고있었다.

박수남은 안해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듯 묘비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흠처럼 컴컴해졌다. 기막힌 슬픔에 질식된듯 눈물 한점 보이지 않았다. 안해를 그렇게도 끔찍이 생각하던 사람이었던만 이 순간엔 너무도 과묵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의 곁엔 누렁이가 앞발을 댕 짚고 앉아서는 묵묵히 생각에 잠겨있는듯 했다. 어쩌면 오늘의 슬픔을 그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수하고있는것만 같았다.

《오늘 밤엔 애들과 함께 지내라구.》

나는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목소리를 떨었다.

눈앞이 흐려져 그를 마주 볼수가 없었다.

박수남은 허리를 굽히고 누렁이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었다.

《누렁이... 인젠 가거라. 농장을 찾아...》

누렁이는 못내 슬픈듯 눈을 습벅거렸다.

《누렁이를 기어이 돌려줄 생각인가? 놔두오. 내가 농장작업반장을 만나 따로 계산하겠소.》

박수남은 서글피 한숨 짓고나서 채굴장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나는 그만 억이 막혀 한마디의 말도 나가지 않았다.

집에는 애들만이 남았는데 어쩌면 저럴수 있을까? 한방울의 눈물도 없이...

하는수없이 내가 박수남이네 집으로 갔다.

주부가 없는 집안은 너무도 쓸쓸했다.

나는 행뎡그레해진 집안의 형편에 새삼스레 놀랐다.

집안에 남아있는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과연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것없이 멀끔해진 집안이였다.

이때 웬 부인과 처녀 둘이 집안에 들어섰다.

알고보니 부인은 비서동지의 아주머니였고 처녀들은 그의 딸들이였다.

부인은 텔레비존수상기를 이고 왔고 딸들은 큼직한 쌀자루를 하나씩 이고 나타났었다.

나는 묻지 않아도 사태를 명백히 짐작할수 있었다.

텔레비존수상기는 분명 비서동지가 애들밖에 남지 않은 박수남이네 집형편을 걱정해서 자기네것을 보내준것이였다.

부인의 말에 의하면 쌀은 광산후방부에서 보내준 것이라고 했다. 광산당위원회가 생활이 곤란한 세대들에 얼마간의 량식을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는것이였다.

나는 불시에 목이 콕 메여올랐다.

언제나 때없이 보살펴주는 이러한 품이 있기에 사람들은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꾹웃이 버티며 견어가고있지 않는가.

나는 집을 나와 채굴장으로 올라갔다. 박수남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싶었던것이다.

박수남은 굴착기운전칸에 우두커니 서서 안해가 깔아준 꽃방석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불현듯 굴착기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던 그의 안해가 생각났다.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도 기쁘게 해주던 그 꽃

같은 모습을 이제 정녕 다시는 볼수 없단 말인가.

나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박수남이 새삼스레 측은하게 여겨졌다.

그를 받쳐주던 받침돌이 없어졌다. 즐거움도 노래도 정다운 사랑도 영영 가버렸다. 그가 아무리 억센 바위라 해도 어찌 지탱해낼수 있겠는가.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저 우쪽편에 웬 사람이 못박힌듯이 서서 박수남이를 바라보고있음을 알았다.

약간 휘어진듯한 한 커다란 키, 코날이 두드러진 예리한 얼굴, 나는 첫눈에 비서임을 알아보았다.

단호하고 날카로운 그였지만 이 순간엔 그 예리한 얼굴에 컴컴한 그늘을 드리우고 조각처럼 서있다. 어깨가 무겁게 처지고 머리칼이 흩날리며 간간이 번듯한 이마를 덮기도 한다. 그는 마치도 슬픔과 고통에 영영 굳어져버린것만 같았다.

나는 비서에게로 감히 다가설수가 없었다.

박수남은 입술을 짓씹으며 운전대에서 물러섰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에 굴착기안에서 공구함을 여닫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망치질소리가 쨍쨍 울리었다.

박수남이 일에 달라붙은 모양이었다.

눈물과 슬픔의 언덕을 넘자면 그 길밖에 없었다.

평- 평- 평-

참기 어려운 슬픔을 박차고 다시 일어섰음을 보여주는 망치질소리였다. 아니, 초인간적인 의지력을 누리에 떨치는 망치질소리였다.

나는 문득 스무날째 돌아오지 않고있는 라문진을 생각했다. 여기서는 피눈물을 쏟으면서도 굴착기를 살려내고있는데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있는 것일까?

7

박수남의 안해를 잃은 슬픔을 가시지 못한채 보름이 흘렀다.

초소원가족들이 우유통을 이고 굴착기현장에 나타났다.

굴착기그늘밑에 사람들이 빙 둘러앉자 우리 처가 청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간 우리 가족들은 정희 어머니의 가룩한 심정을 본받아 저마다 한푼두푼씩 모아 염소 네마리나 더 구했어요. 우리 가내축산반의 염소는 결국 열마리나 됐어요. 인젠 우유를 매일 현장에 날라다줄수 있으니 걱정말고 굴착기만 살려달라구요.》 하고는 우유통에서 우유를 퍼내어 매 사람들에게 한고뿌

씩 안겨주었으나 누구도 선뜻 마시지 못하고있었다. 곁을 떠나간 초소장의 안해가 생각났기때문이었다.

박수남은 굴착기몸체를 짚고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정희 아버지도 한고뿌 드세요.》

나의 처가 곁으로 다가서며 우유통을 내밀었다.

뿌연 우유가 찰랑거리는 고뿌를 받아진 박수남의 손은 떨리고 그것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은 흐릿해졌다.

우유를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값높은 희생이 서있었는가.

록음질은 한적한 산협길로 키가 자그마한 녀인이 시를 읊으며 걸어간다. 노래장단에 맞추어 탈썩탈썩 발굽을 재게 짚으며 따라서는 염소, 사방에 메아리치는 녀인들의 웃음소리,

이 즐겁고 락관적인 화폭이 과연 무엇을 위한것이였는가.

《자, 어서들 마시라요. 초소원들이 마시기를 바래서 온건데… 흑…》

나의 처가 끝내 흐느낌을 터뜨리었다.

우리는 우유가 아니라 피눈물을 삼켰다. 이때 저 아래쪽 채굴계단에서부터 누군가 팔을 내흔들며 이쪽으로 혈떡거리며 뛰어오고있었다.

가까이에 온걸 보니 라문진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입술은 조갈이 일고 짹짹 갈라터졌다.

그는 훌쩍해진 배낭을 지고 꺾진 운동화를 걸치고있었다.

《라문진이, 네가 왔구나. 기어이!…》

우리는 그를 얼싸안기도 했고 그의 손을 잡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라문진은 사람들의 환대에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박수남에게로 비칠비칠 다가서더니 그의 손을 덥석 잡고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입술만 떨고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콧물 쏟아졌다.

어디선가 박수남의 안해가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온 모양이었다.

우리는 저마다 눈굽을 적시고있는데 초소장만은 덤덤히 서있었다.

어쩌면 저렇게도 뻥뻥한 사람이 되었던 말인가?

라문진은 한참만에야 껍껍거리며 속삭이듯 나직이 말했다.

《내가 떠나가던 날 정희 어머니는 도중식사를 해 가지고 역까지 따라나와 날 배려주었소. 그리고 첫 날옷까지 내놓으면서 부속품을 얻는데 보태쓰라구 하질 않겠소. 로상에서 굶지 말라구 얼마간의 돈도 안겨주더라 말이요. 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소. 죽어도 정희 어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내 그만 한발 늦어지게 될줄이야 어찌 알았겠소.》

라문진은 목소리를 꼭 삼키더니 지고 온 배낭을 벗어놓고 후들후들 떠는 손으로 아구리를 헤쳤다.

그속엔 여러가지 규격의 베어링들과 굴착기전기 부속품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사실 처음엔 처가에 눌러앉아 식량이나 얻어보려고 생각했었소. 하지만 정희 어머니의 그 심정이 하도 고마와 제 살도리만 하고있을수가 없었소. 그래서 첫날옷과 함께 내가 얼마간 얻은 식량까지 부속품을 구하는데 다 쓰고 말았소.》

나는 훌쩍하게 여위고 두눈만 쾅해진 라문진의 얼굴을 마주보다가 별안간 그의 팔을 꽉 틀어쥐고 목을 뒤틀었다.

《날 용서하오. 난 그런것도 모르고...》

《난 정희 어머니가 아니었더라면 돌아오지도 못했을거요.》

라문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더는 말을 못하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는 갑자기 달라지며 허리를 쭉 폈다. 그는 머리를 건듯 쳐들고 불끈 쥔 주먹을 박수남의 앞에 내흔들며 말했다.

《우리가 만일 굴착기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의 불길불길한 얼굴은 엄엄해졌다.

불일 뿜는것 같은 그의 비장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삽시에 격정의 소나기를 몰아왔다.

박수남은 묵묵히 새기고있던 슬픔을 터치는듯 코숨을 쉼 내뿜었다. 그리고는 굴착기를 향해 돌아섰다.

숨죽었던 굴착기가 되살아나고있었다.

그의 얼굴은 또다시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파복해졌다.

이 순간 내 눈앞에는 군사복무시절의 그가 상상되어 떠올랐다.

갱입구가 무너져내린 숨막히는 순간에도 착암작업을 계속한 그 견인불발의 정신을, 그 한가운데 박수남의 둥글둥글한 얼굴이 두드러져보인다. 어서 빨리 압축공기를 보내달라고 누구보다도 절절히 웨쳐대는 그 판가리결사전에서 쓰러진 그에게 피를 주고있는 애된 간호원.

눈앞에 나타난 환상은 순식간에 온통 붉은 바탕으로 변해버린다. 그 바탕속에서 소생한 박수남이 굴착기앞에 두다리를 뚝 버티고 서있다.

8

굴착기를 살리기 위한 초소원들의 일손은 더욱 빨라졌다.

고난이 가져다준 침체와 담보는 물러갔다.

드디어 숨죽였던 굴착기가 돌아가게 되는 뜻깊은 날이 왔다.

현장에는 한철웅비서를 비롯한 광구안의 일군들도 나와있었다.

대형자동차들이 뱅뱅 경쾌한 경력을 울리며 연방 굴착기현장에 들이닥쳤다.

박수남이 굴착기운전대에 올라갔다. 그는 가슴팍에서 언젠가 안해가 준 하얀 가락장갑을 끄집어내여 천천히 끼면서 잊지 못할 그 꽃방석을 내려다보았다.

꼬리가 좀 치째질사한 그의 눈에는 그윽한 애무가 어려여있었다. 이 며칠사이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의 둥글둥글한 얼굴이 이상한 빛을 띠었다. 심혼에 쌓이고쌓였던 온갖 감정들이 그 얼굴에 서서히 피어나는것만 같았다.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어슬렁거리던 누렁이가 또 역시 앞발을 뚝 짚고 그를 묵묵히 바라보고있었다.

요즘 박수남이와 누렁이는 더욱 친밀해졌다.

박수남이 꽃방석우에 천천히 들어앉더니 단호하게 조종간을 잡았다.

우리 굴착기초소원들은 굴착기주위에 빙 둘러서 있었다.

굴착기앞에 대형자동차뽕무니를 들이댄 얼굴이 길쭉한 운전사가 유리창밖으로 머리를 기웃이 내밀어 박수남이를 돌아다보았다.

폭풍전야의 정적파도 같은 교요가 깃들었다.

우리는 주먹을 꽉 쥐고 숨을 죽이였다.

비상한 순간을 예고하는듯 짝 다문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굴착기가 그르릉 용을 쓰며 커다란 바가지로 쇠돌을 한입 물고는 길다란 팔을 보기 좋게 휘둘러 대형자동차적재함우에 좌르르 쏟아냈다.

병긋병긋 벌려지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연방 탄성이 흘러나왔다.

나는 가슴이 북받쳐올랐다.

참을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겪으면서도 눈앞에
그리며 부르던 그 기꺼운 현실이 오지 않았는가.

이날을 축복하는듯 해빛이 찬란하게 비쳤다.

거뭇거뭇한 쇠돌바위들이 유난스레 번쩍거렸다.

묵묵히 앉아있던 누렁이가 별안간 앞발을 높이
쳐들고 뒤다리를 세차게 걷어차며 굴착기바가지를
향해 연방 광광 뛰어오르는것이였다.

그러자 쇠돌을 쏟아부은 굴착기바가지가 대형자
동차적재함을 꼭 짓누른채 움직일줄 몰랐다. 웬일
인가? 우리의 시선은 일제히 굴착기운전대에 쏠렸
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박수남이 조종간을 짝 틀어잡은채 머리를 떨구고
어깨를 와들와들 떨며 울고있었다.

《어-허-억... 어-허-억...》

마음놓고 내지르는 그의 호곡같은 울음소리가 우
리의 가슴을 북처럼 두드렸다.

참고참던 슬픔과 고통이 그만에야 폭포수가 되어
거침없이 쏟아져내리는것이였다. 아니, 짝 잠기였
던 슬픔의 물목이 터진것이였다.

안해의 죽음을 놓고 비로소 몸부림치는 그를 보
며 우리는 묵묵히 말이 없었다.

커다란 슬픔을 보면서도 뗏뗏하고 비장한 감정이
밀물처럼 가슴에 굽이쳤다.

박수남이와 그의 안해.

일부 사람들이 제 살궁냥만 하고있을 때 그들은
파연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화목하던 한가정의 마
지막피 한방울도 무엇을 위해 바쳐졌는가. 어찌하
여 자기것은 단 한조박도 남겨두지 않았단 말인가.

그것이 파연 무엇을 위한 헌신이였는지.

수만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이 머리를 옥옥 쳐들고

있건만 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없다는 말
밖에 할수가 없다.

이때 누군가 굴착기 뒤편에서 육중한 굴착기의
몸체를 주먹으로 텅텅 두드리며 무거운 숨을 뿜는
사람이 있었다. 한철웅비서였다. 그는 머리를 무겁
게 떨구었다가 다시 들며 박수남이를 바라보았다.

《박동무, 힘을 내오. 동무가 이러면 되겠소?》

나는 예리한 인상을 주는 그의 얼굴이 그렇게 처
참하게 이그러진것을 처음으로 보았다.

(박수남이, 울지 마오. 이날을 위해 동무들이 무
엇을 바쳤는가를 우린 잊지 않겠소. 아픔은 크지만
그 값으로 이제 광구안의 모든 굴착기들이 련이어
살아나게 될거요.)

비서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고있는듯 했다.

박수남은 비서를 얼핏 띠여보자 이를 악물고 다
시 굴착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쉬임없이 그르릉거리는 그 동음소리는 어쩐지 박
수남의 안해가 스스로 부르짖다던 그 잊지 못할 시
를 상기시켜준다.

그대는 알거예요

내 왜 그대를 웃으며 따르는지

그대는 알거예요

내 왜 그대를 웃으며 받드는지

나와 하나로 되어준 그대 모습

내 가슴 적셨어요

내 어찌 한번만 폼다 사라지겠나요

외로와도 슬퍼도 그대 심장결에

눈비뿌려도 그대 심장결에

언제나 웃으며 피어있을래요

대 홍 단 외 1 편

장선국

대 홍 단
철쭉꽃
들쭉꽃이 만발한
붉은 꽃의 바다 대홍단

너에게는
이 마음 휘저어놓는 녀이 있느냐
걸음걸음
무심히 걸을수 없구나

바람에 실려오는 산향기
항일전의 그날

예서 쓰러진 투사의 숨결인듯
피흘리면서도 원쑤에게 총탄을 날리던
투사의 붉은 피
대홍단벌에 스배여
새겨져있는듯

아 대홍단 대홍단
이 마음엔 꽃이 붉어 네가 붉지 않구나
너의 꽃은 선렬들의 혈조로 붉고
너의 땅은
흙이 아닌 선렬들의 뉘트로 붉어라

삼지연 새 마을

어디로 갔나
비오면 질적이던 그 마을길
어디로 갔나
붓나무타는 그을음 스배인
옛 마을의 그 흔적

동기와 엮었던 그 집들은 어디로 가고
김일성 화 김정일 화 꽃지붕 엮었네
자를 대고 그은듯이 곧바른 마을길에
붓나무거러 잣나무거러 새로 생겼네

물긴던 일없어졌네
지심깊이 배관들이 뽑아올린
삼지연 맑은 물
해종일 집집마다 노래하며 흘러든다네

리명수 푸른 물에 발전기돌려
전기로 밭짓고 전기난방 훈훈해
동화속의 그림같은 마을

굴뚝없는 문화주택

우리의 꿈을 담아 창문을 내고
우리의 희망실어 길을 내었네
백두산밀영고향집 띄창문여시고
김정숙어머님 그려보신 마을이라네

바위가 달렸으면 좋겠네
온 나라에 밀고 다니며
이 신비경마울 자랑하고싶네
날개가 달렸으면 좋겠네
온 세상이 다 보게 저 하늘에 띄워놓고
자랑하고싶네

아 내 나라의 사계절이 다 있고
백두산의 일만경치 다 옮겨온
하늘아래 첫 동네 삼지연마을
총대로 고난을 헤치는 선군시대에
보란듯이 일떠서는 내 조국의 새 모습이어

가 사

그이를 언제나 모시고싶네

김선지

천지개벽 넓은 벌에 모시고싶네
문화주택 새 마을에 모시고싶네
선군혁명령도로 새날을 이으시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싶네

영광의 명절에도 모시고싶네
평범한 날과 달도 기다려 사네
조국위해 바치시는 장군님께

인민의 진정을 바치고싶네

선군길에 꽃바다 펼치고싶네
기쁨의 노래만을 드리고싶네
강성대국 새날을 안아오시는
장군님 몸가까이 모시고싶네
아 그이를 언제나 모시고싶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말로 대답할것이 아니라 몸을 내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국과 인민앞에 서는 애국자의 자세이다.》

김정일

수기

조국의 아들로 산다는것은

비전향장기수 오형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에게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였다.

감격과 기쁨에 앞서 당과 수령, 조국앞에 전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자책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수 없는 우리들이었다.

영웅의 빛나는 금별메달을 소중히 안고 나는 생각하였다.

공화국영웅! 이는 조국에 필생의 충정을 다한 사람들, 조국의 사수와 그 진보에 생의 모든것을 바친 수령의 참된 전사, 열혈의 애국자들에게 안겨지는 신성한 칭호가 아닌가.

나는 이 나라의 공민으로서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해 얼마만 한 일을 하였는가.

우리 조국의 기발과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제도의 사상을 지켜 홀려보낸 30년 옥중생활의 시간이 오늘의 영광스런 자리에 나를 세울만 한 응분의 무게를 가지고있을가.

조국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사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머리에 내린 흰서리만큼 가슴속의 회한도 많은 70객의 로병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나마 수령의 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한 응당한 노력을 값높이 여겨 영광의 절정에 우리를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 우리 조국앞에 나는 어떤 감사를 드러야 하는가...

나는 이날 나자신을 돌이켜보았다. 황량한 들길에 뿌려진 하나의 풀씨마냥 보잘것없던 한 생명이 당과 수령, 조국이 안겨준 참삶의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사형수의 고뇌

적들에게 체포된 다음해에 적들이 벌려놓은 공판

정에 나섰다.

그때 재판장이란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훑어보고나서 이렇게 뇌까렸다.

《서른여덟이라... 인생이 안됐군. 하지만 사형을 언도한다!》

나는 쓰겁게 웃고말았다. 나는 그자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쫓기는 짐승처럼 당황망조한 기색을 력력히 읽을수 있었던것이다.

적들은 뺨소를 짓고 선 나를 의혹에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나의 웃음을 어찌 리해할수 있었으랴. 나는 공판정을 혼연히 나섰다.

가슴에 삼각형의 사형수표식을 단 내가 감방에 들어섰을 때 나와 함께 재판을 받은 잡범기결수들이 기이한 눈길을 보내며 수군거렸다. 그들중 한사람이 나에게 《죽는다는 말을 듣고 웃는 사람도 있는거군요... 헌데 선생은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내가 말없이 웃음을 띠자 그는 기웃거리면서 《그래도... 무슨 생각은 많으실테지요.》하고 중얼거렸다.

그 수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밤 기나긴 고뇌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림박한 죽음의 그림자가 육체적생명으로서의 인간에게 던지는 두려움이 고뇌의 원인이였는가.

아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있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적들과 맞섰기에 공판정에서 죽음의 선고를 이겨낼수 있었다.

《육체적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면 언행부터가 비굴해진다.》

이것은 적들과 마주 선 그날부터 옥중살이 전 기간을 통해 가슴속에 쇠못처럼 박아둔 신조였다.

나를 피롭힌 고뇌, 그것은 이제 서른여덟살이 된

내가 인생에 걸었던 수많은 희망과 소원을 남겨둔 채 원수들에게 생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통절한 분노의 감정이 었다.

불교신자들은 《공수래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라거나 《초로인생》 이란 말로 세상에 났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생의 공허함을 위안한다지만 어찌 혁명가의 한생이 이토록 아쉽게 끝나버릴수 있단 말이나.

그러자 문득 나의 눈앞에 지나간 인생의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나의 고향은 경기도의 평범한 농촌마을, 등뼈가 휘는 고된 소작살이로 목숨을 연명해가는 속에서 나의 어린 시절은 흘러갔다. 절량의 고통에 쫓긴 사람들이 봄부터 가을까지 마을근처의 산을 하얗게 뒤덮어 나물을 뜯고 락엽을 굽는 동네, 일년 사계절을 살기 위해 아득바득 뛰어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이 유년의 추억속에 새겨진 고향마을의 풍경이었다.

어찌나 가난한 마을이었는지,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는 녀인들은 남의 고무신을 빌려신고 가야 했고 그나마 신이 닳을가봐 마을근처에서나 신을 신고 인적이 드문 곳에선 벗어두고 다녔다.

내가 아홉살되던 해에 식솔들의 끼니를 잇느라 산판을 오르내리며 고생하던 어머니가 중풍을 만나셨다. 의사의 도움을 생각조차 할수 없으니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를 했고 아버지는 토방에 앉아 가슴이 타서 담배만 피웠다.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헤매던 어머니는 천명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중풍의 후파로 입이 삔뚫어졌다.

어머니의 이지러진 얼굴!

세상은 어린 나에게서 그토록 어질고 인자하시던 어머니의 사랑스런 모습을 뺏아갔다.

주체 34(1945)년 8월, 조국이 해방되었으나 우리 가족은 빛에 집을 빼앗기고 오막살이집에서 살면서 류랑걸식상태로 해방후 5년을 보냈다.

열여덟이 되도록 나와 나의 가족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적들에게 체포된 직후 처음 심문하던 수사관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왜 의용군에 가담했소? 당신은 이북사람이 아니라 이남사람이니 인민군이 아니라 <국군>이 되었어야지... 그게 인생의 준리가 아닐가요?》

나는 그자에게 말했다.

《이른바 <국군> 은 전쟁 첫날부터 동포들을 학

살한 민중의 적이였소. 북에서 온 인민군대는 압제로부터 인민을 해방했고 공화국정권은 인민에게 땅을 주었소. 이 정의로운 군대에 입대한것이야말로 인생의 정당한 순리로 되는거요...》

그렇다.

조선인민군에 의한 서울의 해방! 그것은 출생후 18년간을 조국이란 개념을 알지조차 못하고 삶의 암흑속에서 살아온 나에게 조국의 차다운 모습을 환희롭게 보여준 운명의 사변이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어 3일만에 서울을 내주고 패주하게 된 피뢰군은 패주의 분몰이로 우리 고장의 새원마을에서 남너로소전체를 학살하였다.

인민군대는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었다.

이렇듯 이 조국해방전쟁이 인간의 집단과 비인간 무리사이의 사상정신적대결전이라는 진실을 안 남 녀의 모든 청년남녀들이 조선인민군에 입대하였다. 나도 그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입대전까지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의 물골과 리승만피뢰군의 반인민적행위만을 보아오던 나에게 있어서 조선인민군은 진정한 인민의 군대였다. 무비의 용감성과 백절불굴의 전투정신, 자각성에 기초한 강철의 규률, 관병일치의 뜨거운 동지애, 군대와 인민사이에 맺어진 군민일치의 정.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주저없이 바치는 절대적인 충성을 지닌 순결한 군인들- 이것이 인민군대의 모습이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께서 병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친아버이사랑은 남조선에서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만을 받으며 자라온 나의 가슴에 너무도 뜨거운 감동으로 안겨지군 하였다.

내가 전선동부에서 싸우던 어느해 가을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우리 부대의 지휘관을 장거리전화로 찾으시여 병사들의 생활형편을 알아보시고 선기가 나는데 병사들에게 더운밥과 따끈한 국을 먹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인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여 올린 쿡을 우리 병사들에게 보내 주셨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때 병사들은 **김일성**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쿡나물 국을 받아들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었다.

이런 위대한 수령의 평도를 받는 군대에서 나는 청년기의 보람찬 삶을 보내었다.

그후 나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으로 그토록 희망하던 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 종합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던 날, 나는 남쪽에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이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그토록 보고싶어하시던 어머니, 아들을 배움의 길에 세우는 그것이 평생의 가장 애절한 소망이셨던 어머니가 대학생이 된 아들의 이 소식을 아신다면...

그날 나의 눈앞엔 중풍으로 이그러진 어머니의 가슴아픈 모습이 아니라 유년기의 아슴푸레한 추억 속에 새겨진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흐르고 두눈이 청청히 빛나던 젊으신 어머니 모습이 얼른거렸다. 어머니가 이 소식을 아신다면 병고의 흔적을 털어버린 환한 얼굴로 웃으시게 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이 떠올라 나는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대학의 교정에서 마음껏 배우며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혁명적인간으로 성장해나가는 그 나날들에 나는 수령님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한생토록 성실한 노력을 바쳐가리라는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었다...

그런데 받아안은 사랑과 은혜는 산갈고 보답한것은 티끌만도 못한 내가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된다는 통절한 생각, 바로 그것이 그 밤 나를 괴롭힌 자책과 회오의 고뇌였다.

오늘이 최후의 날임을 알라, 래일이면 모든것이 늙는다는 말도 있다!

돌이켜본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이 더할수 있었던 일들과 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혁명가는 생의 하루하루를 최후의 날로 가정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 일해야만 한다.

그렇듯 가치있는 창조와 헌신으로 충만된 삶의 시간을 추억할수 있는 사람만이 최후의 순간에 조국앞에 떳떳한 인사를 드릴수 있다는것이 그 밤의 고뇌속에서 내가 찾은 인생의 교훈이었다.

철창속에서의 창조

주체 60(1971)년 무기수로 《감형》된 나는 정치범들을 집결시킨 대전교도소로 갔다.

인간세상과 철저히 격폐된 암흑의 세계에서 인간을 언어도 사유도 다 잃어버린 산 《화석》으로 만들어버리자는것이 적들의 목적이였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을 가둔 옥사(감방)를 적들은 일명 《모스크바》라고 불렀는데 그 《모스크

바》에서 많은 동지들이 잔인한 고문에 의해 학살되거나 불구로 되었다.

그러나 적들은 우리를 다 죽일수도 어떤 산 《화석》으로도 만들수 없었다. 적들은 오산하였다. 심장이 고동치는 한 투쟁을 멈출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생리임을 적들은 알수 없었다.

내가 옥사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10~20년 수감생활을 해오는 동지들이 있었다.

《신입생》인 나에게 선배동지들은 옥중투쟁에 립하는 혁명가의 립장을 가르쳐주었다.

-우리는 적들이 강요하는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적들의 테로와 기아, 무서운 고독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혁명가의 참다운 자세가 아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스스로 버릴 권리가 없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자신이 선택한 사상과 받아들여온 제도에 대한 신념을 고수하는 이 투쟁에 우리의 생명이 깡그리 바쳐져야 한다. 력사는 승리자의 립장에서 씌여진다는 말도 있거늘, 우리는 이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 우리의 력사를 세상에 남겨야 한다.-

그때부터 시작된 나의 비전향수생활은 결코 고립된 인간의 고독한 옥살이가 아니라 즐기찬 활동으로 충만된 창조의 시간이었다.

처음 나는 퍼그나 먼저 옥살이를 시작한 김동지와 한방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늘 일정한 시간이 되면 무엇인가 장시간 입속으로 외우곤 했다.

어느날 나는 그에게 매일 무엇을 그렇게 외우는가를 묻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빙긋이 웃으면서 《조국에서 이미 배웠던 정치경제학과 철학을 복습하는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공화국의 정치경제학과 철학의 방대한 리론체계를 전문대학교수의 수준에서 통독하고있었다.

특히 그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당과 국가를 령도하여오신 과정에 제시하신 강령적인 연설과 교시들을 년대별, 월별, 날자별로 그 원문들을 토한자 빠짐없이 철저히 통달하고있었던것이다.

《오선생도 학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 하루라도 학습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공허해집니다. 우리에게서 사색의 빈곤, 그것은 사상의 빈곤이며 사상의 빈곤은 곧 <살아있는 죽음>을 의미하지요.

...》

인간의 머리속에 두가지 사상이 존재할수 없으며 사상의 공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하나의 사상에 공백이 생길 때 그 빈 자리는 벌써 다른 사상이 차지한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아는 비전향수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는 사업을 단 하루도 멈춤없이 최우선적인 일로 삼고있었다.

나는 동지들에게서 옥중의 《언어》를 배웠다. 서로의 대화를 철저히 금지당한 조건에서 공화국소식이나 사회의 정치정세와 동향을 서로 알리기 위한 정보전달과 학습의 수단으로 동지들은 비전향수의 말인 《타전》을 개발하였다.

조그마한 단추 혹은 손톱끝으로 벽을 툭툭 치기도 하고 길고 짧게 긁기도 한다. 그러다가 간수가 나타나면 쿵 하는 신호와 함께 타전은 중지된다. 《위협》해체가 되면 통신은 다시 계속... 긴장한 신고끝에 드디어 수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그 말을 조용히 받아외운다.

감옥에서 처음으로 조국의 그 신성한 이름을 들던 그때 나의 심정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랴!...

사람들은 지금시대에 쇠못을 갈아 바늘을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선뜻 믿어지지 않을것이다.

어느 옛사람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을 남겼다. 그것은 학문수양에 관한 훈교로서 목적하는바의 성취를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바쳐야 함을 이르는 상징적비유의 말이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옥살이를 한 어느 동지는 정말 큰 대못을 갈아 바늘을 만들었다. 그는 운동시간에 얻은 녹이 쓴 쇠못을 수백여일간 갈고 또 갈아서 바늘을 만든 다음 찢어진 수인복의 조박들을 기워 방석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앓는 동지에게 쓰도록 했다. 또 어떤 동지는 쇠조각을 가지고 침구들을 만들어 자체로 습득한 침술로 동지들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외국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홀로 남아 생존수단을 얻었다지만 우리 비전향수들은 미증유의 가혹한 억압과 구속이 가해지는 0.75평의 《무덤》속에서 그 어떤 《로빈슨》도 만들지 못할 바늘과 침구, 《언어》를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기에 비전향수들은 철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의 초상화를 마음속에 정중히 모시고 살았으며 어떤 동지는 수령님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그이께 올리는 안경집까지 마련할수 있었다.

이 창조정신의 근원은 무엇이였는가.

그것은 천고밀림속에서 맨손으로 폭탄을 만들어 일제를 쳐부신 항일빨찌산의 정신,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위대한 창조의 금언을 우리 혁명대오에 안겨주신 **김일성**장군님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의 전통이었다.

수령의 혁명전통을 고수해가는 그 나날에 우리들이 간직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 이는 우리의 준엄한 삶이 보람있는 혁명적창조의 삶으로 이어지게 한 삶의 원천이었다.

적들의 전향공작테로의 광증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초.

죽음의 문턱을 하루에도 수십번 넘나들어야 했던 그 나날들에 나는 적들과 대결하고 돌아온 밤이면 자애론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다.

칠혹같은 옥방의 어둠을 밝히며 햇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어버이수령님!

그 모습은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보았던 수령님의 모습이였다.

...평양 대성산에서 동식물원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우리 대학생들은 작업현장에 몸소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보았다.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우리들은 작업을 하던 그 차림 그대로 달려가 수령님께 앞을 다투어 인사를 올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들의 흠뻑은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대학생들이 수고한다고 격려해주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서는 대성산동물원과 식물원을 우리 식의 세계적인 동식물원으로 꾸리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조국의 재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안겨주는 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이 사업을 전망성있게 벌려야 하며 이것을 몇몇 전문일군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애국심을 가지고 펼쳐나서는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성실한 노력으로 조국의 재부를 창조하는 사업에 이바지하는것은 더없이 훌륭한 일이라고 거듭 치하해주시였다.

바로 그날에 뵈은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이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언제나 잊지 못할 그날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언제나 전사와 대화를 나누시는것만 같았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서 부족한 생각은 바로 잡아주시고 옳은 결심들은 지지해주시면서 혁명가로서의 옳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곤 하시였다. 나는 원

쭈들이 도사린 적구의 감방속에서 전사의 투쟁이 조국을 수호하고 조국을 전진시키는 위대한 진보의 역사에 하나의 씨앗으로 이바지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 창조속에서만 존재할수 있는 삶, 그것이 참다운 인간, 참다운 당원, 참다운 전사의 삶이다.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가 우리 당과 수령의 전사이고 공화국의 국민이라면 모든것을 우리당과 수령의 혁명위업수행과 공화국의 리익을 위해 바쳐야 한다.

이것이 30여년간 철창속의 삶을 통하여 비전향 장기수인 내가 체득해온 생활의 진리이다.

조국애란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나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한다는것이 구체적인 인간의 생활과 운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대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읊는 서정시 《나의 조국》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조국에 그대의 심장을 주기전에는
...

깊은 생각을 불러오는 말이다.

심장! 조국에 그 심장을 바친다는것, 바로 그렇게 조국을 사랑한다는것은 과연 어떤것인가.

나는 조국의 품에 안겨 공화국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웅장하게 변모된 조국의 모습을 경탄과 감개속에 바라보곤 한다. 더우기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 일떠선 세기적인 창조물들을 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조국애를 실감한다.

특히 나에게 큰 감동과 충격을 주곤 하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이다.

안변청년발전소, 개천-태성호물길, 청년영웅도로... 기록영화나 현지보도의 화면들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피와 땀을 바쳐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을 금할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에 우리 청년들만큼 로동의 가치와 신성함을 잘 아는 청년들이 더는 없을것이다.

이런 때 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관과 남조선사회의 타락한 청년들의 인생관을 비교해보게 된다.

옥살이를 할 때 나는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는 수다한 잡범수인들과 접촉하였다. 살인, 강도, 사기, 매춘 등 범죄명들은 각이했으나 범죄의 밑바탕에는 돈이라는 《유령》이 도사리고있었다. 그들은 감옥벽에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있으면 죄없고 돈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락서를 해놓고 석방되어 나가면 좀더 큰 도적이나 강도가 되겠다고 늘 버르군 했다.

오로지 돈을 위해, 안일과 영달, 출세를 위해 산다는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인생지론으로 통하는 사회환경은 그들을 근면한 로동에 의한 창조적인 생활이 아니라 순간적이며 리기적인 길로 떠민것이다. 로동을 천한것으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자본주의아성인 미국에선 이미 20세기 60년대에 《히피(로동을 기피한 청년들의 무리)》 현상이 휩쓸어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었다. 오늘 남조선사회에서도 진탕치듯 마시고 놀기만 하는 젊은이들의 집단이 나타나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있는것이 하나의 실례로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조국》에 대해서 말한다는것은 생각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을 보라.

사상과 신념의 강국인 이 나라를 주체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 청년들, 자기 령도자의 구상을 받들어 산악같이 일떠서서 산을 옮기고 바다를 막으며 세기의 기적을 창조해가는 불굴의 인간들!

나는 이들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 조국은 우리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만이 아닌 수천수백만의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키워내고있는것이라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하여 석수가 쏟아지는 갯도안에서 공사 전기간을 보낸 병사들이 장군님께 하루라도 빨리 기쁨의 보고를 올리겠다고 피흐르는 잔등에 돌아대, 흙마대를 지고 하루에 수백리길을 달린 그 청년전설자들이 어찌 자기 조국을 배반할수 있겠는가!

조국을 위해 바친것이 없는 사람의 《신념》? 그리고 《조국애》?!

이것은 정말 공허한 말이다.

신념과 노력, 신념과 창조는 불가분리적인 말들이다.

조국을 위해 일을 하고있으며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은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국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며 신념을 지킨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많다고 자찬하거나 이제는 무엇인가 더 바칠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각부터 조국과 분리된다. 조국과의 분리- 그것은 곧 배신과 타락, 변절의 더럽고 수치스런 《전향》의 길에 들어선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리를 너무도 잘 아는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고, 그들을 볼 때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은 조국에 충실한 신념의 투사들의 대군단이 역세게 자라고있는 현실앞에서 무한한 기쁨을 금할수 없다.

이런 청년들, 수백만청년들을 신념과 애국의 투사로 키우신 우리 장군님은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스승, 위대한 아버지이시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 한번 편히 쉬실 사이도 없이 선군령도의 머나먼 길을 족잡과 철패로 이어가시는 장군님!

민족의 자주와 존엄, 번영을 위한 조국의 력사에 위대한 사랑과 헌신을 바쳐 조국의 만년대계를 이룩해가시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우리의 **김정일**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조국의 청년들이 이 행성의 가장 순결하고 고상한 애국자들로 자라는것은 력사의 철리이다.

조국의 미덥고 훌륭한 청년들에게 말한다.

《내 조국을 사랑하는 청년동지들이여! 조국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십시오. 조국을 위해 흘리는 그대들의 땀방울로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뿌리를 더욱 깊고 역세게 키우십시오. 조국에 바치는 헌신적로동의 창조로 그대들의 가슴속에 억년 드눌지 않는 신념의 탑을 쌓으십시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그대들의 심장을 바쳐 일해주십시오!》

병사의 순간

문충렬

사랑앞에선
순간도 주저함을 몰랐다
얼음장을 헤치고 아이를 안아올 때
사람들은 병사의 한마디 말에 목이 메었다
-군대가 아닙니까

증오앞에선
순간도 양보를 몰랐다
푸른 하늘 더럽힌 원쑤
단방에 쇠뿔굴제
인민들이 보내는 축하의 인사앞에서도
오직 한마디
-군대가 아닙니까

한순간은 무엇이던가
그것은 병사가 지켜선 한그루 구호나무
수령님초상휘장 두손에 감싸쥐고
온몸은 불에 타도 태울수 없던 그 량심

말하라 너 순간이여
너를 위해 불붙는 비행기와 함께
자폭용사로 만리하늘가에

흘날린 병사도 있었더라
아마도 순간이란 목숨보다 귀한것

그렇다 한순간 그것은
언땅에 배를 대고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는
병사가 안고사는 귀중한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훈련길에서
병사가 간직한 고귀한것

조국보위성전에서 값높이 사는 길
이는 순간순간에 이어진 병사의 량심
그 신념안고 순간을 위해
많은 병사들 웃으며 갔어도
우리 장군님 그리도 값높이 안아
모교의 언덕에 영웅으로 빛내여주셨더라

아 선군의 붉은기 날리는 조국
김정일장군님 결사옹위하는 그 길에
순간도 드림모르는 참된 아들로 내 살리라
사랑과 증오의 순간순간을 위해
총대를 역세게 틀어잡은
병사로 병사로!

마지막집에 부치여

김경기

벽계수가 시작되는 두메
오솔길도 끝나버린 골짜기에
산촌의 마지막집이 있었다
오는이도 바이 없고
언제한번 동네 화제에도 오른적 없는
허리굽은 로송 한그루 서있는 집이

자식들이 여덟형제나 되어서
해방전에 뒤산의 뿔뿌리가 아니더면
여덟자식 아이적에 다 굶겨죽였을
동네라도 마지막 죽동네
막바지 끝집이었다

해방된 그해부터
로송 한그루 서있던 집이
굽었던 허리를 쪽 펴고
성큼성큼 마을앞으로 걸어나온듯

옥답 3천평도
온 마을의 부러움속에 받아안았던 첫집
현물세달구지 행렬에도 앞자리에 섰던

행복의 첫집이 되었다.

그러한 여덟형제모두를
군대에 보낸 그날부터
후방가족에서도 첫집으로 꼽히고
회의주석단에도 선참으로 불러주는
선군의 첫집이 되었다

마을의 맨 앞자리도
앞산에 가리울가봐
텔레비존화면에 자주 보이는
내 나라의 맨 앞집으로
온 조국에 알려졌거니...

그렇듯 내세운 총대가정이
이 나라에 몇이던가
우리 장군님 이렇게 앞세우셨더라
총대를 앞세워
우리 조선을
보란듯이 세계의 앞자리에 내세우셨더라

상식

사람의 7가지 지능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심리학자가 내놓은 사람의 지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정상적인 인간이 서로 독립적인 7가지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레컨대 임의의 한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지능발휘능력이 약할수 있지만 사람들의 주의가 미치지 않는 다른 측면에서는 놀라운 잠재력을 가질수 있다고 하였다.

지능은 각이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자기의 장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장점으로 약점을 메꾼다면 매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7가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언어능력

문자의 뜻에 대해서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의 결합에 대한 민감성이다.

2. 리론 및 추리능력

런쇄적인 추리능력과 방식, 순서의 식별능력이다.

3. 음악능력

음질, 선율, 박자, 음조에 대한 민감성이다.

4. 체육활동능력

몸을 민활하게 움직이는 능력과 물체를 조정하는 능력이다.

5. 인맥관계능력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잘 가지는 능력이다.

6. 공간에 대한 감각능력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세계의 어느 한 공간을 개조하는 능력이다.

7. 심리적사색능력

감성적인 생활을 인식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들의 매력

-한 논물관리공의 수기-

지인철

작업반회의가 끝나자 분조장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축하하네, 명석이. 농산기수의 본때를 보이려구.》

전에없이 수선을 떠는 그의 능청에 나는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얼굴에는 비록 유순한 웃음을 짓고 더없이 친절하게 하는 말이었으나 그속에 박혀있는 속대사를 나는 너무나 잘 알고있다.

우선 《축하한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선뜻 말하지 않는 논물관리공이 된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것이고 다음은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라는 나의 경력을 상기시켜 오지를 논물관리를 달가와하지 않는 나의 속마음에 은근히 빗장을 지르자는것이다.

키도 자그마하고 몸집도 체소한 그는 생긴 그대로 정리한 사람이었다.

《내가 뭐...》

허뻐뿔어진 말이 굴뚝처럼 치솟는것을 겨우 참았다.

좁은 얼굴에 비해 엄청나게 큰 그의 코가 오늘은 별로 미워보였다. 문득 그의 주먹과 코를 나란히 놓으면 과연 어느것이 더 클가 하는 엉터리없는 생각까지 들었다.

나는 쓰겁게 입맛을 다시며 그를 외면해버렸다.

생각할수록 그의 처사가 꽤썩했다.

그는 벌써 몇번씩이나 나에게 오지를 논물관리를 권고해왔고 그때마다 거절당하자 이번에는 관리위원회에까지 제기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었던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논물관리라는 그자체에 불만을 가지는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전문학교에서 배운 논물관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것을 능히 해낼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은근히 자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지들만은... 이웃농장의 송산들과 경계

하고있는 오지들은 우리 작업반의 맨 막바지논으로서 물이 제일 바른 포전이다. 전후에 간석지를 개간하여 만든 오지들과 송산들은 철저히 흐름식 물대기를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그런데 최근 《고난의 행군》에 들어서면서 몇해째 계속된 가물로 수원지의 물량이 줄어든데다 나라의 전력사정까지 긴장해지면서 양수기들이 정상가동을 못하다나니 포전에 흘러드는 물량이 결정적으로 모자랐다.

이런 사정으로 량쪽 물관리공들은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일하면서도 별수없이 물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얼굴을 붉혀야 했다.

더구나 오지들과 송산들은 물길을 경계로 서로 마주하고있어 두 농장의 얼굴이나 다름이 없었다. 군의 일꾼들은 의례히 오지들과 송산들의 작황을 놓고 두 농장의 농사형편을 평가하기가 일쑤였다. 때문에 두 포전을 상대로 한 두 농장사람들의 승벽과 경쟁심 또한 보통이 아니다. 오죽하면 서로가 자기 농장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 《오지들》, 《송산들》로 부르겠는가.

결국 오지들 논물관리공이 된다는것은 물때문에 항상 얼굴을 붉히고 목청을 돋구어야 하며 두농장의 만만치 않은 승벽과 경쟁의 전면에서 서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닥 반가운 일이 못된다는것이야 어린아이도 알노릇이 아닌가.

게다가 나는 지금 한창나이의 청춘시절에 살고 있다. 내나름의 리상이 있고 포부가 있다. 현대적인 농업과학과 기술로써 한몫 단단히 하고싶은것이 나의 희망이고 목표이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탐구하고싶다.

하지만 그 알량한 분조장은 나의 욕망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오지들》이라는 조롱안에서 외기러기신세가 되어 아바이들에게나 어울릴 논물관리공일이나 수격수격 할것을 바라고있었다. 결국 나의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가고만것이다.

그럴수록 남의 마음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나를 끝내 이런 처지에 몰아넣은 분조장에 대한 반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그런 사람과 더 맞서고 싶지 않아 나는 분연히 돌아서버리고말았다.

《그럼 <오지틀> 을 부탁하네.-》

다짐을 두는듯 한 분조장의 늘어진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려왔다.

×

《권하는 비지떡》 이라고 어쨌든 나는 다음날 이른아침 들판으로 나갔다.

해뜰무렵,

미명의 들판공기는 더없이 상쾌하였다. 동녘하늘에 아름답게 펼쳐진 주홍빛노을은 누리를 덮고 있던 어둠을 저 멀리로 쫓아버렸다.

나는 자루 긴 물고삽을 창대마냥 비껴잡고 무연한 들판을 한눈에 굽어보았다.

《버들천》 이라 부르는 기본물길을 따라 송산들과 나란히 펼쳐진 오지틀은 땅의 천성 그대로 자기의 새 주인을 묵묵히 맞아주었다.

거의 스무정보를 헤아리는 오지틀은 한배미한배미가 방금 잘라낸 두부모같이 네모반듯한 규격포전, 그 어떤 기제도 마음대로 리용할수 있게 정리된 포전이다. 더구나 그 입구에는 이름난 명승지의 루각도 무색할 정도로 날씬하게 일떠세운 두개의 포전막이 전방대처럼 솟아있어 그 상쾌함과아름다움을 더해주고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농장은 푸른색돌기와의를 엮었고 송산농장은 붉은색기와를 엮은것뿐이다.

그 포전막으로부터 시작하여 들판을 평행으로 건너지른 두개의 포천물길과 네개의 인수로, 백여개가 넘는 크고작은 논고들을 진주알깨듯 거느리고 뻗어간 논두렁들, 들판의 믿음직한 보조병들인 나비등과 병해충에찰막들... 그 모든것이 논물관리공인 나의 관할에 속하는것이며 또 책임을 져야 하는 포전시설물들인것이다.

스스로 어깨가 무거워졌다. 파도마냥 밀려든 벅찬 의욕이 나의 율적인 심사를 말끔히 가셔주는듯했다. 기왕 논물관리공이 된바에는 분조장의 눈이 확 뒤집어지도록 솜씨를 보여야겠다는 승벽이 슬며시 머리를 쳐들었다.

홍얼홍얼 코노래를 부르며 포전에 들어서던 나의 흥뜻 기분은 그만 첫 논고에서부터 왈각 뒤집어지고말았다.

웃배미에서 아래논으로 통한 논고로는 물이 한 방울도 넘어서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아래논들에는 벌써 드문드문 드러난 바닥이 눈에 띄웠다. 순간 온몸의 피가 꺼꾸로 흐르는것만 같았다. 논물관리공에게 있어서 논에 물을 말리우는것 이상 더 수치스러운것이 어데 있겠는가.

자연이 펼쳐놓은 신비경에 취해 감상적인 기분 에 사로잡혔던 나는 그제야 자신이 다름아닌 오지틀 물관리공이며 여기서 시끄러운 물문제가 나를 기다리고있었음을 의식했다.

(이건 첫날부터 《선전포고》를 하는셈인가?)

송산들쪽을 쏘아보는 나의 귀가에는 문득 다른 작업반 기술부원으로 조동된 이전 물관리공이 자기가 애용하던 물고삽과 《논물관리일지》를 넘겨주며 은근히 덧붙이던 말이 되살아났다.

《오지틀은 물이 제일 골치거리야. <버들천>물이 가뜩이나 적은데다 두 농장에서 나누어쓰자니 안타까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 ... 아마 송산들 물관리공령감과 물다툼질깨나 해야 할거네.》

나는 뺨이 꿈틀 돌아눕는것을 느꼈다.

저쪽 《버들천》 기슭 논배미너머로 누런 농립모가 얼찢거렸다.

나는 물고삽을 둘러메고 반달음을 놓았다.

논물욕심은 친구도 몰라본다는 말이 있다. 비록 바란것은 아니지만 실지 바닥이 드러난 논을 보게 되니 참을수가 없었다.

한달음에 《버들천》 물고에 다달은 나는 그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게 욱버터던 물관리공령감은 보이지 않고 난데없이 미색샤쯔에 검은색바지를 반쳐입은 자그마한 처녀가 송산들로 흘러드는 물은 흡족하게 바라보며 씬평 좋게 노래까지 부르고있지 않는가. 뒤로 쫓진 그의 머리우에는 방금 얼찢거리던 농립모가 나를 눌러주듯 가볍게 필력이고있었다.

물고마개로 쓰는 흙가마니가 우리 포전으로 꺾어든 물목에 떡 버티고있는것을 보는 순간 나는 자제력을 잃었다.

《흥, 렴치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쪽으로 훌쩍 건너간 나는 그 미련한 흙가마니를 닝큼 들어 송산들 물고에 콕 처넣었다.

침병!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어마나!》하는 처녀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가슴을 쿵 찢렸으나 나는 태연하게 버티고 섰다.

《왜 그러세요?》

조용하나 무척 되어진 처녀의 목소리였다.

《흥, 오히려 제편에서... 보면 모르겠소?》

나는 눈알을 부라리며 소리질렀다.

《도대체 동무네 송산에서만 농사를 짓는가 말이요? 보자보자하니까...》

그제야 처녀는 깨도가 된듯 몸돌바를 몰라했다. 그의 하르르한 옷자락에 방금 내가 튕겨준 흙물방울이 어지럽게 얼룩져있었다.

어쩐지 싱거운 생각이 들었다. 초면인 처녀앞에서 너무 객기를 부렸다는 창피함에 나는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여기 물관리공아바인 어디 갔소?》

《아바이는 부림소관리공일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

나는 그만에야 입을 딱 벌렸다. 처녀의 아래우를 새삼스레 훑어보았다.

키는 내가 들고있는 물고삼만이나 할가, 어쨌든 모든것이 작게만 느껴지는 처녀였다. 게다가 목에는 빨간 머리수건을 넥타이처럼 두르고있어 천진한 소녀를 방불케 했다.

파연 이 처녀가 송산틀 물관리공이란 말인가.

선뜻 믿어지지 않았다.

논물관리가 무슨 소꿉놀이인가 하는게지.

기가 막혔다.

상큼한 코냇개주위로 주근깨가 점점이 박히고 얼굴이 가름한 처녀의 모습은 나에게 그리 탐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어디서나 흔히 지나칠수 있는 이틀테면 순박한 들국화같이 특별한 매력이 엿보이지 않는 처녀였다. 다만 쌍까풀진 오목눈이 껍인상적이었다.

논물관리공은커녕 초보적인 농사군의 체취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흥, 송산에도 사람이 없긴 없군.)

나는 속으로 맹소했다.

결국 두 농장에서 한날한시에 세대교체가 이루어진셈이다.

그날은 도무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마음은 연추라도 달린듯 무거워만졌다.

송산틀 물관리공이 다름아닌 애어린 처녀라는 뜻밖의 정황은 가뜩이나 시큰등한 나의 마음을 또 다시 들쭉서놓았다. 그것은 연약한 그 처녀와 결코 물을 가지고 다룰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으로 분조장을 찾아갔다.

부나비떼가 너울거리는 집마당의 외등밑에서 로력일수첩을 펴놓은채 눈을 뜨부럭거리던 그는 나의 말을 묵묵히 듣더니 불쑥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자네 이마를 한번 짚어보라구.》

《뭐라구요?》

나는 대뜸 눈살이 찡찡해졌다.

《온기가 있는가 말이야. 난 그래도 명석이의 싹수를 밍구 오지틀을 말렸는데 첫날부터 반개질을 하다니. ... 창피하지도 않나?》

자못 섭섭하다는듯 그의 주먹코가 불덩어리처럼 빨갱게 달아올랐다.

나는 두번다시 그와 맞선 자신을 타매했다. 결국 흑을 떼려다 도리어 불인셈이 되고만것이다....

×

《어젠 정말 미안했어요. 논물관리가 처음이다보니 그렇게...》

이튿날 들판에서 만난 처녀는 무작정 사죄부러 하려들었다.

불쑥 어제 내가 튕겨준 흙물방울이 생각났다. 그것이 아직 남아있을리 만무했지만 나의 눈길은 자꾸 처녀의 옷자락에 쏠렸다.

《미안하기야 뭐. 피차일반인데...》

나는 처녀에게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제야 우리든 서로 통성을 했다.

하지만 내가 처녀에 대해서 알게 된것은 별로 많지 않았다.

이름은 현아, 나이는 스물두살... 이것이 전부였다.

《많이 배워주세요.》

이런 말로 자기 소개를 마친 현아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농립모안에 꼼꼼히 밀어넣었다.

그늘아래 핀 꽃처럼 연약하고 아련한 그의 모습은 왜 그런지 나에게게는 측은하게 생각되였다.

그도 나와 다를바없이 《송산틀》이라는 조롱안에 갇힌 자그마한 세에 불과한것이다. 제 또래처녀들과 한창 웃고 떠들 나이에 홀로 떨어져 논물관리를 해야 하는 그에게도 나처럼 울적한 심사가 깃들어있을지 어이 알랴.

《동무네 분조장도 알만 하구만.》

나는 현아를 위로해줄양으로 넌지시 말을 건네였다.

《그건 왜요?》

《처녀에게 물고삽을 메워주었으니 말이요. 이게 어디 처녀들이 할 일이요?》

《어마나! 이젠 제가 자진해서 말은 일인데요 뭐.》

《?!》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얼떠름해졌다.

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 처녀가 혹시 일시적인 충동에 들뜨기 잘하는 경망스러운데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전 농사일중에서도 논물관리를 제일 사랑한답니다. 책임적이고 또 그만큼 매력적이고… 풍요한 들판과 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일하느라 저절로 마음이 넓어지고 정열이 불타올라요. 전 이 들판에 정을 붙이고 청춘의 희망도 리상도 꽃피우고 싶어요.》

마치 온 들판을 그 작은 가슴에 부둥켜안을듯 두 팔을 벌린채 열정에 넘쳐 속삭이는 현아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는 그대로 한편의 서정시같이 감상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에 선뜻 긍정이 가지 않았다.

논물관리는 결코 서정시가 아니다. 랑만적인 감정과 정서로 론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땀과 정력, 무한한 성실성과 근면성을 요구하는것이 다름아닌 논물관리인것이다.

현아의 희망과 리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을 느끼게 될것이다.

어디선가 여무진 휘파람소리가 울려왔다.

사람들이 일터로 나오고있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 논고들을 돌아봐야 하는것이다.

한배미 또 한배미… 마치 논판에 매인것처럼 논둑을 따라 뱅글뱅글 댄돌아야만 하는 논물관리공의 일이란 얼마나 단조롭고 고독한것인가.

이슬에 덮여 뿌옇스름한 공포기밀에 웅크리고 있던 개구리들이 텀벙텀벙 물에 뛰어들고 밤을 샌 물닭들이 이슬을 차며 푸드득 날아오른다. 태양이 울담을 넘보는 장난꾸러기마냥 반쯤 얼굴을 내밀고 새싹새싹 옷자 주위는 삼시에 밝아지고 모살이를 끝낸 들판은 푸른 주단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자연은 변함없이 자기고유의 참신한 매력과 미소를 아낌없이 뿌리고있지만 나에게에는 그것을 감상할만 한 여유가 없다.

벼의 생육에 맞게 물을 알지도 깊지도 않게, 한논금의 온도가 오르고 내릴세라 늘 원심을 쓰고 비료와 농약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해야 하는 논고조절, 포천물길과 인수로로 치고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하는 논두렁손질…

정해진 순회길을 따라 논고들을 손질하면서 《버들천》 물고에 이른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눈이 획 뒤집어지고말았다.

어제와는 반대로 《버들천》의 물은 거의 우리논으로 흘러들고 송산틀물고에는 흙가마니가 태평스레 누워있었다.

분명 현아의 소행이었다.

그것은 고맙고 가륙한 진정임이 틀림없었으나 나의 자존심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꼭 어린애한테 동정을 받은 심정이였다.

흙사 우둔한 곰처럼 웅크리고있는 흙가마니를 나는 경멸에 차서 쏘아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툼의 상징》이였던 것이 오늘에는 《동정의 상징》으로 되어버린것이다. 나는 흙가마니를 넉넉 들어다 우리 물고에 콕 처넣었다. 순간 솟구쳐오른 물보라가 나의 온몸에 들썩워졌다.

별안간 개울설에 숨어있던 개구리란 놈이 콕악 콕악 목청을 돋구었다. 그 소리가 마치 나에게는 《꿀종다!》, 《꿀종다!》하는 조롱으로들렸다.

손맥이 탁 풀렸다. 물고삽을 되는데로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참 어이가 없었다.

않는것이 죽는것만 못하다고 이젠 차라리 내키지 않는 《물싸움》이라도 실컷 하는편이 더 나을것 같았다.

등뒤에서 인기척이 울렸다.

인수로로 치냈는지 건어올린 종아리가 온통 흙투성이로 된 현아가 내곁으로 다가왔다. 상긋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맑은 유리알처럼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 빛을 뿜었다.

《우리 논은 아직 일없어요.》

그는 다시 흙가마니에 손을 뻗쳤다.

《그만두오!》

나는 툭하게 소리질렀다.

《어마나! 성이 났어요?》

현아의 오목눈이 울롱해졌다. 순진하면서도 깨끗한 그의 눈빛을 차마 마주볼수 없어 나는 고개를 외로 틀어버렸다.

《그러니 결국 우리도 <물싸움>을 해야겠군요? 동화에 나오는 개와 고양이처럼 아웅다웅하면서 말이예요. 호호호.》

현아는 밝고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끝내 두 물고를 알맞춤하게 조절해놓고서야 자리를 떴다.

그날부터 《버들천》 물문제는 풀지 못한 숙제처럼 골치거리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가 물부족을 항시적으로 느끼면서도 여전히 물을 양보해주는것을 잊지 않았다.

한번은 송산들쪽으로 물길을 돌려놓고 돌아서는 데 분조장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능청스러운 눈길로 나를 건너다보던 그는 주먹코를 굵적거리며 시까슬렀다.

《이젠 아예 처녀한테 녹아빠진 모양이지?》

《?!》

《녹아빠졌다》는 말은 좀 과했어도 나는 선뜻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물은 엄연히 송산들로 흐르고있었던것이다.

《한심하구만, 한심해. 이렇게 서로 양보나 해가지고 물이 해결될것 같은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고작 그게 단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둘이 합심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듯 한데... 어쩐가, 명성이 생각엔?》

분조장은 이런 혼시를 남기고 떠나갔다.

그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나는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그의 말처럼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작히나 좋겠는가. 오지들과 송산들이 《버들천》에 명줄을 걸고있고 그곳 불량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건 뻔한데 무슨 뽕족한 수가 있겠는가. 물을 만들어내는 똑 부러진 재간이 있다면 몰라도...

진정 눈물관리공처럼 물 한방울한방울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본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현아도 종종 그런 경우를 당하는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가 하면 손에서 놓은적이 없는 자그마한 수첩과 원주필을 들고 포전에서 포전으로, 물길에서 물길로 쉬임없이 뛰어다녔다.

오지들과 송산들의 물문제는 마치 고운 얼굴의 곰보와도 같이 치명적인 결점으로 되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다.

중복이 지나고 말복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더 바빠 뛰어다녀야만 했다.

실한 벼대들이 배가 불룩해지도록 이삭을 품는 이 시기는 어느때보다도 물을 많이 요구하는때다.

현아와 나는 한방울의 물이라도 헛되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 찌는듯 한 염열속에서도 쉬임없이 논배미들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마디에 웅이라고 《버들천》 똑이 몽청 떨어져나가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가을에 쥐들이 뚫어놓은 구멍으로 물이 쭉쭉 새는것을 이미전부터 보아오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종시 일을 친것이다. 손톱눈 굽는줄은 알아도 염통 굽는줄은 모른다고 그것을 미리 막아버리지 못한 자신의 실책에 혀를 깨물었으나 이미 때는 늦은 후회였다.

가뜩이나 모래기가 많은 《버들천》 똑은 사품치며 쏟아지는 물살에 패여 점점 주저앉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머지 서둘러 삽질을 해댔으나 이미 터지기 시작한 똑을 막는다는것은 쥐구멍을 막는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눈앞이 새까매서 무작정 덤벼치던 나는 그만 걸죽한 감탕판에 모로 자빠지고말았다.

《제기랄!》

나는 까닭모를 화를 내며 감탕투성이가 된 신발을 발길질로 벗어던졌다.

사태는 점점 험악해졌다.

방도는 수문을 닫아버리는것인데 거기까지 가느라면 똑은 모조리 무너져 엉망진창이 될것이다.

진퇴량난에 빠져 찢찢매고있는데 현아가 달려왔다. 그는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울상이 되어 발까지 동동 굴러대었다. 쌍까풀진 오목눈에서 불시에 눈물이 솟아올랐다.

화가 불끈 동했다.

너자들이란 도대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존재들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들은 눈물이 똑 제일인줄 아니 말이다.

나는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맹꽁이같이 울지만 말고 어서 포전막으로 달려가요. 빨리 나래를!》

그제야 현아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더니 포전막으로 달려가 마당가에 들러췌던 나래를 와락와락 뜯어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터진 똑우에 나래를 놓고 그우에 흙을 덮었다. 무섭게 기승을 부리던 물은 그제야 한풀 수

그러들었다. 한동안 감탕과 씨름질을 해서야 터진
뚝을 막을수 있었다.

큰 숨이 나갔다.

《정말 미안하게 뻘소. 현아동무가 아니었더라면
...》

나는 진정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속
으로는 귀구멍 하나 제때에 막지 못해 처녀앞에서
꼴불견이 된 자신에 대한 수치와 모멸감을 쓰겁게
느끼지 않으면 안되었다.

《어마나! 이게 뭐 명석동무 혼자 일이에요? 제
잘못도 크지요 뭐...》

현아는 얼굴을 활짝 붉히며 잠전에 벗어던진 내
신발을 찾아들고 개울가로 달려가는것이였다. 감
탕에 어지러워진 그의 옷자락을 바라보느라니 오
늘의 사고가 혹시 얼빠진 내 정신상태의 반영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어쩐지 이 땅에 진
심을 바치지 못하고 번두리만 에돌고있는듯 한 자
신의 처사에 화가 동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현아는 인츰 돌아왔다.

그가 깨끗이 뺀 신발을 해별에 말리우고있는데
송산들쪽에 난데없이 대학생교복을 입은 여러명의
처녀들이 나타났다.

《현아동무!》

《아이! 우리 동무들이...》

현아는 어린애처럼 손뼉을 딱 치더니 그들한테
로 달려갔다.

나는 슬그머니 그쪽을 바라보았다. 거리가 멀어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서로 손을 마주잡고 룡
당쿵당 뛰는것으로 보아 무척 오래간만에 만난 모
양이였다.

현아는 빨간 수건을 감아진 손으로 들판의 여기
저기를 가리키며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있
었다.

처녀들은 현아의 포전막에 들어가서 한동안이
지나서야 나왔다. 떠나가는 그들을 바래우는 현아
의 모습은 어쩐지 측은해보였다.

《현아동무!》

내가 다가가자 그는 서둘러 눈굽을 훔쳤다.

《우리 학급동무들이예요.》

현아는 처녀들의 멀어져가는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 그럼 현아동무?!》

《명석동무, 전 사실 농업대학에서 송산농장에
현지실습을 나왔어요. 언제부터 말하자고 했는데

어쩐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건 어째서?》

《책상올림의 처녀가 주제넘게 논물관리공일을
한다고 동무가 깔볼것만 같아서...》

《뭐요?! 하하하.》

《호호호.》

현아의 솔직하면서도 엉뚱한 말에 우리는 즐겁
게 웃었다.

나는 현아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다.

돌보이는 처녀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말쑥
많은 송산들 논물관리를 자진하여 맡아 현지실습
을 착실하게 하고있는 그의 성실성에 감동을 금할
수가 없었다.

《명석동무, 우리 <버들천>을 한번 돌아보지않겠
어요? 제 생각엔 위험개소들을 미리 찾아내서 퇴
치하면 오늘같은 일을 방지할수 있을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요.》

나는 선뜻 응해나섰다. 오늘은 어쩐지 그의 요구
를 다 들어주고싶었다.

우리는 제비꽃이 다문다문 피어난 동쪽길을 따
라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휘늘어진 버드나무아지
에서 개구마리우는 소리가 정답게 울려왔다.

《힘들지 않소?》

그사이 몹시 수척해진 현아의 가름한 얼굴을 나
는 넌지시 바라보았다.

《아닌게아니라 처음엔 막 힘들었어요. 내가 너
무 경솔하게 논물관리를 맡아나서지 않았는가 하
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은 보람을 더 크게
느껴요. 현실속에서 배우는것도 많고 또 대학을 졸
업한 다음 자기가 할바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든 그의 온몸에서는 자기
가 하는 일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긍지, 지어는 환
회에 가까운 감정이 차넘치고있었다.

그날 《버들천》을 돌아본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감탕과 모래에 반나마 메워지고 기슭에 무성해
진 개버들사이로 물이 가까스로 흐르는 《버들
천》은 말그대로 중병을 앓고있는 환자나 다름이
없었다. 장마철에 물이 불어나면서 뚝이 무너져내
린 곳이 여러군데나 되였다.

우리는 서로 마주 바라보다가 눈길을 피해버렸
다. 물길에 이 지경이 될줄도 모르고 앉은자리에서
걱정이나 하고 서로 동정이나 베풀려고 한 우리가

말로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현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못해 파랗해졌다.

나는 결정적으로 《버들천》을 보수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분조장을 찾아갔다.

나의 말을 듣고난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해결책이 못돼. 명석이기도 알다싶이 지금은 김 한대라도 더 잡아야 할 텐데 어디 로력이 있나? 그리고 설사 보수를 한다고 해도 물량자체가 부족한데야 어찌겠나.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적극적인 대책이란 도대체 뭘니까?》

나는 콧지 않은 목소리로 따지고들었다.

《그래서 임자들한테 맡긴거지. 명석이야 교육을 받은 농산기수가 아닌가.》

또 그 소리다. 그에게는 아마 농산기수라는 말이 천하재간둥이라는 말로 들리는 모양인지 말끝마다 입에 올리는 것이었다.

도대체 언어불통인 그런 사람과 더 맞서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어쨌든 물길보수는 꼭 해야 합니다!》 하고 오금을 박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깨가 축 처져 들판으로 나오니 무엇인가 애타게 호소하는 것만 같은 물소리가 가슴을 허비며 파고들었다.

나는 울적한 마음을 현아와 나누고 싶어 송산틀로 건너갔다.

《어쩌면, 어쩌면 그럴수 있을까요?》

현아는 나를 만나자 무작정 걱정을 터쳐놓았다.

《〈버들천〉 보수문제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분조장동진 글썽...》

듣지 않아도 알만 했다. 현아도 아마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한 모양이었다.

그는 자기네 분조장이 《오지농장도 가만있는데 우리라고 들볶아댈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 총각을 잘 구슬려서 물 한방울이라도 더 차지할 궁양이나 해라.》 하더라는 말을 힘겹게 하는 것이었다.

《명석동무! 과연 물을 해결할 방도가 없단 말이예요? 우린 언제까지 물, 물 하면서 일해야 하나요?》

현아의 두볼에는 맑은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순간 나는 강한 반발에 몸을 떨었다.

도대체 이제는 물때문에 고생고생하다못해 눈물까지 흘러야 한단 말인가.

나는 《버들천》으로 달려갔다. 서슴없이 물에 뛰어들었다. 기슭에 우거진 풀을 와락와락 뽑아던졌다.

정 로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자! 한달이 걸려도 좋고 두달이 걸려도 좋다!

나는 욱 욱 힘을 쓰며 삽질을 해댔다.

현아도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연약했다. 내가 세번네번 삽질할새 그는 겨우 한번이나 하는 정도였다.

《이렇게나 해가지고 되겠어요?》 현아의 숨가쁜 물음이였다.

갑자기 맥이 풀렸다.

물론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급급하면서 《버들천》을 강건너 볼보듯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반발이 나를 일떠서게 했다.

우리는 그날 하루종일 물속에서 일했다.

현아는 일을 끝내고도 일어설념을 하지 못하고 멀리로 뻗어간 《버들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정말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나의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다음날도 나는 논을 한바퀴 돌아보고 또다시 그 일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반경이 지나도록 현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송산틀 구석구석을 두루 둘러보았으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는 종시 나타날줄 몰랐다.

혹시 논물관리를 단념한게 아닐까?

문득 《버들천》을 실망에 잠겨 바라보던 그의 연약한 모습이 눈에 밝혀왔다.

물때문에 마음쓰던 나머지 송산틀 논물관리를 단념한게 분명했다. 더구나 그는 실습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이곳을 떠나야 할 대학생이 아닌가.

갑자기 마음속 한귀퉁이가 무너지는듯 한 감이 들었다.

그렇다면 현아, 너는 너무 야속하다.

헐하면 가꾸고 힘들면 버려도 되는 것이 땅이라면 우리 농민들과 랑심은 과연 무엇으로 짚수 있단 말인가?

물론 나도 오지를 물관리를 하면서 궁지감을 못가지고 헛눈을 판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땅을 떠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내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때문이다.

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고 땀은 물론 더운 피까지도 바치고싶은것이다.

그런데 현아, 너는...

들을 위해 말뚝잠을 자고 감탕투성이가 되어 터진 쪽을 막고 말라드는 눈을 두고 흘리던 너의 눈물이 과연 거짓이었단 말인가?

마치 배반당한듯 한 쓰라림과 환멸감이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나는 으스스리게 삽자루를 틀어잡았다.

현아, 그러니 결국 너도 이 들판에 잠시 깃을 들었던 철새에 불과했던 말이지... 그래, 갈테면 가라! 너는 가도 나는 이 땅을 그대로 부어안고 한생토록 살것이다!...

그러던 어느날 밤. 나는 와르릉 쾅쾅거리는 소리에 놀라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억수로 퍼붓는 소나기의 검푸른 비줄기가 창유리를 도랑물처럼 씻어내리고있었다. 번개의 눈부신 불빛이 언뜻 비꼰다가 사라졌다.

서둘러 비옷을 걸친 나는 논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대줄기같은 비줄기가 나의 온몸을 세차게 후려갈겼다. 바람은 비옷고깔을 한사코 벗겨내려는지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다.

논물관리공에게 있어서 비오는 날만큼 불안한 날이 없다. 비가 많이 내리면 논배미들의 물이 넘어나면서 논두렁이 몽텅 떨어져나가게 된다. 더구나 하루종일 이삭비료를 뿌린 아래논들이 걱정되었다.

한달음에 포전에 다달은 나는 《버들천》 쪽으로 먼저 뛰어갔다. 물길을 차단해야 했다. 그런데 물고는 이미 막혀있었다. 다행이었다. 그런데 누가 벌써?...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뽕안 비밭과 어둠때문에 한치도 분간할수가 없었다.

어쨌든 한결 마음이 놓였다. 이제는 논배미만 돌아보면 된다.

몇번이나 진창에 미끄러지면서 포전을 돌아보는데 웬 사람이 불쑥 내앞에 나타났다. 때마침 병꽃하는 번개불에 쌍까풀진 오목눈이 확 드러났다.

현아였다.

반가운 감정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명석동무! 포전들은 다 무사해요!》

《현아동무!》

가슴이 뭉클해졌다.

눈부신 빛을 끝없이 발산하는듯 한 현아의 오목 눈에서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알수 없는것이 주르르 흘러내리고있었다.

문득 말라버린 눈을 바라보며 애타게 눈물짓던 그의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다.

그렇다! 그 눈물은 변할수 없는것이다.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고 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였다.

믿고싶었다. 현아의 진정을 믿고싶었다.

뜨겁게 달아오른 감정의 소용돌이가 나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고래쳤다.

나는 시큰해지는 코허리를 힘껏 문질렀다.

잠시 머뭇했던 비방울이 또다시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뛰어가세요!》

현아가 내 옷자락을 잡고 재촉했다. 우리는 어린애들처럼 웃고 떠들며 현아의 포전막으로 뛰어 들었다.

장판과 도배를 깨끗이 한 현아의 포전막은 구석구석마다 처녀의 섬세성이 엿보였다.

《잠간 앉아있어요.》

현아는 나를 눌러앉히고 밖으로 나갔다. 비는 어느새 멎고 기운이 꺾인 우뢰소리와 함께 처마끝에서 떨어지는 락수물소리만이 가락맞게 울려왔다.

나는 방안을 빙 둘러보았다.

한쪽벽에는 얇은땀이책상이 놓여있고 그우에 있는 자그마한 책꽂이에 두툼한 책들이 가득차있었다. 거의가 농업대학교재들이었다.

(허, 이악이 보통이 아닌데.)

나는 현지실습기간에도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열성스레 파고드는 현아의 탐구심과 정열에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책상우에 종이장들이 가득 널려있었다.

무심히 들여다보던 나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분명 《버들천》 개조도면이었다. 포전 한가운데로 시원하게 건너간 《버들천》 중간에 흘러든 새물길이 특별히 눈길을 끌었다.

밖에 나갔던 현아가 김이 문문 나는 강냉이 몇이삭을 손에 들고 들어왔다.

《그동안 혹시 앓은게 아니요?》

나는 강냉이이삭을 받아들며 근심스레 물었다.

《아이참, 언제 앓을새나 있어요. 우리 논들이 물을 목마르게 기다리고있는데... 대학에 좀 다녀왔어요.》

《대학에?! 그러니 이젠...》

《선생님들의 방조를 받았어요. 명석동무 보기엔 어때요? 제 생각엔 <버들천>도 보수하고 청암골의 물을 우리 포전들에 끌어들이자는거예요.》

《청암골의 물은?》

나는 현아의 말에 깜짝 놀랐다. 청암골이란 오지에서 5리가량 떨어진 강냉이밭등성이뒤에 있는 자연늪이었다. 갈대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개구리들이 침범거리는, 아무 쓸모없이 골안에 누워있는 늪, 이를테면 《죽은 물》이었다.

《전 청암골의 <죽은 물>을 우리 포전의 생명수로 만들자는거예요. 강냉이밭등성이만 조금 에돌면 양수기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물을 끌어올수 있을것 같아요. 말하자면 자연흐름식물길을 건설하자는거예요.》

현아의 착상은 기발했다. 그리고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어보였다.

그러나 나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5리구간에 웅크린 하나의 물길을 짚는 일은 결코 도면이나 밭기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측량도 해야 하고 구체적인 공사계획도 세워야 한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공사를 치를만 한 노력이다.

불보듯 뻔한 《버들천》 보수문제도 아닌보살하는 사람들이 덕을 보겠는지도 모를 새 물길공사를 제기하면 어떻게 나오리라는거야 충분히 알수있는 일이 아닌가. 게다가 청암골의 물량으로 송산들과 오지들의 물을 다 보장할수 있겠는지...

《현아동무, 내 생각엔 너무 조금해하지 말고 좀더 연구해보는게 좋을것 같소. 생각은 좋은데... 하지만 여러모로 타산해보는게 좋지 않겠소. 노력, 자재, 시일... 또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 책임일꾼들이 선뜻 찬성해나서겠는지도 문제고... 그러니 잘 타산해보고 올해나 지나보낸 다음에 ...》

나는 말을 다 끝맺을수 없었다. 현아의 격한 말소리가 울렸기때문이었다.

《그러니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을수 밖에는 없다는 말인가요.

섭섭하군요. 그래도 전 명석동무가 저를 적극 지지해주리라 믿었어요.

동무처럼 여기에 걸려 안되고 저기에 걸려 못하는 식으로 주저앉는다면 우리가 무슨 청춘이겠어요. 래일에 가셔도 결국 값죽은 동정이나 베푸는 식으로 물문제를 해결할수 없을거예요.》

《허허허.》

나는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이제 머지 않아 떠나야 할 그의 입에서 래일소리까지 나왔으니 그럴수 밖에 없었다.

현아도 그것을 느꼈는지 얼굴을 활짝 붉히며 입을 감쳐물었다.

《현아동무, 너무 걱정하지 마요. 지금껏 이렇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하루아침에야 어떻게 달라지겠소. 물문제는 우리 주인들이 어련히 해결하지 않으리...》

《그러니 전 손님이라는거지요?》

현아의 얼굴은 더 붉게 상기되었다.

《섭섭하군요. 정말...》

현아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아동무!》

《됐어요. 난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람이니 상관하지 말라는거지요? 주제님께 나서지 말라는거지요? 하지만 난 그렇게 할수가 없어요. 어쩌면 동무가 그렇게...》

현아는 끝내 포전막을 뛰쳐나갔다.

나는 저으기 당황해졌다.

애초부터 말썽이던 물문제가 끝내 우리들사이에 이런 충돌을 불러온것이다.

×

며칠후.

작업반마당에서 나를 만난 분조장은 무작정 내 어깨를 쥐어박으며 법석 떠들어댔다.

《명석이, 자네 정말 좋은 처녀를 후려냈더군그래.》

《에-에?》

아닌밤중에 흥두깨같은 소리에 나는 어리둥절해졌다.

《허, 모르쇠를 말라구. 방금 현아가 여기 왔다갔는데두?》

《현아가요?》

점점 맥락이 닿지 않는 분조장의 말에 나는 더욱 얼떠름해졌다.

《이것 보라구. 그 처녀가 가져온거야.》

분조장은 손에 들고있던 종이두루말이를 내 눈앞에 펼쳐보였다.

그것은 언제인가 현아의 포전막에서 보았던 《버들천》 물길개조설계도면이었다. 다른 종이장에는 물길공사전투를 짧은 시일안에 능히 끝낼수 있는 타당성이 설명되어 있었다.

전투에 필요되는 로력과 자재, 농기구들과 한명당 하루작업량은 물론 소비되는 공수까지 정확히 계산된 바늘귀 들어갈 틈도 없이 면밀한 하나의 전투작전도였다.

《글쎄 이것을 척 내놓으며 딱딱 설명하는데 나도 그렇고 작업반장도 입을 딱 벌렸더니까. 송산작업반장도 물길공사를 협력하자고 현아와 함께 왔다 갔네. 그 사람의 말이 현아가 수리공학연구소에 까지 찾아가서 거기 전문가들의 방조를 받아 청암골에서 여기까지 양수기를 쓰지 않고 자연흐름식으로 물길을 낼수 있는 방도를 찾았다는거야. 며칠밤을 새워 현지를 밟아보며 설계도 하고… 그리고 현아네 농업대학에서도 적극 지지해나섰다는거야.》

분조장은 무슨 말인가 더 했으나 나에게는 이미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비오는 날 밤, 나를 야속한 눈길로 바라보며 뛰쳐나가던 현아의 모습만이 가슴저리게 안겨올뿐이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텐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고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것인가.

그앞에 머리가 절로 숙어짐을 어쩔수 없었다. 현아의 발기를 두고 한갓 책상올림처녀의 공상으로 여기면서 두발벗고 함께 나서지 못한 자신에 대한 환멸과 수치감이 나의 온몸을 휩싸고 돌았다.

《관리위원회에서도 현아의 발기를 적극 찬성했네.

역시 젊은이들 생각하는 품이 달라.

명석이, 우리 <버들천>도 보수하고 청암골의 물도 끌어들이자구. 허허허.》

나는 기쁨으로 하여 너무죽해진 분조장의 주먹코를 뜨겁게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오지를 물관리공으로 추천할 때 이런 날을 바란것이 아니였을가. 그래서 말 끝마다 농산기수소리를 입에 올렸고 어떤 때는 빈정거림과 혼시도 마다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런데 나는…

불쑥 현아가 보고싶어졌다.

어둑어둑 땅거미가 저오는 들판은 개구리울음소리로 차넘쳤다.

현아는 포전을 돌며 나비등에 불을 달고있었다. 한배미 두배미… 마치 아기를 보살피는 어머니처럼 사랑스러운 이 땅에 끝없는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가는 그의 미더운 모습을 나는 점도록 바라보았

다....

며칠후부터 《버들천》 보수공사와 청암골물길공사는 동시에 시작되었다.

두 농장사람들과 군안의 지원자들까지 달려온 공사장은 뜨거운 열기로 부글부글 끓어번졌다.

그 불길은 현아가 한점의 불꽃이 되어 지퍼올린 것이었다.

나는 애어리고 연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처녀, 책상올림의 실습생으로만 여겼던 현아의 정열과 일본새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하다면 그와 나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것인가.

《현아》 라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거울앞에서 자기의 진면모를 드러낸 《명석》 이라는 인간은 부닥친 난관앞에 불평이나 늘어놓는 무맥한 존재였던것이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청춘의 리상이 아무리 높다한들 이 땅에 진심을 묻지 못한다면,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앉아 걱정이나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한갓 욕망으로, 허세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현아의 참된 모습에서 나는 삶의 자세부터 배우게 됨을 어쩔수 없었다.

그날 휴식참에 나는 현아와 함께 푸르른 들판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서 노래를 불렀다.

조국과 함께 걷는 오늘의 행군길

래일의 추억속에 아름다우리

문지 말아 우리 심장 왜서 불타는지

말해줄거야 우리 래일이 말해줄거야

우리의 절절한 노래소리는 저 멀리 평양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현아의 계획대로 공사전투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끝났다.

그날밤.

나는 몰라보게 변모된 《버들천》 과 새 물길을 떠나고싶지 않아 잔디가 주단처럼 깔린 동독우에 드러누워 있었다.

벼꽃이 피기 시작한 들판우에 하늘의 별이라도 내려앉은듯 나비등불빛이 쉬임없이 깜박거렸다.

개구리울음소리가 요란스레 울려온다. 한뼘도 못되는 키에 푸른 눈알이 툭 불거진 들의 가수들은 기운찬 물소리와 한데 어울려 장중한 들의 교향악

을 연주하고있다.

유난한 달빛이 무르녹아 내리는 들판의 밤은 제 나름의 정서로 매혹적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주위의 모든것이 허전하게만 느껴졌다.

문득 그 감정이 어느날 현아가 보이지 않던 들판에서 느끼던 그런 감정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아가 없는 들판은 막이 내린 무대처럼 쓸쓸하고 허전했었지. ...그리고보면 현아는 이 풍요한 들판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처녀인가.

《현아!》

나는 달을 향하여 입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았다.

첨병!

갑자기 요란한 물소리가 울렸다.

《버들천》 물고에서 누군가 어물거리고있었다. 다가가보니 그 사람은 뜻밖에도 현아네 분조장이었다.

《어, 마침 있었군.》

키가 늘씬하고 수염터가 꺼밋꺼밋한 그의 입술 귀퉁이에서 웃음이 벅글거렸다.

《이 밤중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아가 떠나면서 자네에게 부탁한것도 있구해서...》

《떠나다니요?》

나는 분조장의 말에 펄쩍 놀랐다.

《현아는 이미 한달전에 돌아가야 할 몸이었지. 실습기간이 끝났거든. 그런데도 물문제때문에 대학과 토론해서 실습기일을 연장시켜오다가 오늘 저녁차로 급히 갔다네. ... 졸업논문집필이 긴박해졌나봐.》

분조장은 감심한 표정으로 두눈을 슴벅거렸다.

나는 야릇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이건 현아가 자네한테 보내는걸세.》

분조장은 나의 손에 자그마한 책 한권을 쥐여주었다. 눈에 익은 책이었다. 언제나 현아의 손에서 떨어질줄 모르던 실습일지였다.

그속에 네겹으로 접은 편지도 있었다.

《명석동무 인사도 없이 떠나는 저를 욕 많이 하세요. 그동안 많은것을 배우고 갑니다.

그토록 사랑스럽고 소중한 들판과 헤어지자니 어쩐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군요. 하지만 저는 새

로운 결심을 가다듬으며 떠나갑니다.

명석동무, 전 구태여 작별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원히 떨어져살수 없는, 너무나 깊은 정으로 뜨겁게 이어진 사랑하는 이 땅으로 저는 반드시 돌아올거예요.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들판에서 만났던 한 처녀의 소박한 진정으로 아시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들을 더 잘 가꾸어주세요...》

나는 편지를 더 읽을수가 없었다. 가슴속에 솟구친 뜨거운것이 목을 꽉 채웠다.

현아, 정말 고맙소! 기다리겠소!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엔 서로 힘을 합쳐 오지들과 송산들의 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요. 그다음은 정보산업의 시대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을수 있게 우리의 지식과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보자요. 목표는 물론 방대하고 아름답지만 우리야 이 땅의 당당한 주인이 되어야 할 새 세대가 아닌가요. 제가 그동안 들판을 가꾸면서 생각되는것들을 적어본것이니 명석동무가 한번 봐주었으면 고맙겠어요.》

나는 들바람에 닳고 비물에 젖은 자리가 뚜렷한, 구수한 흙냄새와 현아의 땀냄새가 한데 어울려 풍겨오는 수첩을 한장두장 번지기 시작했다.

순간 나의 눈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된 풍요한 전야가 한쪽의 그림처럼 자기자태를 드러 내기 시작했다.

컴퓨터화가 실현되어 모내는 시기와 모살이시기, 비료주는 시기와 가을걷이시기는 물론 영농공정의 모든 단계가 토양조건과 기후조건에 맞게 가장 과학적으로 선택되고 진행되는 시대, 새 세기에 어울리는 전야의 새 풍경, 오탁백과 설레이는 우리 조국의 풍요한 대지의 새 모습이였다. 과연 그때의 우리의 땅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우며 사랑스러울 것인가!

그것은 결코 먼 후날의 일이 아니거늘, 현아와 같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짱그리 불태우는 새 세대주인들이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갈 때 풍요한 우리의 전야는 그렇듯 새롭고 참신한 매력으로 그대들의 눈길을 끌게 되리라!...

다음해 화창한 봄날, 현아는 송산농장의 기술부원으로 배치되였다.

이렇게 우리는 들판에서 다시 만났다.

수필

삶의 뿌리

박상민

아름드리 거목도 한알의 자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연약하고 자그마한 씨앗을 품어안아 새싹을 틔워주고 온갖 영양소를 주어 억센 거목으로 키워주는 크나큰 어머니대지의 품!

만물이 초록단장을 하고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봄날.

나는 과학원의 한 청년과학자로부터 집에 꼭 들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퇴근길에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이미전부터 나와 류다른 친교관계를 맺고있는 그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나를 찾곤 하였던것이다. 오늘은 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는지, 심혈을 바쳐 가던 연구사업이 드디어 성공한것일까...

집에 들어서서는 나를 반갑게 맞아준 청년과학자부부는 무작정 창문가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저길 좀 보십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고층살림집에서 곧바로 바라보이는 과학원정문.

그우에 새겨진 붉은 글발.

《나는 과학을 중시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아로새긴 글발을 바라보며 그는 젖어드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오늘따라 저 정문의 글발이 왜 그리 가슴뜨겁게 안겨오는것인지...》

그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한참후에야 그는 갈린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사실은 오늘이 저의 장인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어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받아안은 날입니다.

30여년전 오늘 장인의 삶의 뿌리가 어머니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에 내리기 시작하였습니

다. 일본땅 거친 풍파속에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며 함지에 담긴 물에라도 빠져죽고싶은 설음을 안고 살던 저의 장인이였습니다. 그러던 장인이 어머니조국의 품속에 안겨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푸르른 아지를 펼치고 거목으로 자라기 시작한 날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벽에 정중히 모셔진 한상의 사진을 우려했다.

청년과학자들과 마주 앉으시여 환하신 웃음을 지으시고 정력적으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모습, 바로 그 청년과학자들속에 그의 장인도 있다.

이 집에 올적마다 보는 사진이지만 오늘은 류달리 의미깊게 보이는 사진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끌려들어갔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봄날 《만경봉》호 갑판에서 젊은 안해의 손을 꼭 잡고 점점 다가오는 조국땅을 녀없이 바라보는 청년 광정태.

어린 시절 너무도 가난하여 언제 한번 배불리 먹어보지 못하고 자라다나니 남달리 키가 작아 일본 아이들속에서 《도마도》라 불리우며 갓은 멸시속에 자라난 그였다. 날마다 참기 어려운 멸시와 모욕을 받으며 그는 내 기어이 공부를 잘하여 너희네 왜놈새끼들을 짓눌러버리고야 말리라는 굳은 결심을 품게 되었다.

피터지게 공부하여 드디어 바람세찬 해협을 건너 규슈에 있는 공업대학에 입학하였다. 일본학생들 보란듯이 단연 최우수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어느 한 금속회사에 들어가 언제인가는 꼭 세계적인 발명을 하여 조선사람의 이름을 떨치리라는 꿈을 안고 연구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쳤다.

그러나 그 꿈이 한갓 허망한 일장춘몽으로 끝날 줄이야 어찌 알았랴.

새로운 합금재료를 연구한 그를 《축하》한답시고 연회장에서 마취제가 섞인 술을 먹이고 그의 연구론문을 훔쳐낸 왜놈들,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몸

부림치고 하소했으나 도리어 《불순한 명예획득을 위한 거짓문본실사건》이라는 오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돈 한푼 쥐면 손에서 땀이 난다는 일본땅, 돈을 위해서는 승냥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 저주로운 땅에서는 누구도 그를 동정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쓰거운 뽕소를 머금고 《패배자》인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다.

일본땅을 통채로 가루내어도 시원치 않을 분노로 하여 그의 두눈에선 피눈물이 쏟아져내렸다.

자기를 안아주고 보살펴줄 따뜻한 품을 목매어 부르는 그를 안아준것은 위대한 어머니조국의 품이었다. 총련조직을 통하여 조국에 대하여 알게 되고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사람모두의 운명을 따사로운 손길로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의 품에 대하여 알게 된 그는 드디어 저주로운 일본땅을 떠나 은혜로운 그 품에 자기의 진정한 삶의 뿌리를 내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조국으로 찾아온 그를 친히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풍파사나운 이역땅에서 꿈도 희망도 다 짓밟힌 그의 가슴속 아픈 사연을 다 헤아려주시면서 그가 자기의 소원인 과학연구를 마음껏 할수 있도록 크나큰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때로부터 그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과학연구성파로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었다...

《저의 장인은 마지막순간에 병석에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그 사랑에 다 보답하지 못하고 가는것이 안타깝다고, 너희들이 대를 이어 과학연구성파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어 달라는 절절한 부탁의 말을 남기었습니다.》

청년과학자의 이야기는 나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 주었다.

거치른 이역땅에서 바람부는대로 날려다니며 짓밟히고 억눌리우던 연약한 씨앗과도 같은 존재였던 한 과학자를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안아 어머니조국의 대지에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희망의 푸른 가치를 한껏 펼치게 해주시어 우리 주체과학의 한그루 억센 거목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태양의 품!

만약 어머니조국의 품,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것인가. 움도 제대로 퇴워보지

못하고 사나운 바람결에 스러지고 말았으리라.

이것이 어찌 한 귀국동포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하랴. 그것은 이 땅에 생을 둔 수많은 과학자들, 그들모두가 삶의 뿌리를 억세게 내리고 희망의 푸른 가치를 한껏 펼칠수 있도록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기에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 있다.》고 소리높이 웨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과학기술성파로 받아들여갈 충성의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는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슴 달아오른 나에게 청년과학자는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평범한 과학자였던 저의 장인의 소원을 헤아려 네 딸모두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졸업후에는 과학연구기관들에서 아버지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은정어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전에는 셋째딸이 아버지가 연구하던 금속재료를 완성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가슴뜨겁게 울리는 그의 말을 듣노라니 창문너머로 바라보이는 붉은 글밭이 더욱 가슴을 치며 안겨왔다.

《나는 과학을 중시합니다.》

우리 과학자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있는 글밭.

그렇다.

사랑과 믿음은 힘을 주고 기적을 낳는 법이다.

세상에서 제일로 우리 과학자들을 사랑하시고 과학을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과학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과학자로 자기의 희망과 꿈을 마음껏 꽃피워가고있고 우리의 주체과학은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떠받드는 억센 기둥으로 힘차게 전진해가고있는것이다.

과학자들만이 아닌 이 땅에 생을 둔 천만사람 모두를 따듯이 품어안아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 **김정일**장군님의 품.

그 품에 삶의 뿌리를 내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것인가.

나는 깊어지는 생각을 안고 과학지구 불밝은 거리에 나섰다. 우리 과학자들의 참된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글을 반드시 쓰리라 결의를 다지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현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과학과 기술은 경제적인보의 기초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과학기술을 출시하는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다.》

《우리의 과학은 인민을 위한 과학, 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한 과학으로 되어야지 과학을 위한 과학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과학탐구의 길에서 성공의 열쇠는 오직 불라는 열정과 꾸준한 노력에 있다.》

《과학에 한생을 바치려는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전에 열렬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과학자와 병사들 외 1편

리진철

험한 령길 끝나는
산기슭의 갈림길에서
문득 벗어나는 포차 한대
천리 먼 행군길에 단 몸을 식히려는가

허나 포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탐사마치든 안경 낀 사나이
뒤따라 병사들 마주 들고 내리는
보기에다 목직한 시료배낭

아마도 이들이 만난 곳은
달빛도 없는 숲속
굽이굽이 가파로운 령길
그 어느 중턱에서였으리

병사들의 행군길 지체시킬세라
지질학자는 두손 내저으며 사양하고
탐구자가 가는 길 앞당겨주려
병사들은 기어이 포차에 끌어올리고

깊은 밤 험한 령 함께 넘으며
서로의 정은 더욱 깊어졌으리

총대가 없인 탐구의 요람이 없고
과학이 없인 조국의 번영이 없기에

이 새벽 갈림길엔
숲의 향기 넘치는데
틀어잡은채
오래도록 놓지 못하는 손과 손
-조국의 방선을 부탁합니다-
-조국의 래일을 부탁합니다-

오, 총대와 붓 들어진것은 달라도
그것은 똑같은 애국의 무기
탄약과 광석 등에 진것은 달라도
그것은 똑같은 조국의 무게
그들은 이미 한전호에 선 전우!

어찌 작별이 있으랴
한전호에 선 이들에게
어찌 갈림길이 있으랴
하나로 이어진 이들의 앞길에
병사와 과학자들 굳게 결은 어깨성우에
조국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으리!

웃음과 눈물에 대한 시

피발진 눈들엔 번쩍이는 물기...
부르튼 입새로는 떨리는 흐느낌...

성공이여!
너는 무엇이기에
이날에 웃자고 모아둔
그 웃음마저 다 적셔버리는가

폭발한 시험로앞에선
억이 막혀
눈물이라도 짹!- 쏟아졌으면
했건만 그날의 실패는
가슴속의 눈물마저 다 태워버렸던가

가슴속 눈물이야
어찌 가리울수 있으랴만
우리는 애써 웃음을 지었지
조국의 미래 밝혀가는
탐구의 머나먼 길 눈물로는 갈수 없어

눈물을 씹어삼키며
다시 일어서길 그 몇번

그날의 젖은 웃음 마주보며
우린 서로 심장의 말을 나누었지
성공의 그날엔 마음껏 웃음을 터치자고

했건만 그 약속을 잊었는가
얼굴을 싸쥐는 실험공처녀야
흐느끼며 주저앉는 친구들아
-이런 때야 웃어야지 ...
하면서 저편으로 돌아서는 로박사
그의 눈가에도 손수건이 오르고

그래도 좋구나
우리들이 웃으려던 웃음
이제 어머니조국이 더 크게 웃으려니
부강해질 조국의 미래앞에
가슴속의 천만피로움도 순간에 다 씻기니
눈물도 이런 눈물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성공의 이 시각
웃음대신 솟구치는 눈물
그것은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탐구자의 밝은 웃음이다!

버드나무아래서

로경철

처억, 처억...
군대들이 지나간다
그뒤엔 공원에서 놀던 조무래기들
와-와 뒤쫓아가고...
나는 늘어진 버드나무아래서
이 저녁 멀리 훈련길가는
병사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발자국
내 걷는 이 길에 찍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남겨놓았구나
포연에 끼슬지 않은 저 붉은 저녁노을
그 아련 일터에서 돌아오는 처녀들 웃음소리
내결의 버드나무들

천만아지 머리숙여 병사들을 바래우는듯
지금
선군시대 벅찬 생활이
제 모양 제 목청으로
한껏 이 땅의 평화를 말하고있나니
그들이 남기고 간 이 아름다운 저녁에
내 할일만이 가득찬듯 싶구나

버드나무잎새 바람에 설령인다
하나, 둘... 불켜지는 살림집 창문들이
내 마음에 화답하는가
아름다운 저녁이여
너는 과학자의 이 마음속에 드리워져

너무도 많은 생각을 퍼내나니

그들이 지켜가는 평화로운 이 조국에서
그만 과학자가 제 구실을 못하여
이 강산의 뼈와 살인 귀한 재부를
두손에 받쳐든채
남에게 구걸해야 한다면...
나도 모르게 소스라쳐지는 생각이여
총이 녹쫄면 조국잃은 노예가 된다 하지만
붓이 무디면 오, 그러면
제 조국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얹매이게 될것 아닌가

파아란 버드나무잎사귀
행복의 손처럼 흔드는 거리
와-와 군대들을 따라갔던 꼬마들이
대결을 지나간다
나는 그만 한 아이를 부쩍 안아

말없이 불을 부빈다

오, 천진하고 귀여운 이 애들앞에서
내 조국이 제일이라 말할 때
총이여, 너는 네가 지킨 강산을 이야기하라
붓이여, 너는 네가 가꾼 만복을 이야기하라

처억 처억 ...
이미 사라진 병사들의 발걸음소리
그냥 가슴에 남아 처억 처억...
나는 그들앞에 말하고싶구나
나도 내 조국을 지키는 붓을 쥔 초병이라고!
자욱자욱 그들을 따라가듯
나는 걷는다
저기- 조국의 래일이 기다리는
실험실 불밝은 창문이 환히 웃으며
나를 부르네, 나를 찾네

나는 과학자의 안해

허 일

이 아침 출근길에서
연구소로 달음치는 남편을 바래올 때면
절로 깊어지는 생각
가슴뿌듯한 이런 순간이면
강성대국의 지름길 앞장서 열여가는
선군시대 척후병들속에 그이 있다는...

생각하면
과학의 주로에서 한발자욱 떨어져도
너나없이 보이지 않는 사슬속에
자기 운명이 묶이우게 되는 오늘의 현실-

그래서 내 어렵던 시련의 나날
부엌의 비여가는 쌀독보다
남편의 사색에 빈곤이 숨새들가
더 마음쓰며 속태웠어라

힘들지 않았어라
가정의 크고작은 일 혼자서 걸머져도
애오라지
그이의 연구성과만을 바라온 마음에

지금도 추억하면 북받치는 감격-
과학원을 찾으신 아버지장군님

첨단과학연구성과앞에서
환히 웃으시며 만족해하실 때

연구사동무가 정말 수고했다고
착상이 기발한 동무라고
저의 남편의 두손
오래도록 다정히 잡아주실 때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속에
진정으로 되새겨본것 무엇이던가
과학자의 안해인 나도
영광의 그 순간에 함께 있다는 긍지

하기에 이 아침
뜨거운 믿음속에 남편을 바래올 때면
불같은 자각이
가슴에 가슴속에 고래치나니

선군시대 이 땅에 사는 너인들중에
군인의 안해가 제일이듯
그들처럼 나도 살리라
장군님을 붓대로 받드는 과학자-
그 붓대의 받침목으로
내 한생 살리라

종자가 살아야 성격이 산다

-장편소설 《의리》를 읽고-

민병철

오늘 우리 소설문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조치에 따라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한 장편소설창작이 힘있게 벌어져 새 세기 선군혁명문학의 화원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를 형상한 장편소설의 창작은 그 주제의 공통성과 원형인물들의 감옥생활의 류사성으로 하여 창작에서 어려운 문제와 고충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많겠지만 기본은 비전향장기수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을 개성적으로 뚜렷이 살려내는 문제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은 묘사의 문학, 성격의 문학인것만큼 개성적인 성격형상의 창조가 없이는 실화보다 흥미가 없게 될수 있으며 창작적성과를 논할수 없는것이다.

30~40년 감옥생활경력을 가진 비전향장기수원형들을 어떻게 개성적인 시대의 전형들로 창조하겠는가 하는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창작적과제가 아닐수 없다.

장편소설 《의리》(김덕철작)는 하나의 미학적대답을 명백히 주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종자가 살아야 성격이 산다는것, 설익은 종자에서는 산유기체가 생겨날수 없듯이.

종자는 성격의 기본바탕이며 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종자와 성격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종자로부터 성격이 규정지어지게 되며 성격형상을 통하여 종자가 형상적으로 꽃피게 된다는것은 주체적창작리론이 밝혀준 근본원리이다.

장편소설 《의리》는 무엇보다도 종자의 명확한 발견이 성격의 바탕을 주고 성격의 핵을 찾을수 있게 한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좋은 종자를 발견할 때 비전향장기수 주인공의 산 인간성격의 바탕과 핵을 찾을수 있다는것이 장편소설 《의리》

의 창작실천적대답이다.

이 소설제목이 보여주듯이 의리, 이것이 비전향장기수 원형인물들의 생활과 투쟁사실에 대한 작가의 사색을 거쳐 나온 이 소설의 생활의 사상적알맹이이다.

비전향장기수주제의 소설들에서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문제로부터 혁명가의 신념에 대한 문제, 변심없는 혁명가의 량심문제, 불굴의 의지에 대한 문제, 조국애와 동지애에 대한 문제, 인간의 참된 재부문제 등 의의있는 문제를 취급하였다.

이 소설은 그 어느 작품과 반복되지 않게 의리에 대한 문제를 찾아봄으로써 주인공 김철만의 생동한 인간성격, 개성적이고 인상깊은 비전향장기수의 모습을 창조할수 있었다.

작품의 종자는 결코 범박한 개념인것이 아니라 비전향장기수 원형인물들의 피어린 생활속에서 체험된 심장의 호소이며 작가의 뜨거운 공감속에 발견해낸것이다.

30년을 0.75평밖에 안되는 교도소의 감방에서 온갖 살인적인 고문과 보통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유혹을 이겨내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혁명적신념을 지켜낸 인간적힘이 어디에 있는것인가, 여기에 장편소설 《의리》의 심오한 문제성이 있다.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감옥에서의 생활, 그러나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은 무엇이였는가.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혁명적의리를 지키는것이였다. 비전향장기수의 생활의 본질은 참된 인간으로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있으며 그들이 그 간고한 환경속에서 끝까지 수령의 사상을 지키고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은 근본비결은 혁명적의리에 있다.

비전향장기수의 생활에 대한 심오한 사색과 탐구를 거쳐 가슴뜨거운 흥분속에 발견한 종자는 분명히 무르익은 종자이다.

의리에 대한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는 주인공 김철만의 남다른 성격적기질과 성격적바탕을 찾을수 있게 하였다. 하여 주인공 김철만은 어린 시절부터 모진 생활고속에서 정에 눈물겨운 인간으로 설

정되고있다.

그가 지닌 혈육에 대한 인정은 지극하다. 그는 어렸을 때 앓고있는 동생에게 사과 한알 먹이지 못했던 죄책감으로 하여 고향집에 사과나무를 많이 심어가꾸는것을 소원하던 류다른 사람이었다.

작품은 이렇게 혈육에 대한 의리가 남달리 지극했던 주인공 김철만이 어찌하여 가족과 친척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모르는 《맹혈인간》으로 규탄받으면서도 전향할수 없었는가를 형상하는데 모를 박고있다.

주인공은 조카에게서 친척도 혈육도 모르는 《맹혈인간》으로 저주받으면서도 30년동안 혁명가의 지조를 지켜 싸움으로써 조카가 큰아버지가 가슴에 지닌 그 의리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한다.

큰아버지를 형제들과 조카들앞에 《도리》도 지킬줄 모르는 인간으로, 혈육도 모르는 《맹정한 인간》으로 증오하고 저주하던 조카가 큰아버지가 지켜온 의리와 도리를 깨닫게 되는데서 작품은 주인공의 성격을 규정짓는 종자를 밝히고 강조한다.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절 용서하세요. 전 오늘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큰아버지는 정말... 정말 훌륭한분이예요.》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인공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혈육에 대한 의리가 뜨거웠지만 감옥에서 끝까지 지조를 지킨것으로 하여 그 의리가 불신과 오해를 입고 가족들의 《저주》를 받는데까지 이르렀다. 적들은 그가 지닌 혈육과 가족에 대한 의리에 심리적자극을 주어 심한 고통을 주려고 악착하게 달려든다.

주인공은 혈육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하고 지어 《맹혈인간》으로 저주를 받으면서까지도 신념으로 간직한 수령의 사상을 지키는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거나 동요를 모른다.

작품은 의리라는 사상적알맹이를 발견함으로써 주인공의 성격의 근본바탕을 명백히 하고 그로부터 형상의 초점이 종자해명에 집중되도록 할수 있었다.

장편소설 《의리》는 종자의 발견으로 하여 성격의 핵도 명백히 규정지을수 있게 되었다.

종자로부터 주인공의 성격적바탕이 형성되고 그러한 성격적바탕우에서 성격적핵이 자연스럽게 규정지어지게 된것이 이 작품의 형상에서의 근본묘리라고 할수 있다.

일찍부터 혈육에 대한 인정이 뜨겁고 지극한 인

간이기에 주인공은 동지들속에서 더 큰 의리를 알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크나큰 혁명적의리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까지 이른다. 결국 주인공의 성격의 핵은 수령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신념으로 간주하고있는데서 규정된다.

혈육에 대한 의리, 동지에 대한 의리가 남다른 주인공이 30년 긴긴세월 무죄도 착아버렸을 철창속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혁명적의리가 투철했기때문이라는것을 작품의 형상이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다.

주인공은 해방전 고향땅에서 것처럼 가고싶은 학교도 가난때문에 그만두고 한알의 사과때문에 눈물겨운 불행을 당해야 했지만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시기 어버이수령님의 품에 안겨 전문학교를 나오고 파수기수가 되어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였다.

그는 수령님을 두차례나 몸가까이에 모시였던 그 영광의 나날에 사랑하는 전사 태백산빨찌산대장 박동근의 가족을 찾아 북으로 데려오도록 하신 수령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알게 되며 그 세계를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철창속에서도 그 세계를 지켜 싸운다.

신상군에서 군인민위원회 파수지도원(당시)으로 있던 시기 수령님을 두번째로 만나뵈고 걱정을 터치던 그날을 그는 어느 하루 잊은적이 없었다.

아, 수령님. 이처럼 무한하고 뜨거운 사랑과 의리의 품에서라면 백번 죽은들, 천번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그날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안고 주인공은 매일 저녁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던 그날들에 마음을 세워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그 크나큰 믿음과 가장 고귀한 의리를 빼가 부서지고 살이 찢겨지는 고문과 0.75평의 차디찬 감방안에서 고이 간직하고 지켜나갔다.

《내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을 저버린다면 무슨 사람이겠소! 난 죽어도 그 사랑과 믿음을 저버릴수가 없었소.》

작품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주인공이 30년동안 철창속에서 혁명적신념을 지킬수 있는것이 바로 목숨과도 바꿀수 없는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며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님의 무한대한 의리의 세계를 가슴깊이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성격에 수령님에 대한 의리라는 기본핵을 깊이 심어나갔으며 그 종자를 꽃피우는 파

정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적특성이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하였다.

장편소설 《의리》에서는 심장의 체험과 심각한 철학적사색을 거쳐 종자를 발견하였기에 주인공의 성격적바탕과 핵을 명확히 규정지을수 있었으며 비전향장기수의 전형적성격이 산 인간형상으로 창조될수 있었다. 만약 작품에서 종자를 바로잡지 못하였더라면 주인공 김철만의 의리에 투철한 성격,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적들의 심리전을 이겨내는 개성적인 성격형상이 창조되지 못하였을것이다.

작품은 비전향장기수의 생활과 투쟁사실에 대한 깊은 체험과 철학적사색을 거쳐나온 의리라는 사상적핵을 성격속에 깊이 심어나감으로써 통일애국투사의 인상깊은 전형을 창조할수 있었다.

종자를 든든히 틀어쥔데 이 소설이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같은 주제, 원형인물의 유사한 감옥생활을 소재로 하는 창작조건에서도 성격이 뚜렷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하여 성공할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할수 있다.

종자는 개성적인 성격묘사와 전제

종자가 성격의 바탕과 핵을 규정지을뿐아니라 개성적인 성격을 묘사할수 있게 하는 형상전제로 된다는것을 장편소설 《의리》는 또한 확증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확인 문화에서 생활을 그린다것은 인간 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그린다것을 말한다.》

작품에서는 사람마다 체나름으로 구체적이며 개성적인 생활을 그릴 때라야 산 인간형상이 창조될수 있다. 비전향장기수를 형상한 소설창작에서는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신념과 의지의 인간들, 30~40년을 감옥생활한 영웅적인 불굴의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산 인간형상으로 창조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려운 창작적과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장편소설 《의리》는 종자를 형상적디딤돌로 하여 개성적인 성격을 묘사하는데서 긍정적인 시사를 보이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을 비롯하여 비전향장기수들과 박동근과 그의 안해 리숙희, 그리고 처녀대학생 은주, 조카 광수 등의 개성적인 모습

이 방불히 안겨오는것은 바로 종자에 기초한 남다른 성격과 생활을 특색있게 묘사하였기때문이다.

주인공 김철만은 비전향장기수로서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확고하며 불굴의 의지를 가진 투사이면서도 의리에 남달리 지극한 사람이다. 그는 겉으로는 《화석화》된듯 싶은 모습이지만 피어린 투쟁경로와 눈물겨운 인생행로를 겪어오면서 가슴속에 고이고 고인 인정의 샘물에 못견디는 사람이다.

주인공이 겉으로 흘릴수 없는 인정의 눈물이 가슴에 차넘치는 의리의 인간으로 개성적으로 그려지게 된데는 바로 이 소설이 종자를 옳바로 찾아쥔데 있다.

소설은 주인공이 인정의 인간이 되게 된 깊은 생활의 사연을 사파 한알에 대한 특색있는 세부묘사로 깔아주면서 감옥에 잡혀온후 가족들과 동지들과의 사이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생활묘사으로써 개성적인 인간모습으로 인상깊게 묘사하였다. 특히 가족들과의 면회장면들에서의 생활묘사는 종자로부터 환기된 눈물없이는 볼수 없는 극적이면서도 정서깊은 생활묘사로서 주인공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가족들과의 면회장면의 생활묘사에서는 겉으로는 표현할수 없는 주인공의 눈물겨운 인정세계로 하여 깊은 감명을 주고 주인공이 지닌 의리의 세계를 정서적으로 감득하게 한다. 어머니와의 면회, 동생 철하와의 면회, 조카 광수와의 면회장면들은 주인공의 생활묘사에서 기본자리를 차지하면서 성격적개성을 두드러지게 한다.

어머니와의 두번째 면회장면묘사가 인상적이다.

23년만에 만나는 어머니, 머리가름을 곧추내고 비너를 꼴은 어머니가 흰 치마저고리에 흰 고무신을 신고 둥근 책상앞에 단정히 앉아있다.

할말은 많았으나 무슨 말을 하랴. 망두석처럼 서서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어머니!》를 부르며 두팔로 꼭 그러안은 주인공의 가슴에 넘치는 인정의 바다, 가지고 온 꾸레미와 봉투를 내밀며 흐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그러나, 울수 없었고 울어서는 안되였다. 눈물이 《전향의 서곡》이라고 하는 놈들이 지켜보기때문이다. 절반은 속으로 부르짖는다. (어머니! 울지 마십시오. 어머니도 아시겠지요? 이 아들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있는것을!... 눈물이 피눈물로 되어 가슴을 다 녹일지언정 이자들의 앞에서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가슴속에는 눈물의 바다가 차고넘치지만 눈물을

보일수 없는 주인공의 이 극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가 없다면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성격형상이 그렇듯 선명하게 개성적으로 살아나지 못했을것이다.

어머니와의 두번째 면회장면과 동생 철하와의 면회장면에서도 극적인 세계를 펼쳐였지만 주인공이 가슴속에 남모르게 간직한 의리의 세계, 눈물의 세계에 대한 묘사는 작품의 성격묘사의 기본특징이며 이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 중요한 묘사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 묘사뿐아니라 비전향장기수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생활묘사에서도 주인공의 남달리 뜨겁고 진실한 인정세계를 심리분석적으로, 개성적으로 묘사하고있다.

태백산빨찌산투쟁시기 전장에서 희생된 동지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는 생활묘사로부터 감옥에서 희생되고 고통을 겪는 동지들을 두고 피눈물을 가슴속에 삼키는 주인공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이 간직한 의리의 뜨거운 세계를 특징지어주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안해를 사랑하기때문에 면회온 안해를 땀대하며 나중에는 《리혼》 까지 선언하고는 가슴속 괴로움을 눈물로 터치는 서상호의 인간적세계에 감복하여 《우리는 어쩌면 모두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가. ... 이 길은 뜨거운 정없이는 못걸을 길》이라고 생각하는 김철만의 모습에 대한 묘사라든지 서상호가 놈들의 폭행에 항거하며 동지들의 강제급식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결하였을 때 그 동지적인정세계에 고마움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동지의 아들을 기어이 찾아 그의 녀원대로 참되게 키우리라 속다짐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는 주인공의 개성적면모를 부각해준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이면서 의리의 인간, 다감하고 인정깊은 《눈물》의 인간인 주인공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생활묘사는 어느것이나 다 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준것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뿐아니라 부차적 인물인 박동근과 리숙희의 개성적모습에 대한 생활묘사나 너대 학생 은주의 다감한 성격에 대한 생활묘사도 종자를 꽃피우기 위한데로 지향되고있다.

박동근과 리숙희와의 결혼후 1년간 남다른 신혼생활, 그때부터 수십년세월 동근은 것처럼 기다리는 안해와 딸에게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 자기 안해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찾도록 과업을 주신 리숙희녀성이라는것을 속깊이 감추고 철만에게 후날에라도 자기 가족을 찾게 되면 자기가 가족을 잊지 않고있었다는것을 보증해달라고 하는 웅심깊은 박동근의 형상, 후날에야 박동근의 그 의리의 세계를 깨닫고 그의 안해와 딸을 찾기 위하여 감옥에서와 출옥후뿐아니라 북으로 송환되는 마지막순간까지 헌신적으로 나서는 김철만의 형상은 작품의 종자해명에 기여하는 인물형상이다.

량심과 정의가 짓밟히우는 남조선땅에서 량심것사는 사람들에게 보람과 행복이 오기를 바라면서 비전향장기수인 김철만과 같은 《량심수》를 진정으로 존경하며 그의 인간됨에서 자기를 다잡는 너대 학생 은주의 가룩한 형상.

긍정인물뿐아니라 인간의 참된 의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조카 광수의 성격도 주인공에게 사상전향을 강요하면서 간악한 심리전을 들이대는 교무과장 라석규의 차거운 성격도 개성적으로 그려져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간직한 사상과 신념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의리의 측면에서 파고들어 개성적인 성격으로 묘사하고 각이한 인간들의 성격을 특색있는 산 인간모습으로 묘사한 소설의 형상력은 종자의 형상적힘에 기초하고있다.

장편소설 《의리》의 창작적성과, 특히 비전향장기수의 성격창조의 성과는 철저히 작품의 독창적인 종자에 근원을 두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종자가 살아야 성격이 산다.

간석지벌에서

림병순

나는 서해북단에 자리잡은 간석지벌농장의 포전 길을 걷고있다. 드넓은 규격포전들에서는 모내기전투가 한창이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눈앞에 펼쳐진것은 가없이 넓은 푸른 벌이요, 머리우에는 푸른 하늘이다.

아득히 펼쳐진 간석지벌은 지금 푸른 계절을 맞이하였다.

가만히 귀기울이면 프락프르와 모내는 기계들의 고르로운 동음과 함께 맑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군인들과 농장원처녀들이 부르는 청아한 노래소리...

돌아다보니 아침에 떠 나온 돌곶마율이 한쪽의 선명한 그림처럼 멀리 바라보인다. 나지막한 등성이 우에 푸른 기와를 이고 즐비하게 늘어진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그 한가운데 합각지붕의 덩실한 문화회관, 그 주위로 병풍같이 둘러선 규모있는 파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눈앞의 전경을 황홀하게 바라보며 나는 깊은 감회에 잠긴다.

돌곶마율은 어린 시절 옛 추억이 실린 포구였다.

해방전 일제식민지통치의 학정아래 떠살이를 하던 아버지를 따라와 기껏 두해도 못살고 철새처럼 날아가버렸던 자그마한 어촌마을이 오늘은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했으니 그 옛날 바다였던 벌의 한 지점에서 나는 자연히 추억의 물결에 몸을 실어본다.

돌곶이란 이름이 언제 생겨났는지 알수 없으나 곳이 형성되면서 돌곶의 남쪽은 청송기암의 가파로운 벼랑을 이루었고 북쪽에는 산굽이를 따라 백사장장이 펼쳐져있었다. 해방전 마을은 백사장을 향해 등성이에 게딱지같은 초가집들이 비좁게 자리잡고 있었다.

파도소리를 들으며 굳잠에 들었다가 거치른 파도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던 어촌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고달픈 삶의 터전이었고 눈물과 원한의 상징이었다.

설명절이 지나고 바다가 풀릴무렵이면 남정들은 선주들이 주는 선대금에 얹매어 가랑잎같은 돛배에 몸을 싣고 사나운 풍랑을 헤치며 고기잡이를 떠났다. 아낙네들은 썰물이 지면 멀리 애기울섬에 나가 조개를 잡든가 아니면 뽕벌을 이고 산자락의 돌밭을 뛰치고 조나 기장을 심었다. 바다에 나간 남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녀인들의 애달픔과 줄레줄레 매여달리는 어린 자식들을 먹여살리느라 한뼉 손끝이 닳도록 일손을 놀려야 하는 그들이 부르는 처량한 《기나리》는 그대로 그들의 시름의 하소연이었다.

아이들의 꿈도 역시 바다에 있었다. 종일 백사장에 나가 모래볼에 덩굴며 장난에 옴했다가도 썰물이 저서 무연한 감탕밭이 드러나면 그것이 땅이 아니라 바다라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졌으며 하늘이 그 어떤 조화를 부리어 거기에서 흰쌀이 쏟아져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잠겼다가도 해가 지기 시작하면 멀리 애기울섬에 조개를 잡으러 나간 어머니들 생각에 절로 마음이 울적해졌다. 아마도 애기울섬에 깃든 전설이 던져주는 불안때문이었는지도 몰랐다.

바다가에는 기묘한 바위들과 섬들도 많았다. 사공바위, 형제바위, 곰섬... 그 형국에 따라 이름과 함께 전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들려주던 애기울섬에 대한 전설만은 아직 기억속에 생생하다.

...썰물이 진 망망한 바다, 무릎까지 묻히는 감탕밭을 헤치며 한 녀인이 조개를 잡고있다. 허리에 둘러맨 다래끼에는 하얀 조개들이 수북이 차올랐으나 그래도 녀인은 필사적으로 감탕밭을 뛰치며 조개를 잡아낸다. 정신없이 조개를 찾느라 감탕밭을 헤치던 녀인이 문득 밀물소리를 듣고 다급히 허리를 펴며 너럭바위쪽으로 시선을 던지었다. 그 바위우에 젓먹이를 눕혀놓았던것이다. 녀인은 황황히 바위를 향해 감탕밭을 헤친다. 그러나 개고를 따라온 밀물은 마치 맹수와도 같이 노호하며 그의 앞길을 위협하였다.

그날밤 어촌마을사람들은 해불을 켜들고 모두 모래볼에 나와 돌아오지 못한 녀인을 애타게 불렀으나 파도소리 처량한 속에 그 너럭바위에서는 온밤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며 애기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왔던것이다...

애기울섬이라는 류다른 이름이 붙은 이 기구한 전설속에는 어촌마을녀인들의 고달픈 녀이 깃들고 쪼들린 한생이 어려있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와 나의 운명에 비친 그늘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바다가 별로 변하면서 바다가에 솟아있던 바위들과 함께 애기울섬도 구슬픈 전설들도 다 사라져버리었다.

갑자기 가까운 포전에서 터져오르는 처녀들의 랑랑한 웃음소리가 나의 명상을 깨치었다.

포전에서 두대의 모내는기계가 서서히 전진하며 모를 꽃고있었다. 앞에서 미더운 병사들이 운전을 하고 등을 마주하고 농장원처녀들이 쌍쌍이 붙어앉아 날렵하게 모를 공급하고있다.

마주오던 모내는기계들이 서로 어기는 지점에 이르러 병사가 한마디 웃기는바람에 모공급수처녀들

이 별안간 허리를 그러쥐고 짹짹 웃어댔다.

《애, 그만 웃어. 빈포기가 생기겠다.》

다른 기계의 공급수가 끊겨 눈을 흘기었다.

《순실언니, 분대장동지가 제대되면 우리 농장에 오겠대요.》

《거참, 환영할만 한 일이구나. 그런데 그게 뭐 우습다고 그러니?》

그래도 두 처녀는 여전히 손을 마주잡고 짹짹거리었다.

《아이참, 글썄 농장에 오면 언니같이 인물꼭고 일손이 켜 처녀를 소개해주겠는가고 하지 않아요.》

《그래, 그런 걱정은 말고 오세요. 우리 농장에 나보다 인물 잘나고 일 잘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복에 넘치는 웃음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졌다.

지난날 썰물이 지면 거기에서 흰쌀이 쏟아져나오기를 바라던 어린 시절의 소박한 꿈은 오늘에 와서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있다. 해방전 처량하던 파도소리가 오늘날 랑랑한 웃음소리로 변한 간석지벌이었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지중- 지중- 머리우에서 종다리 두마리가 나래를 푸덕이며 극성스럽게 올라가 금시 물길뚝을 향해 돌처럼 떨어졌다. 아마도 난데없는 불청객을 꺼리는 모양인지...

물새소리 처량하던 옛포구에 종다리 깃들여 환희로운 목소리로 지저귀고있으니 그 소리 들을수록 유정하여 늙은 몸은 들뜬 기분에 잠겨 입에서는 절로 휘파람이 새어나온다. 물기에 젖어 번들거리는 논두렁흙이 신바닥에 닿을 때마다 그지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을 온몸으로 감수한다.

나는 물길뚝에 올라 맑은 관개수에 두발을 잠그고 잠시 이 벌이 자아내는 정화에 깊이 빠져든다.

이윽고 벌 한가운데로 뻗은 큰길로 차 한대가 달려왔다. 차안에는 흰 위생복을 입은 중년의 녀인이 앉아있었다. 눈여겨보니 녀인의 둘레에 꽃포단에 싸여있는 몇명의 아기들이 눕혀있었다. 《유모차》였다.

멀어져가는 차를 점도록 바라보다 나는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 지체없이 큰길에 나서서 차가 선 휴계실을 향해 걸음을 다그쳤다.

벌에서 보는 《유모차》에 매혹되어서인지 아니면 옛 전설이 자아내는 연상에서인지도 모르게 나는 걷는다.

휴식시간이 되자 군인들과 농장원처녀들이 포전 옆의 큰길에 모여들어 록음기를 틀어놓고 춤판을 벌리었다.

포전휴계실들중에 유별나게 눈길을 끈것은 《유모차》가 서있는 휴계실이었다. 해별을 받아 반짝

이는 유리창문이며 빨간 기와를 넣은것이 얼핏보기에는 동화속의 건물을 방불케 하였다.

휴계실은 커다란 너럭바위우에 콩크리트벽체를 쌓은것이 아주 견고하게 지었다. 로출된 바위 한쪽에 《사랑의 집》이라는 글이 새겨져있었다.

《농장에서는 그저 애기울섬휴계실이라고 부른답니다.》

《애기울섬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너럭바위를 그전에는 애기울섬이라고 했답니다. 제방을 쌓으면서 여느 바위들은 다 까맣았지만 이 애기울섬만은 남겨두었지요. 그래야 후대들이 이 벌의 역사를 알게 된다면서...》

《네》

그리고보면 이 바위야말로 간석지벌의 유일한 증견자인셈이었다. 제방을 쌓는데서 돌이 매우 귀할 때였지만 그것을 남겨놓은 군인건설자들의 소행이 정말 놀라왔다.

《몇해가 지나서 이 간석지벌에서 첫 농사를 지은 해였습니다. 벼가 줄대같이 싹하고 잘되었지요. 우리 농장의 실패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뭐니뭐니해도 갓난애어머니들이 힘들것이라고 글썄 이렇게 차까지 보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자 농장에 지원나와있던 군인동무들이 여기에 기념으로 이런 휴계실을 지어주었습니다.》

작업반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무아경에 잠겨들었다. 보는것, 듣는것이 다 놀라왔다. 천지개벽, 이 말은 결코 비유나 상징적인 말이 아니었다. 바다가 벌로 변하고 지난날 돌긋의 포구마음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되고 애기울섬우에 사랑의 집이 솟아난 간석지벌... 너럭바위우에 애기를 눕혀놓고 조개를 잡던 이 고장 녀인들의 후손들이 오늘은 사랑의 집에서 승용차에 실려온 귀여운 아기들을 정답게 포개여안고 저처럼 밝게 웃고있다.

지난날 전설속의 주인공들이 눈물에 젖어 바라던 그 녀원이 꿈아닌 현실, 천지개벽한 오늘의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다.

정녕 자기네들의 불우한 운명을 위로하여 하늘의 《신》이나 자연의 조화에 의한 래일의 행복을 소원하던 옛 전설, 그 소원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인민들이 한껏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우시려 웅대한 구상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있어 전설아닌 전설로 꽃피어나고있다.

어찌 이 간석지벌만이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하루가 몰라보게 전변되어가는 조국땅, 넓어지고 넓어지는 이 땅 그 어디나 끝없이 새겨지는 위대한 사랑의 전설은 계속될것이다. 꽃피어나는 우리의 현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창조하시는 선군시대의 새 전설, 그것이 우리의 전설이다.

항로를 바꾸라

리금철

마르띠교외의 국제비행장에서 떠오른 분사식려객기가 황혼이 비낀 서쪽하늘가로 사라져버린후 항장의 방에 다급한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예, 국제공항입니다.》

항장의 느릿한 목소리를 밀어내며 송수화기에서 는 녀인의 성급한 물음이 터져나왔다.

《마닐라행 려객기가 떠났어요?》

《리륙한지 20분이 돼오지요.》

그러자 녀인은 절망적인 비명을 질러댔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여보시오!》

《아, 이 일을 어쩌면... 그 려객기에 특수폭탄이 ... 폭탄이 장치되어있대요.》

항장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다.

《폭탄?》

《예, 리륙하여 10분후면 시간스위치가 작용한답니다. 그래서 려객기가 착륙할 때 고도 3,000메터에 내려가기만 하면... 기압변동으로 자동적인 폭발이 일어난대요.》

《뭐라구요?》

항장의 거칠진 체구가 부르르 떨었다.

《여보시오! 그게 정말입니까?》

《방금 다방 밀실에서 엿들은 소리예요. 폭발물의 위치는 려객기의 뒤...》

상대방의 말소리는 여기에서 끊어졌다. 대신 수화구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아우성과 함께 유리그릇들이 부서지는 아츠러운 소리가 울리었다. 이어 녀인의 비명소리가 뒤따랐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항장이 애타게 상대방을 불렀으나 수화구에서는 못사람들의 고함소리만이 울려나올뿐이었다. 녀인은 전화를 채 끝내지 못하고 어떤자들한테서 타격을 받은것이 분명했다.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 려객기에 특수폭탄이 장치되어 있다니...

청천벽력의 이 소식에 대경실색한 항장은 풀썩자리에 주저 앉았다.

이 일을 어쩌나? 지금 려객기는 250여명의 승객들과 승조원들을 태우고 고도 1만메터높이에서 서북방향으로 비행중에 있다. 3, 000메터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그 려객기는 목적지에 가서도 땅에 내릴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한정없이 하늘에만 떠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려객기에 만재한 연유도 시

간이 흐르면 탱크의 밀창이 드러나게 될테니까.

이제 려객기는? ... 250여명의 승객들의 운명, 곧 이 소식이 정부에 통보되고 비행장의 관제탑에서는 비행중에 있는 려객기로 긴급전파가 날았다.

×

려객기의 시창아래로는 석양비낀 태평양의 수면이 가없이 펼쳐져있었다. 이따금 눈아래로 흘러 지나가는 마르띠제도의 크고작은 섬들만 아니라면 려객기는 마치도 하늘공중에 등 떠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듯만 싶었다.

려객기는 지금 순항비행을 하고있었고 객실안의 공기 역시 평온하였다.

김석진은 내려다보던 시창밖에서 눈길을 떼고 폭신한 결상등받이에 몸을 기대고는 피곤한듯 두눈을 지그시 내려감았다. 초음속으로 날고있는 분사식비행기이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굽튼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아직도 그가 가야 할 조국까지의 거리는 멀고멀지만 마음은 벌써 평양으로 가있는 석진이었다.

○○주재 대표부에서 사업하던 장기간 어느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는 조국, 바로 그 어머니조국이 석진을 부르고있었다.

석진은 자기가 이제 평양에 소환되어가면 다시는 정든 조국산천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원하고있었다. 하지만 어이 알랴. 조국이 또다시 그에게 어떤 초소를 맡겨줄런지. 그러면 이 젊은 외교일군은 그 어떤 곳일지라도 서슴없이 뛰어들것이다....

《피곤하신 모양이지요?》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있던 금발머리처녀가 석진에게 다정히 미소를 보였다.

《아니, 괜찮습니다.》

고개를 돌린 석진이 역시 처녀에게 친근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아버지와 함께 자기의 고국으로 귀국해간다는 이 로씨야인처녀는 뉴욕에서 함께 떠나올 때부터 석진을 호의를 가지고 대해오는 터였다. 아마도 석진의 조국과 자기의 모국이 이웃한 까닭에 친밀감이 동하는 모양이었다. 그래서인지 마르띠에서 비행기를 옮겨탈 때도 처녀는 여전히 석진과 자리를 같이 하였었다.

니나 와셀리에브나라 불리우는 이 로씨야처녀의 미모는 참으로 아릿다웠다. 뿐만아니라 과묵한 제 아버지와는 달리 니나는 성격이 매우 발랄한 처녀였다.

지금 니나의 아버지인 와셀리 이와노비치는 반대편 좌석에 홀로 앉아 침울한 기색으로 시창밖의 먼 하늘가만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이제 자기네가 가닿아야 할 고국의 하늘을 찾고있는지...

석진은 반백의 그 로씨야인에게 한동안 눈길을 주었다가 니나에게 나직이 말을 건넸다.

《아버지는 박사라지요?》

《예, 우주물리학을 전공하신답니다.》

《첨단과학분야군요. 그런데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니나는 가늘게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는 성격이 무척 다감하신분인데... 작년 가을에 뉴욕에서 차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다음부터는 늘쌍 저렇게 침울해계신답니다.》

처녀의 말소리역시 침울하게 울리었다. 고국행의 기쁨으로 잊고있었던 자기들의 불행한 처지가 상기된 모양이었다.

《그런 불상사가 있었겠군요.》

석진은 진정으로 이 외국인가족에게 동정이 갔다.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겪었을 이들의 비참상이 눈앞에 그려져 석진의 가슴속에서도 찢릿한 애상이 공명을 일으켰다. 《자유세계》에 현혹되어 자기들의 조국을 떠난 형형색색의 인간들이 뉴욕의 거리를 방황하는 가공한 모습들을 수많은 보아온 석진이었다.

니나는 목소리를 가볍게 떨며 말을 이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정든 로씨야를 떠난것을 줄창 후회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숨지는 마지막순간에도 자기를 고향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는 지금 어머니의 유해를 가지고 그 저주로운 땅을 영영 떠나는길이랍니다.》

석진은 다시 와셀리박사에게로 눈길을 주었다.

아마도 지금 저 로씨야인과학자는 이국땅에서 헛되이 흘러보낸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고있으리라. 아니, 저주하고있을런지도 모른다.

석진은 고개를 돌려 다시 어둠이 깃들기 시작하는 시창밖으로 눈길을 주었다. 시창아래로는 벌써 어둠의 장막이 펼쳐져있었다. 이따금 대양을 항행하는 선박들의 불빛이 나타나 서서히 지나가군하였다.

왜서인지 석진의 눈앞에는 떠난 이국땅의 소란하고 번잡스러운 도시풍경이 어지럽게 비껴들었다.

마천루의 호화주택들, 맨하탄의 변화가들, 악취

가 풍기는 할렘거리의 빈민촌들... 밤이면 사람들의 혼을 뿜아내는듯 한 어지러운 자즈음악과 망막을 자극하며 번쩍이는 네온등의 명멸이 혼탁을 이룬 뉴욕의 거리들...

불쾌한 그 환영을 지우려고 두눈을 꼭 감고있던 석진은 객실안에 떠도는 류다론 소음에 고개를 돌렸다.

옆에 앉아있던 니나가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목을 빼들고 객실앞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쪽에서는 연방 비명소리와 아우성, 욕지거리가 한데 뒤섞여 터지고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글쎄 ...》

주변좌석의 승객들 역시 모두가 몸을 일으키고 객실앞 조종실쪽을 불안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곳에서는 진재빛색의 제복을 입은 중년의 러객기장이 몇명의 승조원들과 함께 이쪽으로 다가오며 복닥소동을 피우는 승객들에게 무슨 말인가를 조급하게 하고있었다.

《왜 그런다오?》

《이 러객기에 무슨 특수폭탄이 장치되어있거나 봐요.》

《특수폭탄?!》

《러객기가 착륙할 때 그 폭탄이 터진대요.》

이 소식은 삽시에 온 객실안에 퍼졌다. 러객기안은 승객들의 아비규환으로 수라장이 되었다.

얼굴빛이 꺼렇게 질린 기장은 공포에 싸여 마구 헤엄치는 승객들을 진정시키느라 경황없이 돌아쳤다.

《여러분, 빨리 폭발물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승조원들에게만 한한것이 아닙니다. 여기 러객기에 탄 모든 손님들의 공동의 일입니다. 각기 자기들의 손잡부터 조사하십시오.》

석진은 아연실색해졌다. 러객기에 특수폭탄이 장치되 여있다니... 누가? 무엇때문에?...

석진의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이런듯 별안간 뒤좌석에서 분개한 목청이 터지었다.

《〈백대가리〉! 악귀같은놈! 이젠 분명 그 자식의 작간질이야. 틀림없어.》

석진은 그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뉴욕을 떠날 때부터 야욕의 눈길로 니나를 은근히 훑쳐보곤 하던 두 젊은 사나이가 악에 받쳐 우락부락대고있었다.

《마르띠공항에서 우리와 전화할 때 노발대발하더니 종당엔 우리까지도 함께 천당으로... 예익!》

뜻을 알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기막힌 자기의 신세를 개탄하던 갈색머리사나이가 주먹으로 객실벽을 쳐대며 절망적으로 통곡을 터치었다.

《아,-이렇게 죽다니...》

《존, 이제와서 그따위 너두리나 해선 뭘하나. 어차피 지옥으로 갈것은 뻔하구…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음껏 즐겨야지. 자, 마시자구.》

대다수의 승객들이 폭발물을 찾아내자고 떨쳐나서고있는 때 술이나 퍼마시며 탄식을 터뜨리는 그 사나이들의 추태는 정말 꼴불견이었다.

석진은 그들한테로 다가갔다.

《이제 뭐요? 젊은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소? 자, 빨리 폭발물을 찾읍시다.》

그러자 갈색머리는 코웃음을 쳤다.

《흥! 폭발물이 어데 있소? 귀신이나 알겠는지.》

다른 사나이라도 맛장구를 쳤다.

《괜한 수고마시오. 폭발물을 그렇게 쉽게 찾아낼 것 같으면 애당초 장치부터 안했을거요.》

그 사나이는 그래도 제 동료보다는 태연한데가 있었다.

《우린 이 려객기에 폭발물을 장치한 작자들을 짐작하고있소. 그자들은 이런 일에서는 숨씨가 귀신같은 놈들이요. 폭발물은 찾지 못하오.》

《그게 어떤 놈들이요?》

《천당에 가서 내 알려주지. 그러니 죽으면서까지 헛고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술이나 마시자구. 죽기전에 실컷 먹고 마시잔 말이요.》

석진은 자기의 팔을 잡아끄는 그 사나이를 뿌리치고 복도에 나섰다. 객실안은 온통 란장판이었다. 절망과 공포, 아우성과 울음소리로 가득찬 려객기안은 실로 지옥의 세계를 방불케 하였다.

마르띠의 밤거리는 어느때와 다름없이 평온하였다.

그러나 도시의 야경을 헤치며 질주하고있는 소생차안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은 평화로운 밤세계의 안온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옷몸에 피가 랑자하게 내뻗 한 녀인, 그의 심장박동상태를 알려주는 심전도계의 그라프는 가날프게 떨고있었다. 지금 녀인은 산소마스크로 얼굴을 절반나마 가리운채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범행장소가 번잡한 카페인지라 범인들은 녀인의 숨을 채 끊어놓지 못하고 도망을 쳤던것이다.

경찰차 두대가 앞뒤에서 소생차를 호송하여 병원으로 달리였다.

병원에 실려와 몇시간후야 정신이 든 녀인은 《폭발물은… 려객기의 뒤날개밑에… 장치되어있대요. … 우리 수잔느아버지가 바로 그 비행기편으로 마닐라에…》 라는 말을 힘겹게 하고는 다시 맥없이 눈을 감았다. 카페의 밀실에서 우연히 엿들은 범인들의 음모내용을 알려주느라 치명상까지 입었건만 이 접대부녀인도 려객기가 구출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있는 모양이었다.

얼마후 마르띠정부의 의뢰를 받은 해외의 어느 레이다관측소가 자기네의 상공으로 날아지나가는 려객기의 뒤날개밑에 장치되어있는 자그마한 고능력폭발물을 포착했다는 소식을 알려왔다.

폭발물이 비행기의 내부에가 아니라 외부에 장치되어있다니 려객기의 운명은 절망적이다. 비행기의 뒤날개밑에 붙어있는 폭발물을 해체하려면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날고있는 려객기를 멈춰세워야 한다. 하지만 려객기는 땅에 내릴수도 공중에 멈춰설수도 없지 않는가....

이제는 그 누구도 려객기가 구출될 희망을 가지지 않았다. 오직 폭발… 몇시간후이면 려객기의 폭발과 함께 참변을 당할 250여명의 승객들의 운명은 너무도 명백했던것이다.

석진은 이미 조국에 자기의 마지막인사를 려객기의 통신실에서 전파로 날리였다.

지금 조국은 이국의 하늘에서 재가루로 흩어지게 될 이 아들의 운명을 두고 얼마나 가슴아파하랴. 아, 것처럼 그리고 그리던 조국의 산과 들을 단 한번만이라도 굽어보았으면 여한이 없으련만… 내 이제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일이 없을까?...

석진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객실안의 란잡한 소음속에서 별안간 녀자의 경악한 비명소리가 터지였던것이다. 와쉴리박사가 홀로 앉아있는 건너편 자리에도 옮겨앉아 아버지의 팔을 부둥켜잡고 눈물이 글썽해있는 니나한테로 술취한 두 사나이가 달려들고있었다. 바로 석진의 뒤좌석에 앉아있던 그자들이였다.

《아버지-》

창출간에 당하는 번이라 니나는 왈칵 울음을 터치며 애처롭게 아버지만 찾았다.

《이제 무슨 짓들이요?》

와쉴리박사가 헤덤비며 자기 딸을 불안고 히히닥거리는 그 사나이들의 추행을 때말리려 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고 광기가 어린 젊은 그자들의 힘을 당해낼수가 없었다.

갈색머리사나이는 도리어 와쉴리박사를 떠밀치며 지껄이였다.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것은 바로 당신때문이요. 그러니 딸을 우리에게 바치는거야 옹당한거지.》

《박사님도 저기 부인네들한테 가보시구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즐겁게 보내야 하지 않겠소?》

두 사나이는 낄낄거리며 니나의 가슴을 손으로 마구 허벼댔다.

《아버지!-》

얇은 여름샤쓰가 찢겨여져 가슴부위가 드러난 처녀는 몸부림치며 애처롭게 울어댔다.

《이놈들아-》

바닥에 어푸러진 와셀리박사는 팔을 허둥거리며 고향을 질렀다.

하건만 지금 객실에서는 이 참상도 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것이 못되었다.

자기들의 종교성지를 찾아간다는 수십명의 순례자들은 모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느라 머리조차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옆에서는 부부인듯 한 두 젊은 남녀가 예닐곱 살쯤 나보이는 어린애를 불안고 슬피 울고만 있었다. 객실 뒤쪽에서는 죽음의 공포를 가시느라 마약을 쓴 모양 몇명의 애젊은 남녀들이 거의발가벗다 싶이한 몸으로 웃고 떠들며 히스테리를 부리고있었다.

다가오는 생의 종말을 예감한 려객기안에서는 지금 법과 질서, 도덕과 룰리따위가 존재하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석진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또다시 니나에게 달려드는 그 사나이들한테로 다가섰다.

《당장 물러서시오!》

그러자 갈색머리가 석진이에게로 광기어린 눈찌를 갈겼다.

《이건 또 웬놈이야?》

그러나 석진의 강경한 기세가 두려웠던지 그자는 피춤에서 권총을 뽑아들더니 총구를 석진의 이마에 가져다댔다.

《우릴 방해하면 개처럼 썰죽이겠다.》

한절반 실신상태에 빠져있던 니나가 그 광경을 피어보고 질겁하여 새된 비명을 질렀다. 그 찰나 석진의 왼손이 번개처럼 그자의 권총권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땅!-》

석진의 머리로 쳐들린 총구에서 불줄기가 뿜어져나갔다. 뒤이어 갈색머리는 권총을 떨어뜨리고 석진의 주먹에 얻어맞고 몸을 비틀었다.

다른 사나이라도 석진이에게 달려들다가 허공잡이로 객실바닥에 나뒹굴었다.

총소리를 듣고 기장과 승조원들이 황망히 달려왔다.

피흐르는 입 언처리를 두손으로 감싸쥐고 주저앉아있던 갈색머리는 자기네를 둘러싸고 서있는 석진과 기장 그리고 승조원들을 엿갈아 쳐다보며 미친듯이 부르짖었다.

《죽여라! 어서 나를 죽여! 어차피 모두 지옥으로 갈텐데 먼저 죽나 후에 죽나 매한가지가 아니요. 아, 바로 저... 로씨야놈때문에 나도 당신들도 모두가 죽게 뻔소.》

갈색머리는 피물은 손가락으로 니나를 품에 안고있는 와셀리박사를 가리키며 험구를 쏟아놓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기장의 성급한 물음에 그자는 계슴츠레한 눈길을 맥없이 떨구고 무어라 중얼거릴뿐이었다. 그러자 그옆의 다른 사나이가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더니 뜨직이 대꾸했다.

《우리 함께 곧 저승으로 갈텐데 이제 숨길것이 뭐가 있겠소. ... 사실 나와 이 스미스는 뉴욕에서 온 갱들이요. 우리는 <백대가리>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유명인물로부터 저 와셀리박사를 없애달라는 비밀부락을 받고 지금껏 뒤따랐소. ... 마르피에 와서까지 암살이 실행못되니 아마 <백대가리>는 우리를 제껴놓고 그곳의 <검은상어>패들을 부추겨 려객기에 폭발물을 장치한것 같소.》

《그게 정말이요?》

《틀림없소. 그놈은 악마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못하는것이 없소. 바로 저 와셀리박사가 려객기에 올랐기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소.》

가슴부위가 찢겨여진 셔츠를 여민채 몸을 웅송그리고 흐느끼던 니나가 불안간 고개를 쳐들었다.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다구...》

처녀는 가증스러운 두 사나이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니나, 그만해라.》

《아버진 왜 잠자코 계시요. 저 망나니들의 모욕을 왜 가만히 듣고만 계시는가 말이에요.》

와셀리박사는 손을 가볍게 떨며 흩어진 니나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애야, 저자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 려객기의 승객들은 바로 나때문에... 나때문에 목숨을 잃게 뻔구나.》

박사의 목소리는 침통하게 울리었다.

니나는 얼없이 아버지의 이지러진 얼굴만 쳐다보았다.

석진은 피로와하는 와셀리박사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을 꼭 부여잡았다.

《진정하십시오. 이것이 어찌 박사선생님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저 악한들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때죽음을 당하게...》

그때까지도 바닥에 주저앉아 떨어뜨린 고개를 주억거리던 갈색머리가 눈길을 들었다.

《입씨름은 작작하십시오! 이제와서 악이니 선이니 그따위 사리가 뭘 필요하오. 우리는 이제 몇시간후이면 모두 저승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마음껏 즐기란 말이요. 쾌락울!》

또다시 광기가 오른듯 그자는 움쭉 몸을 일으키더니 울음에 지쳐 맥없이 앉아있는 앞자리의 젊은 녀인한테로 비틀걸음을 옮기었다. 이번에는 기장의

드센 주먹이 그자의 면상으로 날아갔다.

《너절한 자식, 사나이로 났으면 사나이답게 죽을 줄도 알아야지.》

얼굴을 찢친채 다시 주저앉아 바닥의 초록색주단 위에 선지피를 뿌리는 그자의 물풀을 쏘아보며 기장은 자못 엄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그도 죽음의 비운에 잠겨있는 객실세계를 둘러보고는 허탈에 빠져 고개를 떨구더니 맥없이 중얼거렸다.

《이자들을 위생실에 가두어넣소. 그리고 방금 이자들이 지껄인 말을 절대로 소문내지 마오.》

비감에 잠겨 조종실쪽으로 걸어가며 공포에 질려 허둥거리는 승객들에 치위 이리비칠 저리비칠거리는 기장의 초췌한 뒤모습을 지켜보던 석진은 지그시 두눈을 내려갔다.

정녕 이 객들이 한시에 목숨을 잃고마는가? 구원될 가망이 전혀 없는가?...

마르띠 정부는 이 비극적인 사태를 세상에 공개하고 각국에 객기의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어느 나라인들 폭발물을 달고 초음속으로 날고있는 비행기를 구원할 방책이 있으랴. 객기는 공중에서 멈춰설수도 그리고 땅에 내릴수도 없는, 종당에는 폭발하고야말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마르띠 정부의 구원요청에 세계는 침묵을 지키었다.

어느 한 나라의 소리방송은 세계의 이 침묵을 이제 얼마후이면 객기폭발과 함께 마르띠 정부로 휩쓸어들게 될 위로와 조전의 폭풍을 앞둔 정적으로 묘사하였다.

《김선생, 우리 애를 지켜주어 정말 고맙소.》

석진의 손을 감싸친 와셀리박사의 얼굴에는 서글픈 미소가 어려있었다.

《니나 와셀리에브나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석진이 역시 쓸쓸히 대답하였다.

그때까지도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던 니나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죽기야 김선생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예요. 제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어머님결으로 가게 해주신것만도 정말...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어요.》

니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었다.

박복한 인생마저 애젊은 나이에 끝내게 될 불쌍한 딸을 품에 안고 그의 어깨를 어루쓰는 와셀리박사의 주름진 두볼로는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다.

《나의 고달픈 인생때문에 네 어머니가 비명했는데 오늘은 너까지도... 아, 이 몸쓸 애비를 원망해라. 모두 나때문에... 나때문에 김선생까지도...》

와셀리박사는 비탄의 말끝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와셀리 이와노비치,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박사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내 운명을 앞두고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겠소. 아직은 이 말을 우리 니나한테도 하지 않은것인데...》

《...》

《사실 나는 몇년전에 조국땅을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यो. 미국식 <자유>와 <민주주의>가 그때 나의 심혼을 빼앗아갔었으니까. ... 미국에만 가면 과학자의 명예도 그리고 막대한 재부도 모두 한손아귀에 거머쥐게 되리라는 환상을 가졌던거요. ... 하지만 알고보니 전쟁상인들의 하수인노릇밖에 차례지지 않았소. 과학자의 량심도체면도 없이...》

와셀리박사는 피로움에 지쳐 형클어진 머리카락을 움켜쥔채 고개를 숙이었다.

《<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미쳐 날뛰고있는 미국은 우주에까지 핵무기를 배비하려 하고있소. 이 전략은 미군수독점체들에게 <황금나무>로 되고있지요. 내가 취업했던 <더블류>회사가 미국방성과 체결한 계약액수만도 60억달러로 추산되고 있소.》

와셀리박사가 털거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석진에게는 새로운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석진은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나는 <더블류>회사에서 새형의 우주대 지상미싸일연구에 종사하게 되었소. 물론 이것은 극비였고 또 반인륜적인 참혹한 연구사업이었소.》

《...》

《생각해보오. 우주공간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에서 지구로 쏟아져내리는 핵폭탄들을 말ियो. 지구의 중력권안에 들어선 그것들의 수직운동과 엄청난 가속도를 과연 무엇으로 막아낼수가 있겠소?... 미구에 산생될 지구의 참화를 상상만 해도 막 몸서리가 지오.》

와셀리박사는 그 광경이 눈앞에 떠오르는지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니나는 말없이 놀란 눈길로 아버지를 지켜볼뿐이었다.

《결국 그 <미싸일방위체계>라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미싸일공격체계요. ... 나는 환멸을 느끼었소. 그리고는 그 저주로운 연구사업에서 손을 뗐소.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나한테로 협박과 공갈이 날아들었소. ... 니나의 어머니가 잘못된것도 필경 그 협박자들의 작간일거요. 틀림없소. 그래서 나는 저주로운 그 세상과 결별하고 조국으로 돌아갈결심을 한거요. ... 뉴욕을 떠날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참혹한 객기폭발음모로까지 번져지리라고는 생각못했소.》

잠자코 아버지의 토설을 듣던 니나가 가볍게 목소리를 떨었다.

《그네들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와셀리박사는 니나에게 서글픈 미소를 지어보였다.

《황금을 위해서이지. 내 입이 터지면 저희들의 돈벌이에 방해될테니까.》

박사의 말소리는 비통하게 울리었다.

석진은 가슴이 비트는듯이 아파났다.

결국 이 려객기의 승객들도 미국의 세계전략의 또 하나의 희생물로 된것이 아닌가.

석진은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죽음이 각일각 다가오는 이 준엄한 순간 석진은 수수방관할수 없었다.

《와셀리 이와노비치, 우린 이대로 죽음을 맞이할수 없습니다. 세계량심앞에 이 사실을 공개합시다.》

《?!》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의 본질만이 아닌 그에 편승한 군수독점재벌들의 반동성을 폭로하고 우주전쟁에 대한 연구자료들도 공개합시다. 온 세계가 그 위험성을 알고 저지파탄시키도록 우리가 공개전문으로 알리잔 말입니다.》

죽음도 값이 있으면 그 죽음은 결코 두렵지 않은 법이다.

와셀리박사는 석진의 두손을 꼭 움켜쥐었다.

《김선생은 역시 대장부요. 찬성이요! 우리도 값을 톡톡히 받아내지요.》

대양의 밤하늘로 공개전파가 날았다. 그러나 그 전파는 려객기에서 날리는것만이 아니었다. 전파의 발신지는 평양이었다. 평양은 지금 불운한 수백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대양의 밤하늘을 떠돌고 있는 려객기를 찾고있었다.

려객기와 교신을 이룬 평양은 짧지 않은 전문을 역시 공개로 날리었다. 파멸을 앞에 둔 려객기를 두고 세계가 불안과 위구에 휩싸여있는 때 뜻밖에도 평양에서 수천마일떨어진 대양의 밤하늘로 날고있는 공개전문을 받는 각국의 통신소들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초한초 박두해오는 죽음의 공포로 몸을 떨고 있던 려객기의 통신수도 수신된 전문을 받아들고는 온몸이 굳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김석진 앞, 동무가 타고있는 려객기의 비극적인 정황을 청취하고 우리는 가능한 조치를 취하련다. 시급히 려객기의 항로를 바꾸어 평양으로 직항하도록 하라. 승객들의 공포를 가셔주고 안정시키라. 곧 려객기장한테로 마르띠정부의 지시문이 전달될것이다. 기장과 합심하여 려객기가 평양까지 안정한 비행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라. 평양》

기장이 가져온 그 전신문을 받아든 석진은 그만 목이 킁 막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전신문을 눈물로 얼룩지였다.

《흑!-》

석진은 터지려는 오열을 삼키느라 자기의 얼굴을 싸쥐었다.

그러는 석진에게로 니나가 조심스레 다가와섰다.

《김선생님, 웬 일이세요?》

감격에 복받친 석진은 처녀에게 손에 쥔 전신문을 흔들어보이며 환성을 터치였다.

《이것보오, 니나. 우린 모두 구원됐소.》

그리고는 니나뒤에 어리둥절해 서있는 와셀리박사에게로 다가가 그의 두손을 덥석 움켜쥐었다.

《와셀리 이와노비치, 우린 죽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조국이 이 려객기를 부르고있단 말입니다.》

와셀리박사는 여전히 어안이 병병해서 석진을 쳐다보았다.

《당신네 조국이?! 이 려객기를 어찌할려구?...》

《우리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석진의 대답에 로씨야인과학자는 설레설레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남들이 구원 못하는걸 당신네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오. 난 이런 처지에 있는 비행기를 구출할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 알지 못하고있소.》

《와셀리 이와노비치, 남들이 하지 못하는것을 해내는것이 바로 우리 조국입니다. 믿으십시오. 나의 조국이 일단 이 려객기를 불렀으면 우리모두는 구원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난 과학적인 담보만을 믿소.》

와셀리박사는 어깨를 으쓱이며 두팔을 벌려보이였다. 문득 그는 몸을 성급히 돌리더니 객실 앞쪽을 향해 걸어갔다. 니나가 뒤따랐다.

《아버지, 어델 가세요?》

《통신실에... 조선의 과학센터와 교신해보련다.》

이어 그의 반백의 머리는 승객들의 혼잡속으로 사라졌다. 석진은 니나에게 웃음을 지어보이였다.

《박사선생이 몹시 흥분한것 같군요.》

《저의 아버지는 좀해서 흥분할줄 모르는데요... 철저한 실용주의자니까요. 사실만을 믿으니까요.》

《나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사실만을 말했지요.》

니나는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석진을 쳐다보았다.

《그럼 제가 선생님의 그 확신을 믿어도 될까요?》

《니나 와셀리에브나. 믿어도 되요. 아니. 믿소!》

석진은 확언하였다. 자신을 믿듯 조국을 믿고있

는 석진이기에...

공포와 절망, 비애로 숨막힐듯 하던 객기안에 석진의 주장으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났다. 삽시에 석진의 주위는 사람성이 쌓아졌다.

중년의 흑인녀성이 흐르는 눈물을 씻을념도 않고 석진의 두손을 움켜잡았다.

《선생님, 조선에 가면 우리가 정말 구원될수 있습니까?》

《구원됩니다. 부인, 믿으십시오.》

금발머리청년이 사람들의 어깨를 비집고 석진 앞에 얼굴을 내밀었다.

《어떻게 구원됩니까? 무엇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수 있습니까?》

《나도 아직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던 그 청년은 피상스레 입을 썉 벌리었다.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단 말입니까?》

석진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며 이렇게 반문하였다.

《당신의 어머니는 지금 죽음의 처지에 놓인 제아들을 두고 어떻게 하고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아마 슬피 울고있을겁니다. 나를 무척 사랑하였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석진이 또다시 이렇게 묻자 그 청년은 맞갖잖은 투로 대꾸했다.

《알고말고가가 있습니까? 나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인데...》

《허허... 그러니 당신처럼 나도 어머니를 믿는거야 당연하지요. 조국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석진은 다시 둘러선 승객들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모두 마음을 놓으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공개전문은 바로 나의 조국이 전세계에 대고 객기의 구출을 당당히 공약했다는 증거입니다.》

석진은 손에 쥔 공개전문을 머리위로 높이 쳐들어보이였다.

《옳은 말이요!》

중객들속에서 이런 화답이 울렸다. 뒤이어 와셀리박사가 사람들을 해집으며 나왔다.

《조선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으로 갑시다.》

와셀리박사는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웨쳤다.

박수소리, 휘파람소리, 환호소리로 객실안은 진동하는듯 하였다.

환희의 폭풍이 객실안에 몰아쳤다.

《조선으로 가면 우리는 살수 있다. 조선!... 조선으로!...》

《기장님, 객기의 항로를 바꿉시다!》

《빨리 조선으로 가자요!》

《어서 갑시다!》

승객들은 모두가 법석이며 석진의 뒤에 서있는 기장에게로 독촉벼락을 안기였다.

기장은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항로는 이미 바꾸었습니다. 객기는 3시간 후이면 조선의 령공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다시 터지는 함성 ... 박수소리, 휘파람소리 ... 불쑥 들썩이는 사람들을 해집고 나온 장년의 뚱뚱보신사가 석진의 가슴에 작지 않은 트렁크를 덥석 떠안겼다.

《받아주오. 1만유로요. 내 살아서 회사에 돌아가면 이만한 금액을 또 송금해주겠소.》

《아, 이러지 마십시오.》

석진이 당황해하며 황황히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마치도 기다리거나 했듯 승객들이 저저마다 진귀한 보석목걸이와 금시계, 지폐묶음을 석진에게 안겨주느라 야단법석을 피워댔다. 자기들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준 석진에게 처녀들과 젊은 녀인들은 서슴없이 매여달려 그의 두볼과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대며 희열에 넘쳐 웃고 떠들었다. 구세주만 찾던 순례자들조차 석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추앙의 말마디들을 연방 곱씹어댔다.

석진은 승객들의 그 열광적인 환대를 거절할수가 없었다.

《니나 와셀리에브나, 나를 좀 도와주오.》

니나는 자기에게 구원을 청하는 석진에게 생긋이 웃음을 지어보이고 돈과 금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석진은 니나에게로 다가가 로어로 나직이 귀뜸하였다.

《명단을 작성해주오.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내놓았는가 하는것을 말이요.》

《명단을요?》

니나는 석진에게에 의한 눈길을 돌렸다.

석진은 처녀에게 한눈을 찔끔 감았다 떠보이였다. 속기빠른 니나는 대뜸 석진의 의도를 깨달았는지 실망어린 기색을 지었다.

《이거야 승객들이 김선생님한테 드리는 감사인데...》

《감사는 나에게가 아니라 저의 조국에 해야 합니다.》

세계의 통신과 보도매체들은 일제히 조선의 령공에 항로를 바꾼 객기로 자기들의 초점을 맞추었다. 각종의 탐지기들과 레이더, 관측위성들도 제각기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에 합세하였다.

이미 객기의 비행항로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있었다. 려객기사건은 곧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었다.

《3시간후에 결정될 250여명의 운명은?…》

《세계는 평양의 상공에 귀를 모으고있다. 폭음이나? 환성이나?》

벌써부터 이런 표제를 단 신문들이 나돌며 사람들의 비등된 흥분을 가증시켜주고있었다.

기장은 석진이를 조용히 조종실로 초청하였다.

《김선생, 뜻밖의 정황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장은 낮빛이 해쓱해서 조종관의 계기들을 지켜보고있었다.

《연유가… 연유가 떨어져갑니다.》

《뭐라고요?!》

석진이 깜짝 놀라 이렇게 반문하자 기장은 무겁게 한숨을 토했다.

《지금 우리가 들어선 이 항로는 유리한 곳이 못됩니다. 기류의 저항이 센 곳이지요. 그래서 려객기의 연유소비량이 폭발 더 많아졌습니다》

《비상예비도 없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비행분이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네 나라 령공에 들어서면 인츰 연유탱크가 바닥이 나 기관이 숨죽게 됩니다. 그러면 려객기가 하강하게 되는데 기껏해야 공수지구까지 이르게 되면 3,000미터로 하강하게 됩니다.》

고도 3, 000미터이면 비행기는 폭발한다.

석진은 기장이 짙어보이는 컴퓨터화면속의 지도를 바라보며 입술을 아프게 깨물었다.

공수지구에서 평양까지는 먼거리이다. 려객기가 그곳까지 가닿으려면 15분이라는 시간이 요구된다. 그러니 려객기는 평양까지 가닿지 못하고 공수지구에서 추락하여 끝내 폭발하고야 마는가…

《김선생,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시간이 촉박한데…》

기장의 진지한 눈길이 석진의 얼굴에 못박히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애원이 실려있었다. 그런들 석진이 무슨 방책이 있으랴.

석진은 지그시 두눈을 감았다. 이 한몸이 그대로 기둥이 되어 떨어지는 려객기를 떠받들수만 있다면…

객실안에 은은히 울리던 려객기의 기관소리가 멎어버렸다. 하지만 려객기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있었다. 시창아래로는 새날의 려명에 우렁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푸른 산발들이 서서히 흘러가고있었다. 려객기는 지금껏 날고있던 바다를 건너 드디어 조선의 령공에 들어선것이다.

삶이나 죽음이나 하는 갈림길에 놓인 승객들은

조바심과 위구로 두근거리는 가슴들을 불안고 모두가 시창에 붙어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려객기가 조선의 상공에 들어섰으나 객실안에 떠돌던 희망과 기쁨은 도리어 먼지처럼 가라앉아 숨막히는듯 한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이제 려객기는 어떻게 될가? 250여명의 승객들의 운명은… 구원될것인가? 아니면 죽음?… 승객들은 모두가 자기들의 심장의 박동소리를 듣고있는듯만 싶었다.

《아버지, 평양까지는 아직 멀어요?》

와쎈리박사는 나나의 나직한 물음에 말없이 고개만 무겁게 끄덕이였다.

《그런데… 려객기가 점점 땅으로 내려가는것 같아요.》

박사는 못들은듯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벌써 이것을 알고있었다.

연유가 떨어진 려객기는 점점 속도가 떨어지며 추락하고있었던것이다. 육안으로 보아도 현재 려객기의 고도는 8,000미터정도이다.

평양의 과학센터가 려객기의 안전착륙을 담보했을 때 거기에 기대를 걸고있던 와쎈리박사는 지금 가슴에 재가 앓는듯 하였다.

한초한초 시간의 흐름과 함께 려객기의 고도는 점점 낮아지고있었다. 7,800미터, 7,500미터…

점차 증대되는 중력의 끌힘으로 려객기는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하였다. 6,000미터, 5,000미터…

려객기의 기관소리는 이미전에 멎어버리고 시창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푸른 산발의 기복들과 등판이 점점 확대되어 안겨들자 승객들은 드디어 사태를 깨닫게 되었다.

《려객기가 추락한다!》

승객들의 가슴속에 맴돌던 행운의 기대는 짱그리 사라졌다.

객실안은 또다시 야비규환으로 화하였다.

아우성, 비명소리, 이리저리 헤덤비는 승객들… 고도 4,000미터!

공포에 질려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바닥으로부터 가해오는 이상한 진동에 몸을 떨었다. 진동은 삽시에 객실안의 비품들과 창유리들까지 함께 전율시켰다.

드르릉-

나나는 몸을 바르르 떨며 두눈을 꼭 감았다.

뒤따라 울리는 폭음… 폭발… 화광에 휩싸여 산산조각으로 흩어져버리는 려객기의 잔해들…

그것은 나나의 환각이었다.

객실안의 가벼운 진동은 여전히 계속되고있었다. 시창옆에 바투 붙어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있는 와쎈리박사는 석상마냥 온몸이 굳어져있었다.

《아버지.》

니나는 나직이 목소리를 떨며 마주앉은 아버지의 굳어진 몸을 조심히 흔들었다. 그러나 와셀리박사는 무아경에 빠진듯 여전히 까딱않고 기창박을 내려다보기만 할뿐이었다.

한동안 지속되던 객실의 진동이 차츰 잦아들더니 고도 3,500미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멎어버렸다. 그러자 지금껏 시창박만 내려다보며 굳어쳐있던 와셀리박사가 별안간 몸을 일으키더니 환성을 터치었다.

《멎었다! 멎었어!》

박사는 어리둥절해있는 자기의 딸을 잡아끌어 시창아래를 가리켜보였다.

《니나, 저길 좀 내려다 보아라.》

창가로 다가간 니나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금껏 눈앞으로 마주다가들던 푸른 산발, 푸른 등판들이 기이하게도 모두가 멎어선듯 움직이지 않고있었던것이다.

《?》

《저것은 바로 려객기가 공중에 멎어섰기때문이다.》

니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다. 기관이 숨죽여 추락하던 려객기가 어떻게 공중에서 멈춰선단 말인가?

그러나 와셀리박사는 객실안을 휘둘러보며 목청껏 웨치고있었다.

《려객기가 지금 고도 3,500미터 공중에서 완전히 멈춰섰소!》

처음 사람들은 니나처럼 와셀리박사의 말뜻을 미처 몰라 어리둥절해있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이 려객기를 떠받들고있습니다. 그러니 려객기는 더 추락하지 않으며 또 폭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았습니다. 모두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자 객실안은 벌둥지를 쑤서놓은듯 하였다.

환희! 걱정! 객실안은 온통 울음바다로 변하였다. 포웅, 포웅... 승객들모두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따로 없었다. 닥치는대로 서로 열싸안고 울며 웃으며 들썩이였다.

니나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기였다.

《아버지!》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동안 기쁨의 흐느낌을 터치던 니나는 살쾅이 고개를 쳐들었다.

《이제 꿈이에요? 생시예요? 우리가 지금 저승에 있는것은 아니겠지요?》

와셀리박사는 빙그레 웃음만 지을뿐이었다.

니나는 눈물을 씻고 시창아래로 얼굴을 돌리였다.

《그런데 무엇이 이 큰 려객기를 떠받치고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아야 눈에 띄이는건 없지 않아

요?》

너무도 경이적인 현실은 처녀로 하여금 아직 신비경의 심연속에서 헤어나올수 없게 하였다.

《물론 눈에 보일수가 없지. 그러나 그 힘은 실로 대단한거란다.》

《그건 뭐예요?》

《반중력이지, 반중력! 틀림없어.》

《반중력?》

그렇다면 중력의 반대되는 힘이 이 려객기를 떠받들고있다는것 이 아닌가. ...

《아인슈타인은 이미 오래전에 일반상대성리론에서 중력의 작용도 전자기힘의 작용과 같다고 예언한바 있단다. 이것은 중력의 힘도 인공적으로 조절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단다.》

《인공적으로요?!》

니나의 두눈은 휘둥그레졌다.

《이 문제는 내가 뉴욕에서 <미사일방위체계>의 연구에 종사할 때부터 생각해본거란다.》

《그 특수마당이 혹시 반중력마당?...》

와셀리박사는 고개를 끄덕이 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벌써 중력마당을 목적지향성 있게 조절할뿐아니라 합리적으로 리용하고있소.》

학계에서 가설로만 론의되던 문제가 조선에서는 벌써 현실로 된것 같다고 열을 올리던 와셀리박사는 문득 딸에게 물었다.

《니나, 어떠냐? 몸이 이상하지 않느냐?》

《풍선처럼 둥둥 떠오를것만 같아요.》

《그래? 허허 ...》

와셀리박사는 오래간만에 크게 웃었다.

자신보다도 사랑하는 딸과 250여명의 승객들모두가 구원된 기쁨으로 지금 와셀리박사의 심정은 형언키 어려운 희열로 고래치고있었다.

고마왔다. 폐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수백명의 생명을 구원해준 위대한 이 나라가 정말로 고마왔다.

《참, 그런데 김선생이 왜 보이지 않느냐?》

와셀리박사는 그때에야 객실안을 휘둘러보았다.

《기장님이 와서 모시고 갔는데 지금 모두가 저렇게 그 선생님을 찾고있어요.》

와셀리박사는 니나의 눈길을 따라 조종실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죽음에서 구원된 기쁨과 격정, 희열에 넘친 수많은 승객들이 석진이를 찾느라 법석 떠들어대고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와셀리박사는 가슴이 뭉클해들었다.

지금 석진은 자기 조국의 거대한 광채로부터 뿜어져나오는 빛발에 조명되어 이 려객기안에서 《구세주》로 떠받들리고있는것이다. 조국이 위대하면 그 인민도 위대해지는 법인가....

와셀리박사는 위대한 조국의 공민된 김석진이 진정으로 부러웠다.

공중에 신묘하게 솟아선 려객기를 향해 지상으로 부터 자그마한 기구가 떠올라왔다. 기구에 실린 로보트들이 려객기의 뒤날개 밑에 설치되어있는 특수 폭탄을 해체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었다.

기장은 컴퓨터화면의 지도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누구에게라 없이 중얼거렸다.

《걸쇠를 든든히 채웠겠지? ... 저 사람들이 모두 끌어들어오면 아마 이 김선생은 숨도 못쉴거요.》

기장과 려객기의 착륙문제를 토의하던 석진은 빙그레 웃으며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죽음에서 구원된 승객들의 열광적인 희열과 포옹이 쏟아질것이다. 그보다 석진은 지금 객실로 나갈수가 없었다.

누구보다도 기장이 적진을 놓아주지 않고있었던 것이다.

려객기의 연유가 떨어져갈 때 기장은 얼마나 당황해하였던가. 물론 석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통신기에서 울리는 소리에 석진의 감격은 그 얼마나 북받쳐 올랐던가.

《려객기! 왜 하강하는가? 무슨 일인가?》

조국은 지금껏 려객기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연유가 떨어졌다. 평양까지 갈수 없다. 공수지구에서 추락할것 같다.》

《그러면 안심하고 공수지구에 착륙하라. 곧 그곳 지구에로 지시를 떨어주겠다.》

이렇게 뜻밖의 정황으로 평양이 아니라 이곳 공수지구에 착륙하게 된 려객기를 무사히 내려앉히자면 지상과 련계를 가지고 석진이 기장을 도와야 할일이 많았던것이다.

아마 저 아래 지상의 보이지 않는 그 어느곳에서는 지금 공중에 떠있는 이 려객기의 상태를 주시하며 자동기계와 장치들이 쉬임없이 동작하고있을것이다.

폭발물을 해체한 려객기는 얼마후 공수지구상공

에 존재하고있는 신비한 힘마당의 조절을 받으며 수직으로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하였다.

고도 3,000미터, 2,000미터...

령롱한 아침해살이 려객기의 은백색동체를 밝게 비치고있었다.

×

죽음에서 구원된 250여명의 승객들은 평양에서 서로가 울고 웃으며 자기들의 목적지로 삼삼오오 헤어져갔다.

석진은 떠나가는 그들에게 려객기 안에서 받아두었던 돈과 귀중품들을 되돌려주며 눈물로 전송하였다.

와셀리 이와노비치박사는 자기의 딸 니나와 함께 로씨야로 떠나기 앞서 평양주재 외국기자들과 회견을 가지었다. 그는 회견에서 공수지구의 신비한 공간에 대한 서방기자의 호기심어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수지구상공에 형성되어 있는 미증유의 반중력마당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원되었습니다. ... 반중력의 에너지는 자기단극일수도 있고 또 그밖의 다른것일수도 있습니다. 반중력마당의 세기조절은 인공적으로 진행되는바 그 힘은 려객기의 백여톤의 무게를 중화시키는 정도가 아닐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 우주에서부터 대기권을 뚫고 날아들어 오는 거대한 운석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할것입니다. 그러니 하물며 외부로부터 침습하는 포탄이나 폭탄따위야... 그 반중력마당에서는 제아무리 강력한 추진력과 수직탄도를 가진 미싸일일지라도 무용지물로 되리라는거야 불보듯 뻔하지요. 그러고보면 공수지구에 존재하는 그 신비한 공간은 튼튼한 <장갑판> 인셈입니다. ... 나는 그 신비의 공간이 공수지구뿐 아니라 평양의 상공에도 형성되어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조선의 전 령토가 바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갑판>으로 덮여있을런지. ...》